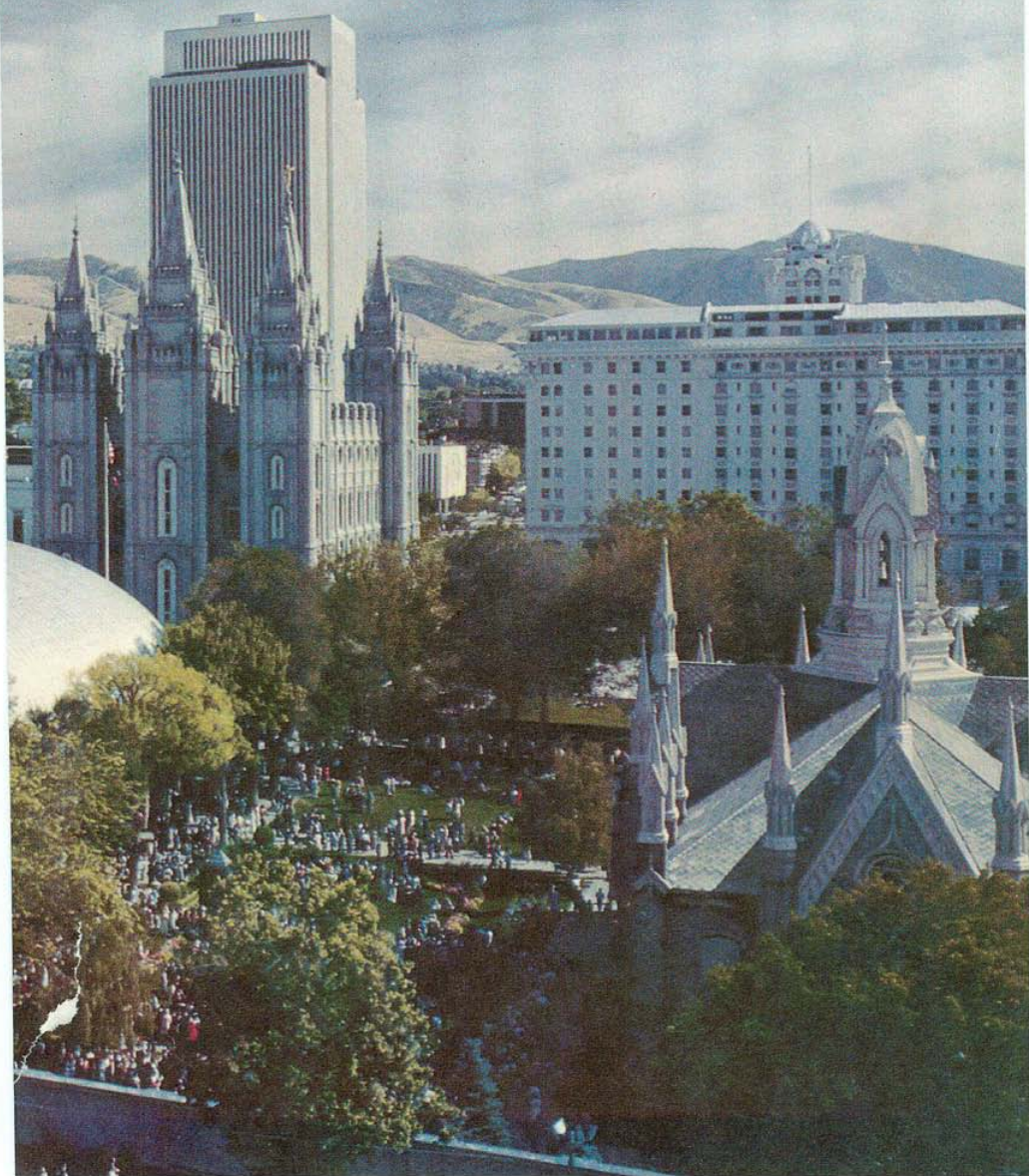


# 성도의 빛 4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덴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르스 알 맥롱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엘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차례.....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보고 ..... 2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아침 모임 ..... 4

쇠막대기를 굳게 잡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5

상호부조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9

사랑의 선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 12

참된 종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15

영혼의 가치..... 매리온 지 롬니 장로 ..... 17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모임 ..... 22

신권 부여와 교회 역사의 지지에 관한 계시..... 엔 엘덴 태너 부대관장 ..... 23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힝클리 장로 ..... 26

부름에 대한 응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29

예언자와 하나가 됨.....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 30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테디 디브러 어턴 장로 ..... 31

선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 31

영성의 척도..... 로버트 이 웰즈 장로 ..... 32

선교 사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본 제이 페디스톤 장로 ..... 35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 39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 41

1978년 9월 30일 신권회 대회..... 45

선교 사업의 기쁨.....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 46

신앙과 용기와 선택..... 던 엘라스 장로 ..... 49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조셉 비 워스런 장로 ..... 51

그리스도의 제자.....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54

교회 접견의 축복..... 엔 엘덴 태너 부대관장 ..... 58

명상과 삶을 위한 근본 원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63

1978년 10월 1일 일요일 아침 모임..... 68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엔 엘덴 태너 부대관장 ..... 69

누가 추수하지 못하게 됩니까?.....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 74

하나님을 바라보다 살도록 하라..... 칼로스 이 에시 장로 ..... 78

참된 신앙의 예.....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 83

모로나이의 마지막 말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 86

1978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91

너희는 계시를 받게 되리라..... 브르스 알 맥롱기 장로 ..... 92

펠릴라야 집으로 돌아오라..... 존 에이치 그로버크 장로 ..... 95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에스 딜워스 영 장로 ..... 98

영적인 발전..... 엘러셀 벨라드 장로 ..... 100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디오거 장로 ..... 103

가정 복음 교육..... 엘 톰 페리 장로 ..... 105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109

1978년 9월 30일 복지 모임..... 113

복지 사업의 결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114

건강은 행복한 삶의 열쇠임..... 바바라 비 스티스 자매 ..... 119

비디오 배어메이힐로 지부의 놀라운 모범..... 빅터 엘 브라운 감독 ..... 120

성공적인 청지기.....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 123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 126

복지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부장의 역할.....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27

가난한 자를 보살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130

대회 화보 ..... 136

교회 총관리 역원 ..... 144

여성의 특권과 책임.....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146

지역 지도자 메시지..... 이 호 남 ..... 154

지역소식 ..... 15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스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 권 : 제165호, 제15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널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9년  
 제15권 4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소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보고

1978년 9월 30, 10월 1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개최된 반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대** 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참으로 저는...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교성 107 : 91-92)

이 직분의 권능과 약속과 영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인 연차 대회를 감리하였다.

이번의 반연차 대회는 참석한 회원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계시를 “주의 뜻과 말씀으로” 받아 들였다는 면에서 중대한 대회였다.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교회의 합당한 남자에게 신권과 신전의 축복을 부여하는” 이 계시는 지난 6월 9일에 발표되었으나 교회의 “헌법 제정 회의”로 대회에서 회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 대회였다.

킴블 대관장은 모든 모임을 감리하였다. 대회 첫 모임인 토요일 아침 모임에서 그는 지난 8월 19일 벨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의 별세로 인한 현재 공석으로 있는 심이사도 평의회회 새로운 회원을 발표했으며 그와 함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및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3명의 총관리 역원을 발표하였다.

오후에 있었던 이들 총관리 역원의 지기에 앞서 대관장단 제1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신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오랜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인 봉사를 한 총관리 역원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명예 직분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이들은 개인적인 복리와 신상 문제로 활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 직분에 지지된 총관리 역원은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제임스 이 켈리모어 장로, 조셉 앤더슨 장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존 에이치 반 멤버그 장로, 에스 딜위스 영 장로 등이다.

심이사도 평의회회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된 형제는 전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이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가 지지되었으며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는 유타주 바운티플 출신의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캐나다 켈거리 출신의 테디 이 브루어턴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가 지지되었다. 이로써 현재 총관리 역원의 총인원은 68명이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은 4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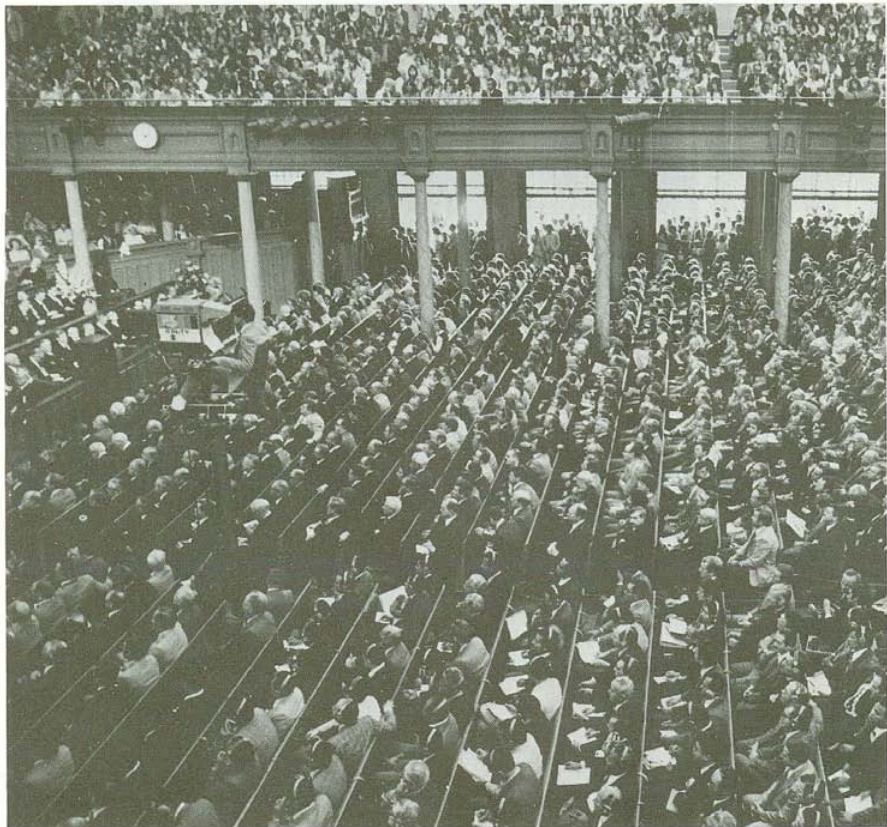
대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에 걸쳐 가졌으며 모두 32명의 총관리 역원이 말씀을 했다. 모임은 뎀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가졌다.

대회 모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200개의 방송국을 통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으며 376개의 유선 텔레비전 시스템과 50개의 방송국을 통해 최초로 이탈리아에 방송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 71개의 라디오 방송국, 미국에 61개소, 오스트레일리아에 61개소, 이탈리아에 20개소(최초임), 유럽과 아프리카에 2개소를 통해 방송되었다. 또한 폐쇄 회로로 미국에 320개

지역, 유럽에 64개 지역에 방송되었으며 유럽의 73개 지역에는 7개의 방송국을 통해 단파 방송으로 증계되었다. 미국, 캐나다, 푸에토리코의 1424개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한국, 일본 등지의 54개소에는 토요일 저녁 신전 모임을 폐쇄 회로로 방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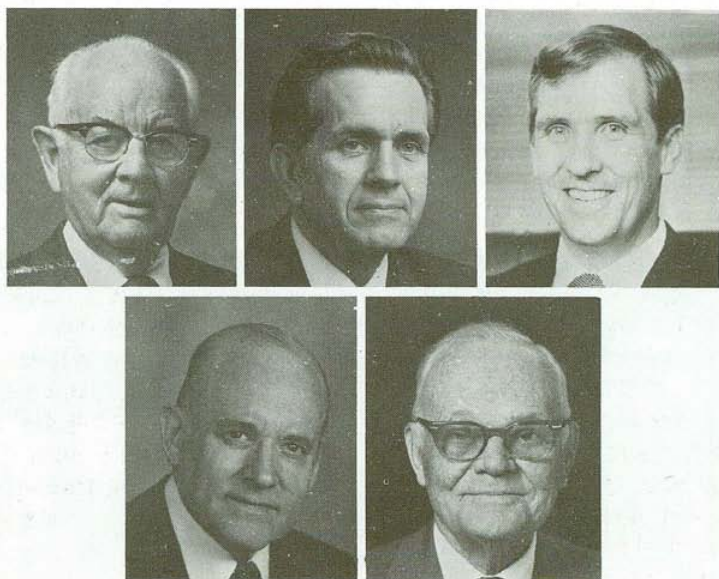
이틀에 걸친 일반 총회 이외에도 9월 29일 금요일에 교회 본부 건물에서 지역 대표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킴블 대판장은 곧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지역에 관해 중대한 지시 사항이 전해졌으며 교회 프로그램의 중요한 면에 대해 다른 총관리 역원의 지시 사항 등이 있었다. —편집자—

태버나클에 참석한 성도들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아침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렉스 디 피네가 장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쇠막대기를 굳게 잡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우리  
를 엄습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전한 곳  
으로 인도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펠버트 엘 스  
테이플리 장로의 별세로 몹시 슬픈 일  
을 겪었습니다. 그는 1978년 8월 19일에 별  
세하였습니다. 스테이플리 장로는 십이사도  
로서 28년간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봉사했습  
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대단히 섭섭  
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 그의 가정에 사  
랑과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스테이  
플리 장로 대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  
로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를 여러분 앞  
에 발표합니다. 이 부름에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는 또한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으로 프레드 버튼 하워드 장로, 테디 유진 브  
루어터 장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와 철  
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었던 파우스트 형  
제 대신 윌리엄 그랜트 벙거터 장로의 지지  
를 묻겠습니다. 이들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  
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  
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지받으신 분들은 단상에 마련된 자  
리에 각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  
세계적인 이 대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솔트레이크시티  
에 이처럼 큰 회중이 모여 실로 세계 각처에  
서 온 신앙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보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나는 자유 국가의 거의 모든 전역에서 주  
님의 지상 왕국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여 선교부름 세우며 날  
로 증가하는 젊은 남녀 선교사에게 필요한  
더욱 효율적인 지도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가졌던 지난 대회 이래로 우리는  
10개의 새로운 선교부름 세워 모두 166개의  
선교부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의 수  
는 26,606명으로서 이들은 “교회의 대관장단  
의 지시 아래 하늘의 법도에 일치하도록 주  
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하나니, 교회를 설  
립하며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  
무를 정리”하는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십이  
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거의 모든 국가와  
방언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스테이크의 수는 1000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1943년에 사도로  
부름받던 당시 전 세계에 145개의 스테이크  
가 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입  
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울타리로 메려오는 프  
로그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취된 일은 많지만 반면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용기있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요 인  
류의 구속주임을 외치는 일에 매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곳에서  
정원에 채소를 심어 노력의 대가로 얻는  
식량으로 기쁨을 얻고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  
도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부모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  
라 자녀에게도 부모를 도와 정원에 채소가  
꾸는 일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들은 노동의  
가치와 기쁨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  
한 가족 활동에 참여할 때 책임감을 기르

됩니다.

우리는 밭이나 정원만을 가꿀 것이 아니라 집안과 창고, 울타리 등을 잘 수리하고 손질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끝이 없으며 꾸준히 계획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 일지 및 기록 작성과 가족의 역사를 잘 기록하여 보관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계보 및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본 말일성도라면 그들의 조상이 좀더 훌륭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것입니다. 반면 어떤 가족은 영적인 어떤 보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상황과 기적적인 축복 및 영적인 체험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기록을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들의 생활에 큰 사건도 없고 아무도 그들의 업적에 흥미를 갖지 않으리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일기와 기록을 작성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자손과 다른 사람에게 여러 세대를 통해 위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가정의 밤은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어린 자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것을 글로 적는 것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은 오늘부터 하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가 좀더 시급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은 더욱 잦은 신전 활동으로 죽은 친족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신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주 신전에 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회원도 또한 신전 추천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들도 이 영원한 축복을 향유하고 시온산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신전 사업의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할

니다.

나는 거듭 모든 성도에게 안식일을 더욱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이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부와, 쾌락과, 오락과 우상이나 물질의 신을 좇아 안식일의 거룩한 목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준수하며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아니고는 어떤 사업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희지나 운동 경기나 온갖 종류의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레 19:30)는 주님의 계명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안식의 목적을 어기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날 외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통신 수단은 매일 우리에게 사악하고 흉악한 것과 의를 파괴하는 것을 전해 줍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분명 그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허용이 우리의 큰 근심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꾸준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는 생활 자체의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사람이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변화의 진통을 세상이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예전처럼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의 온갖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일질 일획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신의 세력은 분명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악과 타락의



홍수로 뒤덮이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옳고 참된 것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거기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십시오”

1946년, 힐로와 하마쿠아 해변을 강타한 파도가 12미터나 되는 거대한 해일이 있었던 후 나는 하와이를 방문하여 해일이 남긴 참화를 목격하였습니다. 집은 전복되어 박살이 났고 울타리와 정원은 흔적이 없어졌으며 다리와 길은 파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목욕탕의 욕조와 냉장고 망가진 자동차들이 거리에 즐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이 서 있던 자리에는 기초만 남았을 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백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이상의 수가 부상을 당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고난의 이야기와 영웅적인 행동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는 해일이 몰려 온다는 전화를 친구로부터 받고 피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밖을 내다 보는 순간 마치 산같은 거대한 파도가 물려오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기를 안고 살기 위해 언덕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두 딸은 라우하라 나무숲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나무 숲으로 뛰어가 두 팔로 나무를 힘껏 끌어 안았습니다. 거대한 첫번째의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숨을 멈추고 물이 다시 밀려 나가 머리가 물밖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나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 나가자 그들은 다음 파도가 밀려 오기 전에 힘껏 언덕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가족은 안전한 언덕의 피난처에서 함께 파도에 부서져 사라져 가는 집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강하고 파괴적인 적의 힘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죄, 사악, 부도덕, 타락, 포악, 속임, 음모, 부정적 물결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힘과 빠른 속도로 밀려 오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밀

망시킵니다.

그러나 경고의 음성ى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고 경청하여 영생을 위해 악으로부터 도피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이 그 세력과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피신하거나 우리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지닐 수 있는 온갖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영감받은 물문경의 한 예언자는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찬 바람을 불어 보내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치게 하고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 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비참하고 끝없는 저주의 구렁으로 끌어넣지 못할지니”(히5:12) 나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결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고 신의 속성을 발전시켜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숨어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요, 게으른 자는 그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단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를 통해 산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계명은 최소한의 행동 표준을 말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락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

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 3:24)

그러나 계명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는 십계명의 신성함을 가르치셨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고하신 분이요 우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의로운 자녀에 대해 큰 기쁨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성모독을 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중대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않는 반면 친구나 이웃이나 자녀들이 우리의 위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안식일에 극장, 사냥, 낚시, 운동이나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건설적으로 보내는 방법에는 경전 연구, 모임에 참석하여 배우고 예배하며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병자를 방문하는 등 주님께서 이날에 즉 그의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참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훌륭한 성품을 닮도록 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더 값진 것을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양육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돕는 데 관대해야 합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고 있음니

다. 지혜와 절제로 우리는 건강과 육체의 복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성스럽도록 유지해야 하며 결혼하기 전 구애를 하면서 느끼던 감정과 존경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영원하고 신권으로 인봉되며 죽음 저편에까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예절과 친절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뜻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출 20:15)고 하셨습니다. 그와같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대하다는 것은 돈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이기심의 좋은 예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 22:39-40)입니다.

친절, 도움, 사랑, 염려, 관용—덕스러운 용어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향상시킬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계조 13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탐구하는 자는 스스로 연구하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며 성신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자가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실천되는 복음의 원리를 볼 수 있

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얼마나 더 쉽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적극적인 기독교인의 덕성을 모범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보다 교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행해야 할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자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영원한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우리에게 뒤덮일 때 우리에게는 안전히 은신할 수 있는 원리의 나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석막대기를 단단히 붙잡고 견딜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상호부조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자매 여러분, 형제가 신권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듯이 여러분의 의무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속할 수 없는 조직에 관해 몇 마디 충고를 드리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조직은 실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결코 그 조직의 회원일 수는 없지만 내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 조직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조직의 하나인 상호부조회입니다. 이 조직은 70여개 국가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만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만명의 회원이 늘고 있으며 이 조직에는 오직 여성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설립하였을 때 여성

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권의 반차를 통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시착의 열쇠로 이 조직의 문을 엽니다. 이 부조회는 기뻐할 것이며 지금 이후로 지식과 예지가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교회 정사 4:607)

예언자는 또한 이 조직이 “자선 단체이며 여러분의 본성에 맞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언하셨습니다. “단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에 좇아 산다면 천사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30년 전에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최초로 선거권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최초로 교회 일에 발언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그것은 주님의 예언자에게 주어진 계시의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의 여성이 누려온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속한 여러분만이 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열쇠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위 대대로 종교적인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상호부조회지 1945년 12월 717페이지)

나는 상호부조회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여성만의 조직으로 특성을 살릴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원이 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호부조회라는 명칭이 변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언자에 의해 여성에게 주어진 바로 그 헌장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모든 회원은 문학, 미술, 음악, 사회, 가사 기술, 영적인 생활 등에 대해 배웁니다. 회원은 모든 온당한 감정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나의 아내가 식료품점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것을 곧 쓰도록 정리가 되었으며, 어떤 것은 다시 요리를 할 때까지 선반에 정돈되었으며 어떤 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자주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상호부조회에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것들을 갖고 옵니다. 어떤 것은 즉시 사용하며 어떤 것은 저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창고에는 그녀가 상호부조회에 참석한 이래로 얻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상호부조회 회원이 되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여성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몇년 전에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출판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자의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걷는 것입니다.”(존 에이 윅스, 증거와 화해, 지 호머 더럼편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0년 305페이지)

상호부조회는 조직된 방법으로 보아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상호부조회는 덕성있는 여성과 차분하고 조직적인 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손하고 영적이며 부지런한 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또는 노소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절제하고 조직적이 아니며 실망하거나 근심에 잠긴 여성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의로운 여성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해롤드 비리 대판장의 첫번째 부인의 장례식을 끝낸 뒤 나는 그의 딸 헬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아 드리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분명 의로우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헬렌은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녜요,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섭섭하게 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 드린 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상호부조회는 그러한 필요를 위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곳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옷의 유행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상하고 자질을 갖춘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여성과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지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행 능력이 있는 여성, 가르칠 능력과 언변이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가르치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데 개별적으로 필요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항을 간파하고 위험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기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의로운 것임을 분별할 수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언민의 정 이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사 4 : 570 페이지)

상호부조회는 복지 사업에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는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상호부조회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에게 나는 상호부조회의 참석이 중요한 의미에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제들에게 있어 신권으로 형성되는 인격의 모범을 그들 생활에서 기르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상호부조회에서 길러지는 덕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최근에 나는 몇 명의 자매가 상호부조회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자매와 젊은 자매가 함께 흥미를 느끼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자매들이 흥미를 갖는 공과나 활동을 하면 나이든 자매들은 참여를 안해요. 모든 사람이 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앉아서 상호부조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매에게 어떤 동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충실한 자매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합당한 봉사를 할 때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케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상호부조회의 활동을 마치 식성 까다로운 사람이 뭔가 특별한 메뉴를 찾듯이 하나 하나 뜯어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가 신권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듯이 여러분의 의무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난 상호부조회에서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석치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888년에 상호부조회와 교회의 청년 조직이 국립 부인회와 국제 부인회 설립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주로 여성의 선거권과 여성과 어린이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대표들은 상황과 지도자와 물문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좋게 또는 나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1945년, 벨레 스미스 스페포드자매가 상호부조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스페포드 자매는 지지를 받은 지 한두 주일 후에 국립 부인회로부터 뉴욕 시티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스페포드 자매는 전에 그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좌들과 함께 그 모임에의 초청을 수주일 동안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숙고한 끝에 대관장에게 상호부조회는 그 부인회 회원직을 사퇴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퇴 사유를 적은 서한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페포드 자매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서한을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에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여성 국립 부인회와 국제 부인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유로 탈퇴할 것을 진의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신중하게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반세기 이상 부인회 회원으로서 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관장께서는 질문했습니다.

스페포드 자매는 뉴욕까지 가는데 얼마만한 경비와 시간이 드는가를 설명하고 이따금씩 겪는 굴욕같은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그 부인회에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현명한 연로하신 예언자는 몸을 의자 뒤로 चे치고는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것도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탈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고 그녀가

내담했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은 늘 얻는 견지에서만 생각을 하시나요? 나에게 무언가 주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는 그 서한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회에 계속 참석하시고 자매님의 영향을 그곳에 미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스페포드 자매는 현명한 예언자께서 하신, 정중한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얼마 후 그 조직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교회의 자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모임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호부조회가 진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조직된 기구이기 때문에 고려할 여지도 없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조직된 이래로 이제까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로부터 발산되는 빛과 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상호부조회가 현명하고 영감을 받은 신앙이 강한 자매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통해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사람, 외로운 사람, 또는 독신에게 있는 좌절감이 사라지고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감받지 못한 사람과 잘못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의 방황하는 마음은 확신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달 동안 이 문제에 관해 기도를 하고 나 스스로 이것이 그분의 조직인가를 간구한

후에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자매를 축복하셔서 그들이 강화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언자를 통해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사랑의 선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교회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회원을 돕는데 있습니다.”

**최** 근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비행기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곧 집안에서 있을 중요한 행사에 잠겨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단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먼 나라로 선교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 이러한 것을 생각케 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토록 먼 곳에 가서 교회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면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그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로 보일 수 있는 특성과 자격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유익한 활동 프로그램, 자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여성의 기술 및 재능 개발 프로그램,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사람, 재난을 겪은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 일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가족과 개인에게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가 열거한 내용은 길고도 인상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스스로 그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 했습니다. 과연 그의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가장 훌륭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그가 열거한 내용이 너무도 훌륭하다고 생각되어 열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신사에게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중역인 이 신사는 흥미와 존경의 뜻을 보였습니다. 둘은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한 뒤 대화를 결론 지으면서 그 신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네 이웃을 베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가장 훌륭하게 모범으로 실천하는 회원입니다.”

나의 친구는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교회 프로그램의 목적이 회원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 주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 자체만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주고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베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나의 친구의 아들, 그리고 그와 같은 27000의 젊은이가 가정과 친구와 가족과 가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회개하여 그를 따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믿고자 열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유수한 어느 출판사가 최근에 실시한 전 국가적인 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상이 지녔던 힘을 발전하도록 도와 주고 다시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며 이 위대한 국가를 세우게 한 개척 정신을 반영시키는 종교와 기독교인다운 삶에 신앙을 다지게 하는” 종교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람들이 구하는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출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그들(물론)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들의 전망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써 온 세상이 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한살 된 나의 딸 크리스틴은 며칠 전에 나에게 더 훌륭하고 더욱 의로운 삶의 방법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빠, 난 꼭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생활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오늘은 할 수 있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아무런 실수도 없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날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나는 자주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권고를 해달라고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

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많은 잘못 때문에 죄의 짐을 벗어던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신이 시들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크리스틴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반면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은 구세주의 사랑이 지닌 위대하신 구속의 능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에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더이상 기억치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교성 58:42참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도와 주고 인도하며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하여 쓴 고전적인 글에서 죽어가는 소년을 보러 간 어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한 마디가 소년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그에게 엄습했으며, 그를 녹는듯하게 했으며 그에게 새로운 심장이 고동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심장을 녹이내리게 하며 그에게 새로운 사람 즉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이기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

랑하셨기 때문입니다.”(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올드 태폰, 엘 제이 플래밍 에이치 리벨사 47-48페이지) 우리의 행동이 그분과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는 영향력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몇주 전에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예쁜 포장을 풀러 내용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의 사무실에서 본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능력과 유용성을 격찬했었습니다. 훌륭한 솜씨였으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선물을 나에게 주고자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은 자신이나 나를 위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에게 주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보여진 사랑으로 기뻐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는 그가 지닌 가장 값진 것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사랑의 도범과 가정과 이 위대한 교회에서 매일 체험하는 사랑의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줍니다.

나는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위대한 첫번째 계명들을 명심하여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여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가장 훌륭한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임을 간증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참된 종교

하워드 더블류 헨터 장로  
십이사도 영의회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나는 국가의 요직에 있는 한 사람의 회견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내게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읽고 나는 그가 왜 종교를 그가 이야기하려는 사회와 정치 문제에 연관시키려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으며 왜 그 자신을 종교인이 아니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 생각에 종교의 정의에 달렸다고 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꼭 정해진 한 개의 개념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공동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예배에 관련해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어떤 때는 신성한 것과 모독적이거나 세상적인 것파를 구별하기 위해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불사불멸에 대한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하나는 신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자주 소위 구원이라 부르는 것과 연관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신성한 곳으로부터 계시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되어 요셉 스미

스는 그가 받은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은 글을 출판했습니다. 질문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예언자의 간증으로서 그가 죽어 장사되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였다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교회사 3 : 30)

경전에서 다른 주제에 관한 정의는 찾을 수가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종교적인 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종교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며 신약에 겨우 세 번이 쓰였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찾아 보겠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바울이 아그립바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였습니다. 그는 아그립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행 26 : 5) 그는 유대인의 세 가지 종교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세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신조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교리보다는 관습에 더 중점을 두었고 믿음의 신조보다는 의식적인 예배에 치중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두번째로 쓴 것도 역시 바울로서 갈라디아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종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꾀박하여 잔해하고”(갈 1 : 13)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한 박해를 잘 알고 있으며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잔혹한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그는 그의 조상의 종교 즉 히브리인의

혈통을 통해 내려온 철칙과 전통을 따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의 철칙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박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아그립바왕 앞에서 했던대로 종교를 믿음의 교리나 신조로서 보다는 관습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세번째로 쓰인 종교라는 말을 찾아 봅시다. 그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으로 “홀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쓴 것입니다. 이 열 두 지파란 아마 모든 이스라엘인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종교적이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막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종교)은 헛것이라”(약 1: 26)

야고보는 종교라는 말을 바울이 썼던대로 관습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서 어느 사람이 의식을 준수한다 해도 그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의 관습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식적인 예배나 바울이 이야기한 관습의 철칙으로부터 순수한 종교를 정의하고 구별치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종교)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27) 이 말씀은 단순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는 깊고 의미심장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웃에게 동정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자주 사랑에 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39)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웃에 대한 동정어린 봉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불쌍한 이웃으로 고아와 과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종교의 정의가 뜻하는 두번째 요소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

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죄와 불의의 공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 2)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야고보는 참된 종교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참된 종교란 꾀로부터(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깨끗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봉사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베냐민왕은 광대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가 평생을 그들을 위해 일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뿔내려 함이 아니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 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 2: 16-17)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4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또한 이와같은 속성 즉, 친구와 이웃과 온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보여 줍니다. 카테이지 감옥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존 테일러는 마지막 두 시간 동안 그 우울한 분위기에서 요셉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노래는 여러 절로 되어 있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을 돕고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스레기를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몇 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슬픔에 잠긴 나그네  
내 옆을 지나 가면서  
거절할 수 없는 도움  
나에게 간절히 구할 때  
어디서 와 어디로 가며

이름도 묻지 못하나  
 그 눈에 나도 모를  
 무엇 있어 내 사랑 끌렸네  
 먹을 것 적은 상 앞에  
 말없이 나그네 찾아와  
 음식을 구하매 모두 주니  
 축복을 하고 먹으며  
 내게도 주어 받아 보니  
 그것은 천사의 것이라  
 굽히 입에 넣었더니  
 부스러기는 만나였네

그 다음 절은 물을 주어 고통받는 자의 갈증을 풀어 주고 헐벗고 지친 자에게 옷을 입혀 쉬게 하며 상처입은 사람을 돌보고 갇힌 자의 형벌을 함께 나눈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나그네  
 내 눈 앞에서 변모되었네  
 손에 있는 못자국 보고  
 구세주인 줄 알았네  
 내 이름 부르며 하는 말,  
 “내게 한 너의 행실은  
 길이 기억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찬송가 153장)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 : 45-46)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오래 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자신은 근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하여 그것을 악행과 금지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참된 종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욱 의모나 현실

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에 대한 간증이 예언의 영이듯이 여러분이 순수와 의로움과 정직, 공의, 선행 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 내부 깊은 곳에 있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성장과 발전을 꾀하려 하게 됩니다.”(“처절로 종교적이 되는 것은 아님”,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4월 495페이지)

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여 참된 종교인으로 간주되고 주님으로부터 시인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영혼의 가치

매리온 지 롬니 장로  
 대관장단 제 2 보좌

“모든 사람의 열망, 소망, 노력은 자신과 그 이웃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영혼의 가치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나와 더불어 간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8년 전 바로 이 무렵에 선교사업을 위해 교회 본부를 떠날 때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인쇄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교성 18 : 10-11)

인간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신 말씀은 그 고통의 격렬함을 깨달을 때 더욱 분명해 집니다. 그에 대해 누가는 겟세마베에서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더라”(눅 22 : 41-44)

1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몸소 그 당시의 고통을 초기의 몇몇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그리하여...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 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 서려고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5-19) 주님께서 현대 경전에서 나타내 주신 인간의 가치는 역시 고대 예언자에게도 계시되었습

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주님께서 창조의 위대함의 일부를 보여 주셨으며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목적 즉,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일부를 본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지구와 같은 수백만의 존재를 헤아릴 수 있다면 이는 주께서 지으신 창조의 숫자의 시작에 지나지 아니하리이다.”(모세 7 : 30)

주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모세에게 보여 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한 세상과 그 하늘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임하나니, 나의 일이나 말씀에는 끝이 없느니라.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 : 33, 38-39)

이 성구들은 시편의 저자가 지은 시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편 8 : 3-6)

측량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만 옵니다.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몸소 또는 그가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인간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야담과 이브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후 각 경륜의 시대마다 “백하신 그릇”(모로 7 : 31) 즉 그의 예언자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들 예언자는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를 충실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성신의 권능으로 그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모로 7:32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체로 결합되어 살아있는 이중의 존재이다. 그 영은 지구가 창조되기 오래 전에 전세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해 있었다. 이 지구는 사실상 그 영체가 육신을 얻기 위한 장소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영체의 본질에 관해 기록에 나타난 분명한 가르침은 주전 2200년에 예수께서 야벳의 형제에게 영체로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주어졌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냐?”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3:14-16)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영체를 닮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인간의 기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교성 76:24)입니다. 출생의 절차를 통해 자존하는 예지가 개인적인 영적 존재로 조직된 것입니다.

## 인간의 운명

인간의 영은 전세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운명, 즉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게 된 것이며 두번째는 산 영혼으로서 불사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첫째 인간의 영은 육신의 출생을 통해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입어 인간이 되게 하셨으며 둘째는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영과 육은 잠시 분리되며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세째 부활에 의한 영혼의 소생으로 영과 육은 다시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불사불멸을 가져다 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곧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죽음에 대한 승리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곳에서 이야기한 불사불멸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축복을 통해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사불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까지도 보장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불멸의 영혼 가운데는 그들이 처할 등급이 많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교전 15:41-42) 그것은 바울이 말한 교리입니다.

불사불멸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 영생은 생활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영 즉 하나님께서 몸소 향유하시는 불사불멸의 가장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 인간의 잠재력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언어야 하는 영생은 인간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되고 부활했으며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우주적인 자연 법칙과 더불어 그 능력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높은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이 진리를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요일 3:2)

예수께서는 이러한 높은 상태에 이르기 위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 5:48)

영생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준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곧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니삼 27:33)

이곳과 다른 경전에서 예수께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곧고 협착하다고 경고하고 가르치셨지만 그 문은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도 예배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교성 93:1, 19-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런 사업과 영광은 그가 말씀하신대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교성 18:10) 큼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보기에서 심히 가치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듯이 모든 사람의 열망, 소망, 그리고 사업은 자신을 위한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서까지

해야 하며 그것은 신이 누구이며 그의 본질, 기원, 운명과 가능성을 완전히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영생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나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청중 가운데 아직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살펴 본 인간의 가치에 관한 진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은 태초에 아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는 복음 경륜의 시대마다 새롭게 계시되었으며 가르쳐졌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몸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특별한 메시지는 경전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알려진 오늘날 하늘이 다시 열렸으며 인간의 기원과 본질, 운명 그리고 가능성이 다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대의 사도와 예언자가 지상을 방문하여 “주님의 택한 그릇”인 현대의 예언자와 교통하였으며 이러한 진리와 남아있는 순수하고 단순한 원리,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다시 확실히 하셨습니다.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인 하나님의 신권은 다시 인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힘을 다해 지상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메시지를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마음 참뜻을 가지고…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4)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회부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거나 초대해 주시면 책자를 보내거나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편의에 맞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

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대 제자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책임이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 세상에 나가…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성 68:8)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에 대한 내 개인의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 들이신다면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안내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제까지 몰랐던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대관장관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테디 이 브루어튼 장로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 신권 부여와 교회 역원 지지에 관한 계시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금년 6월 초에 대관장단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 교회의 합당한 모든 남자는 신권과 신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킴블 대관장께서는 이 계시를 받은 뒤 나에게 그것을 대회에서 이야기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거룩한 신전의 신성한 방에서 오랜 동안의 명상과 기도 끝에 받은 것으로 계시를 받은 뒤 그는 그것을 보좌에게 알렸으며 보좌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곧 십이사도 평의회에 알려졌으며 그곳에서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고 뒤이어 다른 총관리 역원에게도 알려져 전원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킴블 대관장께서는 내게 그 서한을 읽도록 부탁하셨습니다.

“1978년 6월 8일

“전세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권 역원에게 :

“사랑하는 형제님,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감을 보면서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놀라운 수의 개종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합당한 회원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서 언젠가는 합당한 모든 형제가 신권을 받게 된다고 한, 앞서 간 교회의 예언자나 대관장님들의 약속을 알고 있는 지금까지 신권이 거부되고 있는 형제들의 성실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 성실한 이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기 위해 신전의 기도실에서 주님께 여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교회의 모든 성실하고 합당한 형제가 성신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거룩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신전의 축복을 포함한 모든 신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약속된 날이 도래했음을 계시를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의 직에 성임될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는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될 모든 추천자들이 이미 확립된 합당성의 표준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주의깊게 점검하는 정책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그가 승인하신 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고자 스스로를 준비하는 지상의 모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밝히셨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름니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회중에게 이 계시를 주님의 말

씀과 뜻임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킵블 대관장님, 만장일치로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과 일반 역원의 지지를 묻기 전에 킵블 대관장께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떨어가는 교회의 급성장에는 그에 부수되는 여행과 책임의 증가로 총관리 역원 조직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몇몇 형제들은 오랜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여 봉사했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모든 영광과 만인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행하던 책임의 무거운 짐을 약간 덜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 동안 심사숙고한 뒤에, 실로 몇 해를 두고 생각한 뒤에 우리는 총관리 역원 가운데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새로운 특별한 직분을 발표합니다. 몇몇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에 회원으로 부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그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리를 고려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직분은 때에 따라 총관리 역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관리 역원 및 본부 임원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킵블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단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킵블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그리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더어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폴 에 이치 던,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디오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톤, 로버트 디 헤일즈, 에드니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워스런,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데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애시, 엘 레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즈 엘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로널드 이 포울 맨, 데릭 에이 커스버트,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칠십인 제일 정의회 명예 회원으로 스티어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에스 딜워스 영, 이상의 여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1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브래드쇼우 스미스 자매, 제1보좌로 제비스 러셀 캐넌 자매, 제2보좌로 매리언 리차즈 보이어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러셀 앤 벨슨 형제, 제1보좌로 조 제이 크리스티슨 형제, 제2보좌로 윌리엄 디 오스왈드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닐 디 셰이러 형제, 제1보좌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형제, 제2보좌로 켄 지 맥케이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엘레인 에이 캐논 자매, 제1보좌로 알린 비 다저 자매, 제2보좌로 노마 비 스미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초등학교 회장으로 나ومی 맥스필드 섭웨

이, 제1보좌로 콜린 부쉬만 레몬, 제2보좌로 도로시어 루 크리스찬슨 머독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엔 엘몬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이상의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월포드 지 애플링, 해틀드 에이치 베넷, 웨스턴 이 해밀턴,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이상의 여러 형제들과,

태버나클 합창단 단장으로 오클리 에스 이 반스, 지휘자로 제롤드 디 오틀리, 보조 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태버나클 울개 반주자로 로버트 칸덕, 로이 엠 달리, 존 롱거스트, 이상의 여러 형제들,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킴블 대관장님, 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진행되었습니다. \*



#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힐러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막중한 책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성신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손자를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나는 공중 곡예를 하는 사람보다도 손자 아이들이나 그와 같은 포태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웃다가 눈을 크게 뜨고 아슬아슬한 장면을 바라보고 하는 모습을 신기한듯이 지켜봤습니다. 나는 인간과 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어린이의 기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흥미있게 구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니파이 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우신 후 그 백성들에게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17:23)고 하신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선한 자와 끔찍한 악인이 있는 것은 어제의 자녀 교육의 결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키는 결과에 따라 몇 년 후의 세상도 그렇게 됩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자녀의 교육을 관찰하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

지 아니하리라”(잠 22:6)

내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당량의 복숭아를 재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농과 대학의 가지치기 시범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월과 2월의 매 토요일이면 우리는 농장에 가서 가지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와서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꼭 잘라야 할 곳을 잘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봄과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나무의 형태가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월 경에 이미 9월경의 수확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티 실리반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려 하시거나 크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 하실 때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하신다. 그는 지진이나 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무력한 아기를 탄생시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어머니 마음속에 심어 주시고 어머니는 그것을 아이의 마음 속에 심어 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세상을 변모시키는 강력한 힘은 지진이나 벼락이 아니라 어린 아이이다.”(지혜의 보고, 53페이지)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었느냐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40)

나는 분명한 것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것들에는 어린이에 대한 네 가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즉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존경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를 안아 주셨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이며,

행복한 자녀입니까? 그 뜻밖한, 그 사랑은 곧 훌륭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특색짓는 거친 풍경은 어렸을 적 자녀에게 베풀어진 거친 대우의 결과입니다.

며칠 전 어렸을 때의 친구 하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라던 이웃에 대한 추억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살살이 아는 가까운 사람들로 나는 우리가 그들 모두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의 느낌을 회개하였습니다만 그때를 돌아보면 내 감정은 다시 격렬해집니다. 그의 아들들은 우리의 친구였지만 나는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왜 이런 반감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채찍이든 막대기든 손에 닿는대로 그의 자녀를 마구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 온 가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도 결코 벌을 주거나 때리지 않고 가족을 고무시키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웃 아저씨의 쉽게 노하는 성품의 결과가 그의 자녀의 어지러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로 나는 그가 세상에서 책임져야 할 일에 격노하는 일 외에 아무 것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유년시절의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자녀 학대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 사업가, 큰 병원의 응급 처치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대도시의 경찰관이나 판사라면 누구나 그들이 어떠한 자들임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관한 행위의 면은 때리는 것, 차는 것, 팽개치는 것, 또는 도색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이용하는 사악한 행위 등입니다.

나는 이런 추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또는 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그의 아들의 가르침을 더럽히지 않고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소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순수와 무죄함의 예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마 18 : 6)

세상에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인류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엄한 경고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의 정신이 커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방금 그의 면전에서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그 어머니의 미소를 좋아 하지만 그린 얼굴을 싫어합니다. 나는 여러 어머니에게 자녀로 하여금 악에 가담치 말게 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2판, 솔트레이크 시티 베저멧 출판사, 1926년, 323페이지)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르십시오. 그들의 기분과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대해 주십시오. 그들을 감정대로 야단치기 말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20페이지)

물론 가족과 함께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하고 잔인한 훈육은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비정만 갖게 합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치료하지 못하고 문제만 키울 뿐입니다. 그것은 자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는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가정을 통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

읍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성 121 : 41, 43-44)

여러분의 어린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 마음에 생활 양식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랜 친구의 자녀를 만나거나 부모의 방법에 의해 자란 다른 세대를 보는 것은 무척 흥미있는 일입니다.

고대 로마에 허영에 찬 여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보석을 보여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코넬리아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 가운데 하나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석은 어디에 있나요?” 이에 대해 코넬리아는 두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보석이랍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그녀의 생활이 보여 주는 덕을 본받아 자란 그들은 로마 역사상 가장 설득력 있고 유명한 사회 개혁운동가 중 두 사람인 가이우스 크라쿠스와 티베리우스 크라쿠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되는 한 그들을 기른 어머니의 생활 양식은 길이 기억될 것이며 찬양될 것입니다.

다시 브리감 영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자녀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거룩한 종교의 원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익혀 그들이 성장했을 때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잊지 않도록 자녀를 보살피고

기르도록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320페이지)

나는 자녀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길을 따르는 아들 딸을 보고 우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에게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니”(겔 18 : 20)

그러나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즉 사랑과 모범과 올바른 교훈을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들 우리의 어린 것들을 존경하는 일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합시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원리의 지식에 따라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순결한 생활을 하지 않고 교활한 마음과 악을 없애지 않으면 그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 : 3)

채닝 플라톤 한때 다음과 같은 흥미있고 자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못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늙어 가지만 더욱 젊어지고 깨끗해지며 더욱 순수하고 무죄하여 종래는 어린 아이처럼 깨끗한 영혼으로 영원한 잠을 잘 수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세상은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60년 6월 77페이지)

여러분의 어린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세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들은 고해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온갖 힘과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또한 더 높은 권능으로부터 오는 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들어올려야 하며 그들이 세상을 들어올리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지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간증과 지식으로부터 오는 설득력과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 주는 모범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직 어릴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늘 필요로 하는 힘의 원천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이가 하는 기도를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에 성신권의 권능으로 그의 손을 아들이나 딸의 머리에 얹고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로 즉각으로서 축복을 주는 앞에서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친절과 사랑의 모범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어려운 시기에 성신권의 권능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준다면, 그리고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의 생애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석으로 간주하고 지혜와 주의 교양으로 참된 사랑을 갖고 기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는 얼마나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고대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는 평강할 것이며”(사 54 : 13) 나는 그 말에 다음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 평강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러한 평강을 빌고 이 모든 진리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 부름에 대한 응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 앞에 나의 생애와 온갖 정성과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능력이나마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김 불 대관장님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자신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름에 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뇌의 명상, 지난 목요일 이후의 긴 낮과 밤의 시간을 나는 아무때도 함당치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구속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오직 그것 뿐이라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영혼의 일부인 사랑하는 아내의 진실하고 꾸준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고대와 현대 사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 교사 중 한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결코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분 색맹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선교사로, 군인으로, 총관리 역원으로 다닌 나라의 사람들을 인종과 피부에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킴벌 대관장님의 모범을 좇아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며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분들과 같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잇는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사도였던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의 별세를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 가운데 아무도 그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킴벌 대관장님,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 벤슨 회장님 그리고 십이사도 여러분께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프랭클린 디 리차드 회장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과 총관리 역원 여러분께 끊임없는 사랑과 감사를 포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예언자이신 킴벌 대관장님께 내 생애와 정성과 적은 능력이지만 모두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없이 바칠 것을 약속 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는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부름과 열쇠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바를 최선을 다해 행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

## 예언자와 하나가 됨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거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대관장단의 사랑과 신임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업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견이지만 감히 내가 복음에 관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거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건설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종속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인 회원들과 자유롭게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돌보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사업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나 자기를 기만하는 활동으로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꺼이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의 한사람으로서 위대한 동기를 위해 지지하며 건설적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평생 일하겠습니다.

나는 견고하고 두렵없이 굳게 서고 싶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내부에 있는 힘과 사랑을 발산하면서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로 열심히, 온화하고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또 그의 예언자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히 내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위대한 부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데디 이 브루어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애에서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상에 회복된 바 목적 그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나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온 저명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애에서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고 거듭 우리 가족이 누리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를 전 킴벌 대관장님을 만나 최근 3, 4년간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멀리서 그를 볼 때마다 그와 악수를 나눌 때마다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을 대표하여 지상에 계신 분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열의를 갖습니다. 나는 주님께, 교회 대관장단께,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묵숨과 재

산을 다바쳐 충실하게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최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의 하나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봉사에 대한 모범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여 킴벌 대관장님께서 강조하신 세상에서 박차를 가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에 관해 그분과 똑같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생각 즉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믿습니다.

나와 내내는 지난 한두 주일 동안 훌륭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근 20여년 동안 계획한 것이 급년 말에 결실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생애에 많은 교훈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축복에 합당하여 왕국 건설에 필요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선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실히 그의 영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벅차 있습니다. 나는 이 부름의 책임이 주는 것에 압도되어 있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킴블 대관장님을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이래로 내게 있어 모든 것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지지의 영향과 사랑이 늘 함께 하도록 주님의 영을 기원합니다.

내가 오늘 감사드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멘을 가르친 것처럼 나를 가르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다만 은유하여 마음 낮추기를 가르치리니...젊었을 때에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 37:34-35) 나는 그분들이 내게 끼쳐준 사랑과 큰 영향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인내와 이해로 나를 대해 주신 친척과 친구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생애동안 나를 풍요롭고 강건하게 해준 많은 훌륭한 친구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리조나 템페 선교부에서 우리가 관리하던 600명 이상의 선교사와 함께 체험한 선교 기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여성의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나를 도와 주었으며 사랑과 신앙이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여섯 자녀와 사위, 그리고 첫 번째 손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의로운 생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현재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화요일에 이태리 파도바로 떠나는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를 드리는 간증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이 사업은 그의 사업이요 스펜서 울리 킴블 대관장님은 지상에 계신 주님의 예언자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에게, 그리고 총관리 역원과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

## 영성의 척도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인격, 능력, 영적인 자원은 우리의 발전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영으로 단합되고 함께 향상되어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은화 일불이 있습니다. 그 한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로부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섰을 때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동전의 다른

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칭찬받을 일이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격” 진실한 신앙,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274페이지)

이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경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 3:25)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을만한 존재인가를 시험받도록 운명 지워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높은 축복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개인적인 희생에 관계없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때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도 하고 신뢰도 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사람을 측정하는 것은 그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돈을 벌릴 수 있으며 신용을 지키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신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영적인 면에도 직접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개인의 인격, 능력, 자본을 측정하듯이 주님께서도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인격, 능력, 영적인 힘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인격은 신뢰의 일부입니다. 빌리교자 하는 사람의 인격에 의문이 있다면 신용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돈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사에 그의 일을 옳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가정과 가족을 떠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신뢰받는 종이었지만 노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노력에 관해 알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존귀한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결에 대해 대가를 치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격에는 비극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니파이의 강건한 인격은 그를 계명에 순종케 했습니다. 그는 쉽게 약한 레이벤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눈뜨시리라는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요셉과 니파이를 신뢰하실 수 있었습니다.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해보고 그의 확증과 일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사람이 자신에게 충실해야 할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다. 그것은 양심에 거리키는 행동을 하는데 위로가 되거나 편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표준을 택하노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기를 빈다.”(“인격 형성”에서 인용 복음의 이상, 데이비드 오 맥케이,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354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마음의 인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어떤 사람은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험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심한 박해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

있으며” 요셉은 또한 자신의 인격의 힘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요셉 스미스 : 24-25)

요셉 스미스는 위대하고 고귀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고 어떤 희생물 치르더라도 믿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베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금이나 명예 또는 재물을 얻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체적인 용감성이나 지적인 힘이 되어서도 안되며 그의 목표, 가장 높은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맥케이, 진실한 신앙 32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쌓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주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쌓는 일입니다. 능력도 신뢰의 일부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바라는 능력이란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능력이란 우리가 그에게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 달란트를 돌려 주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마25 : 21)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읍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세 달란트를 돌려 주어 첫번째 종과 같은 칭찬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늘리지 않은 게으른 종은 주님의 저주를 받았읍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는 능력이 두배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는 또 종들에게 맡겨진 재능과 책임을 두배로 향상시키기를 바라십니다. 김블 대관장님께서도 모든 것이 두배로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는 선교사의 수도 두배,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회원도 두배, 성찬식 참석율 등도 두배가 될 것을 바라십니다. 나는 우리 각자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책임과 능력을 확대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종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인정하고 신뢰하십니다.

교회의 봉사 이외에도 우리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생계를 위한 노동에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 선교사로서 가장 귀중한 질문을 하고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독교인다운 이웃으로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신뢰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성취한 정도에 따라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물몬교의 활동적인 회원은 영적이며 물질적인 능력을 기릅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또한 신뢰의 일부입니다. 은행가는 고객이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뿐 아니라 투기 사업에 대한 고객의 서약의 내용도 고려합니다. 주화의 영적인 면에는 주님께서 인생의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의 왕국에 대한 개인적인 각오를 측정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본이란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생활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자본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까?

그 투자는 경전을 연구하고 예언자의 말씀을 읽을 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욱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사람을 위한 조건없는 사랑과 선교사업, 현명한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부름을 배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자본과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희생으로서 위대한 영적인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 질서가 있었고 예언자를 따르기 위해 그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뒤에 두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풍요로운 농장과 잘 지은 집을 버리고 매마른 사막으로 추운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영생과 구원에 필요한 힘과 신앙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신앙 강화, 앤 비 런던필,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레프트사 58페이지)

그리스도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강한 신앙의 힘을 기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2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에게는 간사함이 없나니 저의 마음이 고결함으로 신임할 만한 자요 나에 대한 간증을 사랑하므로 나 주가 저를 사랑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우는 이 교회의 머리로 영화롭게 승영한 분이며 이 지상에 있는 합법적이고도 권능을 지닌 주님의 대변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이 교회들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언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선교 사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븐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의 부름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나 가서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번잡함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았고 어두워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사지나 팔절도 피로하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교성 84:20)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족은 텍사스주에서 선교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대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페더스톤 자매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빨리 익혀 일이 잘 진척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분은 내게 몇 가지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선교부에서 도착한 지 3, 4주가 지났을 때에 배우게 된 것인데 나는 매일 잠시도 조용한 곳에 가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 나는 밖에 나가 나의 아라비아 말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그때면 나는 잠시나마 나의 세계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녀는 선교 지역에서 자신을 위해 잠시도

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 잠시나마 시간을 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녀는 마음 속에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 왔다고 했습니다. “내 딸아, 이것은 너의 시간이 아니요, 나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일하려 했습니다. 그 일의 표준은 우리 일의 표준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봉사한 주님의 사자가 겪은 “신앙”의 체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델 장로 부처는 주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겪은 영적인 체험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커티스 장로는 동반자를 바꿔 알로이 장로와 우리와 함께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가 끝난 뒤에 우리는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알로이 장로는 우리를 그들이 사는 아파트로 초청하여 선교사들이 사는 아파트가 어떤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앞문을 열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 가서는 잠시 후에 웃음을 띄고 나왔습니다.

‘장로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 왔나와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큰 탁자 위에는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커티스 장로는 알로이 장로와 그의 동반자가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족을 발견하여 그들이 자신의 모든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델 자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로나 콜 알더라는 미망인 자매 선교사는 주례 보고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경험을 통해 내 간증을 굳게 했습니다. 나는 언제 간증이 생겼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 위에서 풍요로운 많은 체험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많은 경험 가운데서도 지난 8개월 간은 내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

는 멕시코에서의 3번의 혁명을 체험했으며 이것들은 내게 큰 간증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그분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업은 내게 24 시간을 영적으로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내게 있어 삶을 정신적으로 고취시킨 것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들이 내게 그들이 없는 동안 물론경을 읽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제 남편은 큰 아들이 칠레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별세하였으며 나는 그때 참으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사업과 큰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알더 자매 드림”

몇 달 뒤에 우리 선교부에 훌륭한 부부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케더스톤 부장님, 부장님께서서는 며칠 후에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봉사하게 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두 분 맞이하실 거예요. 그들은 부장님 밑에 일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일하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 섭섭하지만 그곳에 가게 시는 동안 잘 보살펴 주세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부름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선교사로서의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을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급료 봉투를 받은 사람이 그의 급료 봉투에서 5불이 부족한 것을 알고 지불계에 가서 금주에는 5불이 부족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불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에 5불을 초과 지불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기에 이번 주에는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실수는 봐 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두번씩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노년부부와 미망인 선교사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녀나 혹은 손자들이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하고 기도를 드릴 때 오는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울 손재는 열 두 자녀를 길러 아들 모두를 선교사로 내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머니의 선교비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선교사와 그들 가족간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한 훌륭한 청년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일성도가 아닌 그의 사장은 그가 2년간 선교사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 일해 준다면 연봉 28,000불을 주겠네” 그래니스 장로는 지역 관리 선교사로 한 달 전에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른 한 장로는 내가 산 안토니오에 도착한 직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선교비용을 보내 주기 위해 시간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는 점심 시간이면 학교에 나가 일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올때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들에게 보내주는 선교비용은 매일 모자랐습니다. 한 훌륭한 친구는 내게 가끔 100불씩을 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선교사와 접견을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우울해지더니 무척 어려운데 집에서 충분히 보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전 결코 한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전 최근 며칠 간 식비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 거의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심지어는 나의 작은 여동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생일선물로 일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게 보냈습니다. 그 보다는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나는 셔츠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 2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친구가 장로님께 전하라고 준 것이오” 그는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다니엘 기포드 장로는 그가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총관리 직원 가까이에서 봉사하리라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부장이 고작 2,3개월 밖에 봉사하지 않는 텍사스 선교부의 부름을 받고 과연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선교사 훈련 센터에 있을 때 10월 일반 총회 마지막 모임에서 태너 부대관장님이 다음 연사는 텍사스주의 산 안토니오의 새로운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본 제이 케더스톤을 장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포드 장로가 선교부장 보조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교부에서 전속되어 온 한 선교사는 집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잠동이 그에게 선교사업을 마치고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접견을 하는 가운데 그는 그의 와드에서 나간 5명의 선교사가 선교사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해서는 안될 모범을 보여 다른 젊은이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선교사만큼은 그가 선교사업을 훌륭히 끝낼 때까지는 집에 보내지 않으리라는 작오를 했습니다. 13주 내지 15주 동안 매주 그는 자신이 선교사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온갖 이유를 다 적어 선교부장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매주 그에게 답장을 적어 보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주일이 지난 후에 나는 그에게서 다음과 같

은 편지를 받았읍니다. “부장님, 부장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무언가를 위해 심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굴복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 선교사는 결국 훌륭한 지역 책임자로 그의 임무를 마쳤읍니다. 그는 인정받고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교사였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선교사였읍니다. 그는 선교사업을 훌륭히 끝마치고 돌아와 아름다운 자매와 신전에서 결혼하여 신전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신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의 와드에서 장차 선교사로 나갈 형제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읍니다. 셰필드 장로는 열 한 번 이상이나 대수술을 받았으며 한 시간을 넘지 않는 간단한 수술들은 여러 차례나 받았읍니다. 그가 가장 바란 것은 수술을 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읍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 수술을 받았읍니다. 선교사로 나온 뒤로 그는 평균 일주일에 70~80 시간을 전도하였읍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읍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읍니다. 그의 동반자와 갖는 접견에서 셰필드 장로의 어깨는 종종 잘 빠진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그는 큰 고통을 겪었읍니다. 그것은 특히 밤에 더욱 심했읍니다. 나는 셰필드 장로와 접견을 하면서 그에게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는 나의 눈을 쳐다 보더니 보기 드문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부장님, 나는 이제까지 내 생애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읍니다. 그리고 선교사업을 마치고 돌아가면 몇 번의 대수술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만 한다면 어떤 고통

을 겪더라도 단 하루라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업으로 인해 얻는 축복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윌리암 키이츠 클라크 형제 부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이런 편지를 썼읍니다. “페더스톤 선교부장님, 우리는 부장님의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장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했던 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윌리암 키이츠 클라크는 81세입니다. 감독단 보좌로 감독으로 축복사로 31년간을 일했읍니다. 나 엘렌 클라크는 나이 76세입니다. 나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음악 지휘자로 교사로 모든 조직에서 봉사했읍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생애를 살아왔으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열 자녀는 모두 신전에서 결혼하여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읍니다. 손자가 56명, 증손이 26명이었읍니다. 이것이 남편에게는 네번째의 선교사업이며 나에게는 세번째의 선교사업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읍니다.” 모든 선교사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해 들어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에 응하는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머리털 한 오라기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교성 84 : 80)

우리는 모든 영혼을 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는지 모름



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스미스가 한 말과 같이 다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더러운 손도 이 사업의 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해와 폭도와 군대와 증상도 이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모든 나라와 국가에 알려질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릴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교회사 4 : 540)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선교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4대 조상까지 계보 사업을 행해야 하며 그런 다음 새로운 기록 초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파** 우스트 장로님, 나는 칠십인 제일정원회가 장로님의 새로운 부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표현에 있어 동의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위전 탁중한 책임을 장로님께서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새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은 세 분을 알려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두 형제와 두 자매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다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가 나의 할아버지라고만 한다면 나의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사촌들도 함께 “그는 우리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육촌 형제까지 그를 불러 우리 할아버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꽤 먼 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꽤 많은 사람이 그를 조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보 탐구의 노력이 이중으로 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한 노력이 이중으로 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계보 기록을 전문가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록을 비교 검토하더니 내가 갖고 간 기록의 95퍼센트가 이미 그들이 발굴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나머지 5퍼센트만이 내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34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무척 놀랐으며 계보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복된 내용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계보 협회는 내 요청에 따라 교회의 회원, 비회원을 막론하고 미국내에 몇 명의 가족을 예로 조사한 결과 80퍼센트가 중복되었음을 밝혀 있었습니다. 20퍼센트만이 유일한 것이 됩니다.

나는 다른 협회가 조사한 내용에서 고조부로부터 파생된 사촌, 육촌, 팔촌 형제가 적어도 348명이나 됨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계보 탐구에 있어서 그 중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킴블 대판장님께서 우리에게 4대 프로그램 즉 4대 조상까지만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함께 기록 조출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선 4대 프로그램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난 4월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계보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계보에 대한 책임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친형제 자매가 함께 4대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그들이 수집한 내용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나의 가족에는 자녀가 다섯입니다. 그 다섯 형제 자매가 “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불리웁니다. 그들은 나와 아내의 도움으로 4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곧 4대 용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섯 또는 일곱 장의 기록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합니다.

4대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선교사라고 할 때 우리는 다만 이 중요하고 거룩한 임무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사업을 마칠 때 우리는 선교사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교사업에 대한 관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봉사할 당시처럼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4대 프로그램 지명은 복음 선교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친 형제 자매” 가족으로서 가족 기록서를 제출하면 어떤 의미에서 계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보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 할 수 있는 만큼 선조의 계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 조출 프로그램의 이점과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와서 내게 전화를 걸고자 하면 전화 번호부에서 내번호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 번호부를 뒀을 때 전화가 가설된 순서대로 이름이 차례로 나열되

어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솔트레이크시티를 위한 전화 번호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한 다음 내 번호를 찾기 위해, 전화가 가설된 때를 찾기 위해 책을 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책을 정리하여 한편으로 만들고 알파벳 순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얼마나 번호를 찾기 쉬웠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보 조사를 위해서는 기록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까지 가서 목사나 신부 또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의구를 여행해야 하는 시간과 경비에 대한 교회 회원의 커다란 부담을 깨닫고 계보 분과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교회 회원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이 마이크로 필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록은 마치 전화가 가설된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연대적인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스테이크는 곧 마이크로 필름에서 이름을 뽑아내어 카드에 기록한 뒤 컴퓨터에 의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 조출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순으로 된 이 명단은 신전 사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래의 참고를 위해 전화 번호부처럼 정리될 것입니다.

마이크로 필름 해독기 앞에 앉아서 나는 이 과거의 기록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의 조상으로 이 기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빼어 냅니다. 이제부터는 수풀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같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한번에 정리되어 전화 번호부같은 식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계보를 생각해야 합니다만 과거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면 영원하신 아버지에게로 인도될 때 내가 기록에서 보는 모든 이름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력과 그토록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기울인 계보사업을 위한 모든 노력은 훌륭한 것이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체제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이 공헌한 바를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대평원을 횡단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손수레와 특히 그것을 끌고 온 손에 사랑과 존경의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행 방법을 결코 경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우리에게는 비행기로 심지어는 초음속 여객기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명령에 따라 과거의 기록을 찾고 우리가 조상에게 마음을 돌이키는데 추방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계적인 축복이 사람에게서 그 개성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탐구를 현대화할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는 견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위대한 축복을 지상에 살아 있을 때 들었던 분명히 알아들었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성한 의식을 위해 연간 약 백만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러한 비율로 한다면 10억을 가려내는데 천년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지상에 살았던 그의 자녀의 이름을 가려내는데 10억을 찾아내는데 천년씩이 걸리게 하시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기술적인 축복의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사랑을 전해 주는 이 기회를 고대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더욱 박차를 가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여러분이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조직하고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금년 4월 대회에서 킴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선교 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 역시 중요하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최근에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힐 수 있을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바입니다. 원하는 가족은 4대 이상 더 계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보 기록으로부터 이름을 찾아 내는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교회 회원은 각 지역의 단위 조직에서 신권 지도자의 감리하에 수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러한 이름을 찾아 내는 일에 두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3페이지)

이 말씀은 신전 의식 사업을 위한 계보 탐구 및 성명 제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친족회로서 개인으로서 또한 전체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과 변경되지 않은 것을 살펴봅시다.

우선 변경되지 않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리와 성약 128편에 있는 주님의 명령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또 말일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신전...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 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22, 24절)

2. 일기와 우리의 개인 역사와 조상의 특히 4대 가계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책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3. 살아 있는 모든 가족이 반드시 신전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책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4. 기억의 책을 만들고 최소한 4대 조상의 이름을 제출하여 그들을 위한 신전 의식을 행하는 책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5. 직계 가족 단위로 가족을 조직해야 하는 책임은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직계 가족의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조부모 가족이 조직됩니다. 이런 가족 조직을 통해 교회 내의 모든 가족은 선교 사업, 가족 예비 프로그램, 계보 및 신전 사업, 복음 전파,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책임들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변경된 것들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1. 4대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회원에 자신의 4대 가족 기록서 양식을 제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로 예전(현재 사용하는) 4대 프로그램은 종결 되었습니다. 1979년 7월부터 교회는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친

족회로부터 새로 마련된 가계도 및 가족 기록 양식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1979년 7월 사이에 교회 회원은 형제 자매 부모와 함께 그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가족 기록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하며 날짜를 확인하고 모든 가족을 대표하여 제출하도록 하나의 공식 기록을 작성하도록 가족회를 조직할 것을 권합니다. 가까운 부모(살아 계실 경우)로부터 모든 자손까지 필요에 따라 작성하고 확인하고 정정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십사리 친족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두번째로 중요한 변경 내용은 4대 프로그램 이상의 조사는 계속될 수 있으나 더 이상 교회 회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아닙니다. 대신 신전 사업을 위한 이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량의 기록을 수집하고 초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책임을 교회가 집니다.

말일성도의 경전과 계보 탐구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은 초출 프로그램이 교회의 기억의 책이 “받아 들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 전체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초출 프로그램은 원래 개인적인 신전 의식 사업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름을 식별하고 조사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전 운영을 위해 더욱 많은 이름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과거에는 친족회가 조상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일단 조상을 찾기 위해 웬만큼 노력을 들였으나 찾지 못할 때 그 친족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찾지 못한 조상은 초출 및 색인 프로그램에 맡기고 그 다음 단계의 조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는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후손들로 구성됩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를 구성하는 주 목적은 같은 조상에 대한 계보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가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로 사교, 문화 혹은 기타 다른 형태의 활동을 추구할 때 그들은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의 정통 영역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킴벌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변경 사항과 더불어 진행 중인 계보 사업이 완성되도록 점차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는 기금을 재결합하고 간청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의 또 하나 올바른 기능은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가 가족 역사 특히 4대의 조상에 관한 역사를 완성하도록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는 목록을 만들어 역사 기록, 사진, 편지, 원고, 일기, 신문 및 서적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듭 교회의 모든 가족이 직계 가족 및 가능한 한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는 다만 가족 역사를 포함한 계보 활동을 통합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기능을 다하면 조상 가족을 위한 친족회는 해체되거나 그 중요성을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로 좁히게 됩니다.

일단 교회 내의 가족이 예언자께서 권고한 대로 조직되고 교회 전체로서, 친족회로서, 조상을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나면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예언적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전에 들어가 축은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의식을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시온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전 안에서 기둥이 되어 밖에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기거할 것이요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어제 밤에 어떤 사람이 신전에 왔읍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형제이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록에 없는 우리 조상의 이름을 아주 많이 알려 주었으며 우리의 참된 혈통과 수백년 전 조상의 이름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한 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상의 이름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칭찬과 확인을 받고 그들을 구하며 당신을 위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영원한 신전의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의 주민을 위해 행하려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많이 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아주 힘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설교집 6 : 295)

내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 나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행한 것처럼 나의 가족, 에즈라 태프트 벤슨 친족회를 조부모 가족을 위한 친족회로서 조직했습니다. 나의 자녀와 결혼한 손자들은 그 조직의 일부로서 개인적으로는 직계 가족을 위한 친족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가계도를 확인 정리하고 있으며 1976년에 가족 단위로 교회에 제출할 가족 기록 양식을 작성중입니다.

나는 또 나의 직계 가족에게 가족 역사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간단히 요약한 개인 역사를 준비하여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범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나의 가계와 아내의 가계에서 4대프로그램의 도표에 나타나는 조상들의 자세한 역사는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5대요 손자에게는 6대가 되며 증손자에게는 7대가 됩니다.

이 역사를 작성함에 있어 우리는 평상시의 문체로 쓰려고 애썼으며 일반적인 형식을 따랐읍니다. 그것들은 계보 용지만한 크기의 종이에 타자하여 가족 기억의 책에 첨부하기 편리하게 했습니다. 내용을 짧게 간추리기

위해 계보 용지 크기로 10페이지가 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옅셀 인쇄로 찍어 사용하거나 읽는 데 유용하도록 질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 조상들의 역사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족회 회원들이 직계 가족 단위로 갖는 가정의 밤 시간에 이 역사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조상에 대한 감사, 사랑, 존경을 가르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은 직계 및 조부모 가족을 조직하고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 가서 의식에 참여하여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갈 때 부모 형제 자매가 일어서서 우리의 게으름을 탓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신전) 의식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성들여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월포드 우드럼, 설교집, 13 : 327) \*

에언자 요셉 스미스가 선포한 것처럼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 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속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또 말일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신전...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 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교성 128 : 22, 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신권회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딘 엘 라슨 장로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선교 사업의 기쁨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의 모든 아들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데 있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바라며”

오늘 저녁 이 성스러운 태버내클을 가득 채운 신권 소유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교회의 관리 감독 그러니까 아론 신권 회장으로 14년을 봉사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아론 신권 형제를 볼 때 감격스런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전체를 통하여 교회 회원들이 킴벌 대관장님과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선교 사업에 대하여 훌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그분께서는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직 집사 신권을 받기도 전에, 내가 자란 작은 고을에서 갖는 와드 모임에 참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모임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남부 제주에서 그들이 행한 선교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전대나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였으며 환대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날을 노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내게 말해 주셨음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끝난 뒤 나

는 만일 내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만 한다면 어느 선교 지역이라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나의 작은 침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가 성장하여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면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열차가 이곳 솔트레이크역을 떠나 네덜란드의 조그만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당시 대관장단의 보좌로 계시던 안톤 에이치 런던 부대관장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심에 부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내가 거의 3년을 보낸 네덜란드의 조그만 땅을 떠나기 전에 런던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 입교시킨 개종자와 회원을 찾아다니면서 각별의 인사를 나눌 때 선교사로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각별의 인사를 나눌 때 흘린 것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예로 암스텔담에서 내가 그 집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집에 들렀을 때 몸집이 작은 어머니가 뺨에 눈물이 가득한 체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 몇달 전에 내 딸이 시온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견디기 어려운 섭섭함을 느꼈습니다만 형제님께서 떠나는 것은 더욱 견디기가 어렵군요.” 나는 그 집에 찾아가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나는 런던 부대관장님께서,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



다.

나는 베델란드식의 작은 수업을 기른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더니 꼭 붙잡고 손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손을 적셨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런던 부대관장님께서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개종자가 자기 선교사에 대하여 품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한 나라에서 온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복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들 부부에게 가서 십일조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썼습니다. 후에 감독은 또 그들을 찾아가 금식 헌물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금식 헌물을 바쳤습니다. 감독은 또 그들을 찾아가 와드 집회소를 짓는 것을 돕게 헌금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십일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독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건축 기금을 썼습니다.

감독은 그 아버지를 찾아가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 외아들입니다. 그 애 어머니가 허전해 할 겁니다. 보낼 수가 없군요.” 감독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X×형제님, 가족이나 친척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감독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X×형제님, 다른 사람들이 형제님의 아들을 것처럼 사랑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감독님, 제가 또 졌습니다. 선교사로 내 보내십시오. 그 애의 선교 비용을 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람이 노르웨이에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친 그 청년을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한 선교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개종한 사람으로서 주역을 단 위에 올려 놓고 내려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밤 나는 내가 가졌던 선교사의 체면을 백만불을 주고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베델란드 땅에서의 나의 첫 선교 사업을 백만불과 바꾸겠는가?” 나는 내가 교회로 데려온 가족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백만불에 그들을 교회 밖으로 팔아버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준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우리 아파트의 작은 서재에 앉아 추억에 잠겨 내가 도구가 되어 교회로 인도한 열 가정을 헤아려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볼 만큼 내가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몇년 전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인디언을 위한 향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말씀을 할 때 그 가운데 한 가족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그 가족의 직계 후손만 153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5명이 복음 선교사를 끝냈고 4명이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2년씩 준다면 그들로 인하여 개종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개종시킨 수를 빼고도 한 가족이 70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두 인디언 자녀를 키웠는데 그중의 한 명은 그 집에서 8년이나 보살피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선교사로 나가 있었으며 그 가족은 그의 선교 비용을 대고 있었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내가 그 가족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

리는 70년 앞을 내다 보지도 못했고 그들로 인하여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 교회로 인도한 다른 한 가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자세한 내용을 말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교회에 나오는 직계 자손이 150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다섯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루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루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 : 19-21)

여러분은 내가 네덜란드인 가운데서 보낸 그러한 시간, 즉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둔 젊은 시기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들을 내 가족만큼이나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는 때가 올 때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들과 함께 아주 많이 일했습니다. 4 선교부에 있었으며 2개의 선교부를 관리했고 많은 선교부로 여행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간증을 듣는 일은 참으로 흐뭇하고 기꺼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손에 있는 한 젊은이는 간증회에서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수를 주는 회사에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 몇 년간 집을 떠나 있었고 그 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나는 바로 지난주에 아이다호에 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아 그중 몇 줄을 복사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교 사업보다 더 위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은 내가 살아온 27년 중에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헌납했습니다. 나의 가슴은 지금 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성공을 맛보는 것만큼 훌륭한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귀향하는 길에 잠시 나를 찾아온 젊은 선교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가족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집을 떠난지 3년이 될 때까지 다른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귀환이 보류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자네는 선교사로 나가 봉사한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나? 그 동안 교육을 마치고 생활의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총관리 역원들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아침에 나를 비행기에 태워 아르헨티나로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돈으로는 젊은이의 마음에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감정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그런 신앙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선교 사업의 결과 나는 자녀를 길러 그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사로 안 보내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내보내는 확실한 방법은 지금부터 그들을 위한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보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선교 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내가 캘리포니아의 어떤 와드를 방문했을 때 감독은 각 소년들이 집사 신권을 받을 때 선교사 기금에서 15불을 내어 저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협조를 구하고 집전 때마다 예를 들어 교사 신권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선교사 기금을 확인합니다. 나는 백분율에 의하여 교회의 모든 와드에 그 와드처럼 많은 수의 선교사가 있다면 55,500명의 선교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선교사로 갔다 오지 않은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선교사 기금을 갖도록 하여 어려서부터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데 있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신앙과 용기와 선택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의 과제에 당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과제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른 신권 청소년에게 신앙과 용기와 선택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물문경을 읽었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침례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좀 특별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생애에서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겪었으며 그때마다 커다란 용기와 지혜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색다른 종류의 과제였습니다.

그가 직면한 이 가장 새롭고도 중요한 결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문에 대하여 비판적입니까?” 그리고는 선교사와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친구, 가족, 회사 동료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된다면 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적대 감정을 견디며 생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물문이 되지 않고 그냥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이 젊은이가 가족이나 친구가 좋지 않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두려워 침례를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거기 따르는 결과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자유이지만 그 결정의 결과까지 결정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신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행동에 탐닉하느라고 말일성도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롭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선한 것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서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바대로 기꺼이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더라도 사생활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믿음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충성스런 말일성도가 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험은 가혹합니다. 특별히 아픈 신권 소유자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에 충실한 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영웅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에 대하여 용기를 갖는 것은 그만한 보상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온 열 세 살 난 아민 슈코브 이세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흥미있는 경험을 뉴이타 잡지사에 글로 써 보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예수님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상을 떠나 오늘날까지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으며 예수님이 삼 일 만에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도 곧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방금 선생님께서 말한 내용이 진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그의 말씀을 고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이 다만 견해 차이일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나 성경에서 이 사실을 읽을 수 있으며 거기에 아주 분명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누구도 성경을 읽고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선생님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자신의 내부에서 정말로 좋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구세주는 살아 계십니다,” 뉴이타, 1977년 12월호, 18페이지)

우리는 아민이 자신이 믿는 바를 당당히 외치도록 결정한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행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생에서 당면해야 하는 문제가 순전히 개별적인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장애나 이와 비슷한 제한 등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도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만족과 성취를 우리 생활에 가져오도록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도의 빛에서 스티븐 파렌스라는 어린이가 네 살이 되었을 때 근육에 어떤 불치의 질환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12살까지밖에 못산다고 했습니다. 스티븐은 인생을 포기한 낙담한 병자가 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활동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열의와 낙관으로 가득찬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함을 보상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6년이나 더 살았으며 마지막 몇 년은 도움이 없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열성과 창의력과 유우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생산적인 것이 되게 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고무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지 않은 청소년이 있다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76년 11월호, 펜 호튼, “스티븐” 참조)

몇 년 전에 나는 좀 특이한 시이즌 동안 고등학교 농구팀 코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이즌 초에는 여러번씩이나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농구 팬과 마을 사람들은 우리 팀의

패배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됐으며 우리 팀 선수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결국 선수 몇 명은 실망하여 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선수들은 자신과 코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더욱 열심히 훈련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중반 시즌에서부터 우리 팀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토너먼트에 진출할 자격을 얻었으며 우승팀을 뽑는 결승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것은 이 팀이 계속 이겨서 그 주의 우승팀이 된 것인데 이는 그 고등학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나 경축 행사가 있고 트로피를 받은 후에 나는 선수 몇 사람을 차에 태워 우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우리는 각자 이 시즌 동안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이 엄청난 결과를 생각하느라고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학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의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 선생님, 오늘 저녁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가 어째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기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렀으니까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대가를 치렀으며 그들이 그 중요한 1년을 통하여 배운 교훈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귀중한 것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의 과제에 당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과제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려는 용기와 신앙을 가질 때 지상에 온 목적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젊은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결정을 얼마부릴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며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신뢰와 신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각자에게 선택할 문제가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른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 여러분을 아주 크게 신뢰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행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변할 것이며 그의 왕국의 성공과 더불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와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너희 빛을 비취게 하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침신인 제일 정영회

세상의 현상태에서 “모든 신권 소유자는 구세주에 대하여 간증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있는 잊을 수 없는 기쁜 추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작년에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있었던 선교부 대회에 참석한 일입니다. 교회 대관장께서 그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1936년으로서 그 동안 40년이 넘도록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선교부 대회에 참석하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까.

1200이 넘는 성도와 구도자가 사방에서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나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 되어서는 입추의 여지도 없는 대만원이었습니다. 입장하지 못한 어떤 형제는 무거운 사다리를 갖고 와서 창에 기대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김볼 대관장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곧 그 미소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두 시간의 긴 모임 동안 4미터가 넘는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 불안한 자세로 기대어 있었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청중과 사다리 위에 있는 형제를 고무하고 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매도 축복했습니다. 마가레트 헬만 자매는 어려서부터 엉덩이에 있는 지병으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족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기 위해 한 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느끼는 고통을 덜기 위해 몇몇 성도들이 모음을 하여 휠체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왼쪽 신경이 마비 되어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

는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예언자가 드레스덴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한 가지 큰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회에 참석하여 예언자를 만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신앙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가복음에 있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어떤 여인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터라” 이에 그 여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막 5 : 25-34 참조)

헬만 자매는 손자인 프랑크에게 아침 일찍 예언자가 지나가는 곳 가까이에 휠체어를 밀어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언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다정하게 나의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간증입니다.”

역사적인 그날 폐회 기도가 끝난 뒤 우리가 회중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아름다운 찬송가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능력에 관한 위대한 간증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완전한 사다리 위에서라도 기꺼이 건널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 각자가 휠체어에 탄 자매처럼 강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주님을 섬기고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또한 오늘날에도 말일의 계시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가르

침을 우리 생각과 행동의 일부로 만들 때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깨끗한 생각과 아름다운 말씨와 보기 좋은 외모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들 통해 또한 오늘날의 유희에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하고 확고하게 개입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 이외에도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회의 특신 성인에게 용기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도록 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아내와 딸이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고 있음을 나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부인과 딸이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한 법률 사무관이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20년 이상 상호부조회 회원인 사람의 자녀로서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를 받으려 온 아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부인, 아들과 딸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는 빛이라”(마 5:14)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러한 빛으로 생활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 때 그 지식으로 인해 큰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삶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은 각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만을 위해 비취고 있는 등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고 의견이 갈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라면 이 원리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나온 타임지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논쟁”입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스스로 의친 적도 없고 초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일곱 명의 대학 신학자가 예수는 결코 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한 성직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는 그의 아들로 불리도록 의친 적은 결코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지는 요약해서 “새로운 그리스도론의 견지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종래처럼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왜곡되고 타협적인 견해는 “누룩과 같”(마 13:33) 모범을 보이는 교회의 기둥인 형제 자매에게는 전쟁의 신호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의 거짓됨을 더욱 노력하여 증거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회복된 교회와 교회 회원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다음 말씀과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이미 죽어간 수많은 사람과 지금 살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인류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자, 인간 영혼의 영원하신 심판관이시며, 아버지로부터 택함받고 성임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엄숙히 간증하고 있다.”(예수 그리스도 1페이지)

우리 교회는 그 입장을 타협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함에 있어 결코 주저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상태에 대처하여 모든 신권 소유자는 구세주에 대하여 간증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며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영속되도록 자신의 빛을 친구와 타인에게 비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가 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구세주에 대한 절대적으로 확고하고 엄숙한 나의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나의 말을 복음의 잔디 위에 심어 주셨나니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섬기리라.

그는 진리와 빛의 근원이시라.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인간의 자녀를 다스리기 위해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위대한 날 그와 함께 서리라.

(“예수에 대한 간증”, 웬사인 1972년 7월호, 109페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킴블 대관장님께서 참으

로 주님의 위대한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감에 찬 그의 말씀과 모범은 확고한 간증을 전해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끝없는 사랑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위대한 지도력을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그리스도의 제자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 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몇 가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임이 신권회인 까닭에 나는 우리 모두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나는 교리와 성약 4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코자 합니다.

“무릇 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받아 들였노라 하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너희 가운데서 쫓아 낼지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의 부름과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



나눔인 줄 알리라.”(교성 93: 1)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값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니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로 오라. 내게 와서 값이나 상없이 젖과 꿀을 사라”(나이 26: 25)

그러나 값을 매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때에는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행동의 대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또 그를 따르겠노라고 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 하니라.”(누가복음 9: 57-62)

예수께서는 입술로만 섬기는 자를 찾거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노력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적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 25-27, 33)

좀 지나친 것 같은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가족을 증오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특별한 조건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개인의 임무”나 세상적인 요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57페이지)

대가를 계산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 예수께서는 심지어 세상적인 일에 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찢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앗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누가복음 14: 28-30)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때 강조하신 것과 똑같이 온전히 헌신하여 봉사하고 계명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831년 즉 교회가 조직된지 1년이 지났을 때 미주우리주 객순교에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들이 “약속된 땅이요, 시온의 도시를 세울 장소”(교성 58: 2)에 모여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시온의 축복을 고대하던 성도의 갈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온의 건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셨음

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에 관한 나의 뜻과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에 관한 나의 뜻을 내게서 배워 알지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란 중에서도 충실한 자는 저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리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준 이 사실을 기억하여 명심하고 다음에 올 것을 받도록 할지어다.”(요리와 성약 58 : 1-2, 4-5)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약속된 시온의 영광스런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고 있는 땅 미주우리주 객순군 즉 시온 땅에서는 율법 즉 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미주우리주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는 분명한 지시였으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지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언자가 미주우리를 떠나 커틀랜드로 가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온전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은 복이 있다.

“산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죽은 자는 자기의 모든 수고를 떠나 안식을 얻을 것임이니...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또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요리와 성약 59 : 1-5)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시온 땅에서 변역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법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요리와 성약 59 : 6-9)

이런 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처음 미주우리주 객순군, 시온의 중앙 스테이크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말씀하신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요성 59 : 23)

지금도 미주우리주 객순군에 있던 성도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시에 시온을 세우는데 필요한 헌신과 각오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834년 2월 24일 그들이 “원수의 손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환란을” 겪은 후(요성 103 : 2)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그 땅에서 쫓아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같이 내가 준 교훈과 계명

을 듣지 아니함으로 잠시 동안혹심하고 무서운 징계로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3 : 4)

그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저들은 내가 이미 명령하였으니, 이 시각부터 나의 원수를 이기기 시작하리라.

“저들이 나 주 저희 하나님께의 말씀을 모두 지키려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치지 않고 이기리니, 드디어는 세상의 왕국은 나의 발 아래 정복되고 또 땅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03 : 6-7)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시온을 세우실 때까지 번영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세상에 만연하는 방탕과 죄악에 대항하여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여 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을 것임이라.”(교성 103-27)

다음 구절은 나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교성 103 : 28)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권에 속하는 맹세와 성약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모두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성신권(교성 84 : 6)과 소신권(교성 84 : 30)에 관한 계시로서 신권 소유자의 맹세와 성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 : 33-41)

나는 우리 각자가 그 성약에 따르는 의무를 기억하여 이행하고 다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를 바라고 또 기원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 : 1)

형제 여러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며 그분을 알고자 더욱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예수께서 살아 계심을 알며 그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이 말일의 경문을 펼쳤음을 압니다. 거룩한 숲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께서 예언자에게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다는 사실은 내게 있어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천사가 예언자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신권을 회복해 주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 지상에 다시 회복하셨음을 알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의 교회임을 압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에 유일한 이름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머지 않아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지상 생활에 대해 보고할 때에라도 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잘 알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전해 드리면서 나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따라 완전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교회 접견의 축복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의 근본 목적은 영혼을 구하고 회원에게 지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형** 제 여러분,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 있는 테버나클에 이토록 많은 신권 소유자가 운집해 있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이라 할 수 있으며 거의 1500개에 이르는 궤책 회로 방송을 통하여 온 세계에 울

려져 있는 많은 건물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이 모임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 때 참으로 용기백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교회의 대관장과 다른 연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권이 자신이 소유한 신권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신권 소유자가 모두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리와 의의 대업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일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는 그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 신권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칠편 요한이 몸소 나타나 요셉과 올리버에게 부여하였으며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벨기세백 신권을 요셉과 올리버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신권의 권능과 권위 그리고 이 두 신권에 속한 여러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론 신권 소유자는 성찬을 축복하고 회원에게 전달하며 감독이 지명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칠편을 줄 수 있으며 이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 신권을 아무 생각없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책임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지도자 킴벌 대관장께서 건강과 힘의 축복을 받고 지식과 이해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인도하기에 필요한 영감과 계시를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총관리 직원 모두가 자기의 부끄심을 영화롭게 하여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모든 신권 소유자와 전세계의 모든 회원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영향을 미치도록 생활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복음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전체적인 목적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이웃을 준비시켜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나 자신의 가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때 아버지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접견할 때 그가 아버지로서 접견을 하는 것인지 감독으로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몰랐으나 접견을 할 때면 신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신권에 합당하도록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감독이 가족을 빼

고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감독이 성약을 지키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준비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는 가정에 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보조 조직, 성찬식, 신권 정원회 등은 모두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혜의 말씀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의 중요성과 십일조를 내는 일과 모임에 참석하는 일, 정직, 존경, 거래에 있어서의 정직, 신용을 지키며, 마약, 육설, 음담, 동성애 및 기타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 등을 삼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악과 부도덕은 주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이며 신권 승진, 신전에 가는 일, 선교사로 나가는 일 등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교회의 회원이라면 주님의 사업을 저지시키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신권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있던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던 늘 가장 좋은 행동과 생각을 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생활하고 모범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책임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하며 강화하는 일입니다.

젊은이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생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함에 있어서 감독은 소년이

나 성인에 대하여 그들의 가족 이외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는 접견을 통해 그 회원이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고 선교사로 또는 신전에 가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활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관찰하고 세밀한 접견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합당할 때까지 신전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 알아보고 결정합니다.

얼마 전에 신전에 가기에 합당치 않은 젊은 남녀 한 쌍이 신전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관장을 찾아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합당치 않은 상태로 선교사로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 불쾌한 일입니다. 합당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합당치 않다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에는 커다란 악과 유혹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유혹에 약간 빠지거나 그와 손을 잡아 보려고 하기보다는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악에 대처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접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주요 목적과 임무와 책임이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접견시에 피접견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그들의 복지와 인생에 있어서 돕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합당성에 관한 접견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접견을 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늘 개별적이고 은밀한 가운데 주의깊고 세심한 접견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와 선교사 접견을 할 때 주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절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 도덕, 정직, 신뢰, 십일조, 순종, 헌신 등에 관해 선교사에게 바라시는 바를 설명하게 하십시오.

접견을 할 때는 젊은이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여 접견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곧 주님께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대표자로 원하게 계신가? 나는 모든 면에서 충실한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결코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즉 죄를 깨끗케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는 부적당한 상태로 선교사로 나가기보다는 얼마간 연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는 회개하여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범법을 했을 경우에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의 철저한 접견을 통해 그가 완전히 회개하였으며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연후에 총관리 직원에게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스테이크 부장이 총관리 직원과 함께 그가 선교사 접견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할 때까지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젊은이가 있으면 그는 접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의 친구인 감독을 찾아가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젊은이가 그의 삶을 깨끗케

하고 새로 시작하여 주님의 대표자로 깨끗하고 합당하게 될 때야말로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접견은 신증과 공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다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은 신전 추천 접견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신전 추천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접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견을 마칠 때 내가 서명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서명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천이 정당한 것이기 이전에 당신 스스로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추천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실 때 당신은 그러한 추천을 받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권에 자신이 합당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꼭 여쭙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몇 년 전에 그의 와드에서 역원으로 있을 때 신전 추천을 받기 위해 감독을 찾아 갔습니다.

감독은 몹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서명만 받겠습니다.”

이 회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께서서는 그 질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 역시 그에 대한 대답할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감독님과 주님께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님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회원에게 접견시에 묻는 질문에 대답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잘못을 발견했을 때 회원은 신권 부여, 선교사, 신전 추천 등

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피접견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집에 가는 사람은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불순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부터 깨끗하고 자유로와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들이 끄는 우리는 여러분이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모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그럽게 보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권장되어서도 안될 악행이 많습니다. 때때로 결혼한 부부간에도 그들의 사랑의 방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부자연스러운 것”과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한 정의를 묻는 편지를 받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생활이 불순결할 때 신권 승진이나 신권 추천에 서명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추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합당성을 가리는 접견을 할 때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과 접견을 하고 있는 신권 역원에게 자신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위를 멀리 버려야 합니다.

합당성을 알아보는 접견을 행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대로 접견을 실시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접견 때는 정숙치 못한 것이나 퇴폐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접견은 결코 어떤 면에서도 상스럽거나 공격적이거나 추잡스런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때때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접견을 할 때 특히 결혼한 회원과의 접견시에 경솔하거나 상스럽다는 보고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니다.

신권 지도자가 추하고, 이상스러우며, 동물같은 행위를 자세하게 나열한 뒤 회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 내려는 것은 적당치 못한 일입니다.

한번은 총관리 직원 한 분이 어느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한 선교사를 접견하면서 그의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총관리 직원은, 이 젊은이가 저지른 친박하고 추한 행위를 알아내고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총관리 직원은 그 청년이 “감독님에게서요.”라고 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와 예비 선교사 접견 때 감독은 그에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합당치 않고 저열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저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결코 그러한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각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방법으로 기회를 포착하여 유혹하였으며 그는 타락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접견은 사랑과 정숙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따금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때 잘못된 것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신전 추천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데 주님께 부정직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명을 하기 전에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결코 우롱당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거나 추천을 받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 결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견을 시도하면 회원은 스스로를 판단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분별력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추천서를 받

급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권 직원으로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때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이 오래 전에 범한 잘못을 고백해 오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회원은 오래 전에 고백을 했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재판을 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독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그 개인이 오래 전에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영감과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함에 영감과 인도가 주어짐은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형제 여러분,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사랑과 신중한 마음으로 접견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감을 받아 교회 회원을 도와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신권을 받으며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즉 이 젊은이들을 사랑과 이해와 관심으로 도와 줌으로써 충실한 자가 받을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것을 행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거들 말씀드립니다만 영혼을 구하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상에 사는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우리의 근본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분별력과 영감과 계시의 축복이 있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명상과 삶을 위한 근본 원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여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며 덕망있는 생활을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예언자의 말씀

오늘 저녁 이처럼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온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최근 수많은 교회의 자매들이 교회 여성을 위한 특별 모임을 위해 세계 여러 곳에 모였던 일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누이 또는 어머니와 딸들에게서 이 모임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임을 가능케 해준 기술의 발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성을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그 큰 행사에 이어 나는 아들로서, 오빠로서 혹은 아버지나 남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자매와 함께 봉사할 때 여러분은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딤후 5:1-2)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신권 소유자가 그렇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누이에게 하듯 “일체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한 바울의 말씀은 대

단히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흔히 무시하거나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동과 그 관계를 세상 사람과는 달리 정립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내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벧전 3:7참조) 그것은 내게 있어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 자매와 딸에게 더욱 예절있게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딤후 5:8)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돌보라는 말을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인, 즉 사랑으로 지켜 주는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성 83:2)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이 식량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염려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은 식량만이 아니라 우정과 사랑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 말일성도 여성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 주고 염려해 주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궁핍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부엌은 음식으로 가득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자매는 애정과 인정의 결핍으로 굶어 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집안 내의 자매들이 우리를 돕고 있듯이 우리도 그들의 교회 부름을 지지하고 도와 줍시다.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들이 일을 잘 해 낸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 안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족 각자에 대한 칭찬과 감사로 가득차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를 소홀히 할 정도로 신권 소유자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세기 1:20, 29-31)

지난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나는 아리조나에서 자랄 적에 알았던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하는 노래 가사를 읽어 드렸습니다. 나는 내 포태의 아이들이 새총으로 많은 새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 협회와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와 숲 속에서

온 여름 동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를 죽이지 말아라”

(데저렛 노래, 1909년 163장)

그때 나는 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무언가 이것 이상의 것을 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 어디에나 아름다운 것들과 예쁜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이러한 새들과 야생 동물의 보호자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스미스 대관장께서 와사취 산 근처

에 있는 동안 언덕과 숲에 있는 동물들과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4절의 시를 쓰고 그 뒤에는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그는 다람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높은 산에 사는

작은 다람쥐

우리에게 옥수수를 달라 하곤

안녕하며 가버리네

다음은 박쥐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에만 날아 다니는

작은 박쥐

벌레와 모기를 잡아 먹지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동물이야

다음은 사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두막에 찾아 오는

작은 사슴

우리가 주는 소금을 활아 먹고

산을 돌아다니네

다음은 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새는 하루 중일

우리를 위해 노래하네

추운 겨울이 오면

멀리 가버리네

나는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표현한 동정에 의해 감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와 인류에게 해로운 새라 하더라도 무척한 새를 죽이는 것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짓일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원리는 조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주셨다는 성구를 읽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짐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쳤다고 믿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옐로우 스트운 국립 공원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호수와 강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노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 새들은 마치 훈련받은 새들처럼 사람이 곁에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가에서 가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슴의 떼를 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에는 어떤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즉 아무도 해하고 괴롭히는 이 없는, 특히 시온의 주민 가운데 있을 평화와 기쁨인 것 같았습니다.

이 새들이 사람이 거하는 다른 곳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쉽게 붙잡힐 것입니다. 또한 사슴과 영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 공원을 벗어난다면 분명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동물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새를 사냥하고 죽이는 것을 스포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스포츠를 끝낸 뒤 얼마나 많이 무죄한 새를 죽였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법적으로 사냥이 허락되는 시기에는 수십, 수백 마리를 사냥하여 죽입니다. 그때면 여러분은 이른 아침부터 마치 전쟁터에서 집전을 벌이기라도 한 듯 무죄한 새들이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총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사람이 식량으로 사용할 경우가 아니면 동물이나 새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작은 새는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피에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저명한 사람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에 몹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일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나는 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복음

교리, 5판,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39년, 265—266페이지)

어느 시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

모든 생명은 생존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느니라.

나는 거기에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식량과 인간에게 필요한 경우 이외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개척자가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녀와 가족을 먹이기 위해 들소를 사냥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들소의 혀와 가죽만을 얻기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고 식량이 되는 고기를 버리면서까지 사냥을 하는 사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에 답례하는 킴블 대관장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질문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엠바라스강을 건너 서쪽으로 약 1마일 가량 떨어진 작은 개천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려 할 때 형제들은 세 마리의 방울뱀을 발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시오. 하나님의 종까지 뱀에 대해 적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뱀이 그 적의를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동물에 대한 적의를 버리고 살의를 버릴 때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잤다는 어린이는 독사의 굴에서 놀 것입니다.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막대기로 뱀을 잡아다 개울 건너에 갖다 버렸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 뱀, 새는 물론 식량으로 삼기 전에는 동물들을 죽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교회사 2:71-2)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 드리는 것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제목은 “청결”이라는 것인데 다른 총관리 역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담패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즐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듣는 이가 웃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만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음담패설이 혀를 통해 이야기될 때  
영혼 속에 잔적된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무지를 의치며

진정한 농을 좋아하는 고상한 소년들의  
경멸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은 마음을 내 보일 때  
자신을 옳게 내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와 친구에게 부정직하게 대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어를 조심하고  
더욱 세련되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임 처음에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께서 언급한 선교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선교사의 수는 26,606명이며 매주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고 비자를 낼 수가 없으며 여권 발급을 받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감람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이들 국가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지역 대표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며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국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는 매일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지도자와 접촉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가정에서 월요일 저녁에 어김없이 가정의 밤을 갖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업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부모와 자녀가 차례로 이들 국가가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교회의 젊은 남녀가 선교사로 나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열의를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에는 9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어제 약 50명의 중국인이 나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교회 사무실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대표 모임을 갖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주님의 영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회에 참석했던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에서, 가족 기도에서 또는 공식상에서의 기도에서 이것을 주님께 간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물론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에 크게 감사를 드릴 것인지를 아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모든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일을 꼭 간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나의 큰 관심사요, 기원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드린 모든 형제님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간증의 말씀과 그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1978년 10월 1일 일요일  
아침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칼로스 이 애시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마크 이 피터슨 장로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하나님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시작할 때 합창단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찬송가, 139장)을 매우 아름답게 불렀으며, 기도 드리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합창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찬송인 “위대한 계획 이루시려”(찬송가 144장)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동안 주님의 영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결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평범한 말입니다. (창 1:1)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신앙의 기초와 인간이 이 현세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우리는 이 지구의 위대한 창조, 즉 빛과 어둠이 나누어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짐, 풀과 새 맺는 채소와 열매가 나옴,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남, 물고기와 새와 가축의 창조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 1:1-27)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성구와 다른 성구를 읽는 방법 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이심을 확실히 잘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의 개성과 특성과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그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가게끔 인도해 주는 신앙을 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원리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유럽인이 이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탐험을 시작했을 때 인디언들이 유럽인을 만난 것을 소개한 이야기에 위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화약의 위력에 놀라서 어떻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야만인의 무지를 이용하고 기반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음을 안 유럽인들은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심어서 화약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것을 믿고 화약 씨앗을 황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화약 씨앗을 잘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약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은 거짓을 진실로 변경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그를 모르고 그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믿는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걷기도 하시

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범법 후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그들은 그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개인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니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며 그 동안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에게까지 8대에 걸쳐 그의 후손에게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창 5:5-31 참조)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직접 구전에 의하여 홍수 이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더우기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고 오래 살아 그의 10대 후손에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창 6:9 참조) 그 다음의 후손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혹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창 17:1; 출 3:15 참조)

그는 하나님의 “형상”(민 12:8 참조)을 본 모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하십시오 써 자신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교통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역사와 전설의 근거 이외에도 인간은 이성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위의 자연으로 입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학자인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연 관찰자들은 창조의 질서와 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밤과 낮이 질서있게 되풀이 되어 인간과 동물과 식물에게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반복되는 주기를 마련해 주고 있고, 계절이 질서있게 바뀌며 동물과 식물이 상호 의존하고, 바다의 물은 증발하

여 구름이 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해백을 준다. 인간은 사물을 좀더 깊이 관찰해 나감에 따라 연구하고 탐구해 본다면 이보다 수십배 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이 지구와 이것에 관계되는 세계가 케도상에서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이 케도에 따라 위성이 유성 주위를 돌고 있고 유성은 태양의 주위를 케도에 따라 돌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동식물의 경이로운 구조와 자신의 신체의 우수한 기능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와 같은 자연의 경이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따라 이 모든 것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존재와 권세를 이같이 뚜렷이 나타내 보이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경탄은 창조주에 대한 경배의 넘으로 바뀌고, 그리하여 인간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신앙개조 제42판,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61년 제2장 27페이지)

이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대 경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거나 무신론자의 케변을 논박하려고 한 것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갖게 된 잘못은 그 후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계시가 그친 백도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단순하고 일관성 있고 근거있는 교리가 왜곡되었고, 인간의 교리와 이론이 수 많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아주 신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신회에 대한 대립된 의견과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는 주후 325년에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질 신조를 선언하기 위해 니케아 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종교 회의에서는 니케아 신조로 알려진 신조를 공포하였습니다. 니케아 신조 이후에 얼마 후 아타나시우스 신경(신조)이 나왔습니다. 그 신조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분이 각기 개체임을 압니다. 구세주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은 성신의 표적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심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회의 구성원인 세 분은 개체로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마 3:13-17) 그 후에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떠날 것이며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성신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신회의 세 분을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 14:26 참조)

이 세 분은 각각 하나님이라 불리우고 함께 신회를 구성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은 개체이며, 그들의 목적은 하나이며 예수님은 세 분의 일체성에 대해 되풀이해서 증거 하셨습니다.

나는 의문을 갖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게 모든 인간은 이러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친히 나타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지상에서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나는 교회의 제 7대 대관장인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1919년 9월에 행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엘버트 제이 베버리지 상원 위원이 쓴 “젊은이와 세계”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 책의 제 1장에 “젊은이와 설교단”이란 제목의 내용에서 베버리지 의원은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설교단에 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개심하여 자신이 설교하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설교단에 설 때마다 신성 모독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버리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

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휴가 동안에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자신이 만난 모든 성직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읍니다.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주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어떤 법칙의 집합체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분명한 예지의 존재로서 당신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가진 개체임을 믿습니까? 논쟁도 설명도 하지 마시고 ‘예 또는 아니오’라는 말로써만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성직자도 “예”하고 답변하지 않았읍니다.

베버리지 의원이 쓴 책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신성한 사명을 띤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간 후 부활하였음을 믿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 성직자도 “예”하고 답변하지 않았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래와 같았읍니다. “당신은 죽을 때 당신이 누구이며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을 알며 예지로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 성직자도 “예”하고 답변하지 않았읍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오늘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생명과 구원에 관한 그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말일성도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보고, 1919년 10월, 27-28페이지)

우리는 전세에 존재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지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신앙개조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 3조)  
이 선언은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음성이니,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게 하셨도다.”(교리와 성약 76: 40-41)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속죄와 구속을 다 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19-22)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 17-18)

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 26-29)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께 그녀의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 25-26)

구세주께서는 거룩한 약속을 아래와 같이 아름다운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 16-17)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속죄의 본질과 속죄에 관련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과거의 범법에 대한 죄책감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희망을 잃은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때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원리를 통해서 용기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을 바라는 희망을 줍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성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내게로 나아오라” 회개란 자신의 죄의 인정이요, 고백이요, 죄를 버리는 것을 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것의 보상은 세상의 부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진 그의 독생자이며,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말일에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누가 추수하지 못하게 됩니까?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인간의 속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지시에 따르고 완전히 헌신하는 경고의 말씀

**지** 금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추수할 때입니다. 농작물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리기에 적절한 때일 뿐 아니라 추수기는 혼자서 숙고하고 평가하고 계

획해야 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다른 평범한 일을 하거나 무엇이 성공적인 추수에 도움이 됩니까? 보다 좋은 농작물과 생산품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 것도 추수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용해서 구세주께서 흉작의 원인이 된 상태를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가 아무 것도 추수하지 못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경고와 관찰은 가치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돌밭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3-6, 23)

추수에 관한 약속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려 튼튼한 뿌리를 맺게 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는 상태로써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인간의 속성은 기계이 인정하려 하지 않음. 예수께서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과 기술로써 가르치셨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놀라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

하나... (마 13 : 54-56) 그들은 그의 말씀과 행적에 큰 감명을 받고 놀랐으나 그러한 능력의 근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의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돌발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고하고 지시하는 자들의 권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판하고 모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같은 인간이 아닌 어떤 평강의 왕자가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유유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냐” 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 : 46)라는 질문은 권고하고 지시하도록 부름을 받고 임명된 자들의 자질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시를 심음으로써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의심의 품은 자에게 기만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습을 가진 분야에서 어떻게 흉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말과 같은 바람과 폭풍우로 인해 우리의 뿌리가 시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리조나주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멕시코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새로 부름받은 감독에게 권고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이 길 저편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마태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

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마태복음 13 : 57-58)

“선지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는 상황은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극이었읍니다. 그후 곧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의 성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 근처인 남부 지방에서 성역을 베푸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행해진 위대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이 누렸을 기적과 나타내심과 육체와 영혼의 병고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시 그곳에 돌아오지 않으셨읍니다.

슬프게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셉 스미스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며 직접 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을 예언자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요셉 스미스를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뉴욕의 저명 인사에 대해 해롤드 브리 대관장이 한 말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의 위치, 신학연구원 교사 모임 말씀, 브리감 영 대학교, 1964년 7월 8일, 2페이지)

우리는 바로 같은 마을이나 와드나 스테이크 구역에 사는 자의 지시와 계시와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추수하지 못하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약점을 가진 인간이요 명백한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역원의 지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까요?

“이 이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태도를 갖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와 길을 잃어버리고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로 “마리아의 아

들”로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 브리감 영 대판장, 또는 요셉 스미스 대판장은 의모나의 복이나 사회적 명성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나, 뉴욕주에 살았던 사람이 가르친 영원한 진리나 교사가 가르치는 진리의 가치는 교사의 체격, 출신, 인상 또는 인기에 의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를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신앙개조 제 9조)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러한 계시는 인간의 속성을 지닌 예언자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음.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는 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마태복음 13:21)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리어져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계시와 변화와 지시를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의를 갖고 해임과 부름과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바쁘게 생활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커져서 상하지 않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름이든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뒤흘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뿌리들이 새롭고 비옥한 땅에서 자라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나의 친지 중 한 젊은 어머니가 그녀의 생활에서 이런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와드 청녀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고 청녀 회장으로 일했습니

다.

어느 날 스테이크 부장이 그녀를 불러서 일요일 오후 스테이크 부장단 모임에 참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울먹이며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이 나를 스테이크 역원으로 부를까 두려워요. 난 스테이크 부름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와드와 와드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 모임에 참석해 그분들이 부르는 직책을 받아들이도록 해요. 나는 당신이 어떤 부름을 받든 협조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모임에서 스테이크 청녀 회장의 부름을 받아들일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에, 스테이크 부장은, 그녀처럼 부름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사무실을 걸어 나가면서 절망적인 표정을 나타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6여년 간 그녀는 두 보좌와 함께 청녀들을 보살피는 스테이크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6년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찬 해였습니다. 저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테이크의 훌륭한 지도자와 장한 젊은이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지역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온 부름을 거절하여 현재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몹서리가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변화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는 발전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새로운 임무 곧 복음에 따르는 생활의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힘을 더해 줄

니다.

변화와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것은 복음에 따르는 생활에서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돌발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어더어 아이 루빈씨는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을 활용하면 우리의 생은 변화를 요하는 끝없는 경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기를 부여받고 기꺼이 투쟁한다면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 동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표요 고통과 기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고 냉혹하여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근래에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며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작은 실수란 곧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며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는 팔복 할만큼 공헌했습니다. 선교부장은 그가 어떤 미국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좁히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조그마한 도시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악의는 없었으나 옛날 일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의 이웃은 그를 반기지 않았고 그로 하여금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과 같이 그들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자기로 하여금 진실로 원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었던 새로운 땅의 국민들과 지냈던 훌륭한 기간에 자신이 행한 것

보다 훨씬 덜 행복하게 지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이웃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한 친구는 가정 생활을 별로 해보지 않은 청년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을 떠난 후부터 매우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고향에 돌아가 그가 시도했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그를 현재의 변화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가진 자로 대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을 떠나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근래에 그의 친구에게 옛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이 진실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3. 지시에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음. 이와 같은 자들은 추수하지 못하는 자가 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란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위험한 경지에 빠지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마 13: 13)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마 13: 7)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며칠 전에 다시 활동 회원이 되어 열의에 차 있는 어느 장로의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이 내가 만나기를 원치 않는 데 찾아왔으며, 내가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데도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와 지금은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로 정원회 회장이 자기의 책임을 완수한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권고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니파이일서 9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알지 못하나 주만이 아시는 현명하신 목적으로 주께서는 내게 이 판을 만들라고 명명하시었나니” 니파이는 현명한 목적을 완전히 알지 못했으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 세상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씨앗을 돌밭에 심는 것이 되고 추수하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4.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와 같은 자가 깊은 뿌리를 갖지 않은 자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나 간증을 갖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이하게 살려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의 간증은 시련이 닥치거나 돌밭에 부딪칠 때까지 잠시 동안 쉽게 불붙는 듯하다가 정작 시련이 닥칠 때에는 시들어지고 맙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씨이 나오나” 강하고 영속적인 간증은 매일 영의 양식으로 키워 나감에 따라 커지고 강해집니다. 간증이란 다른 사람과 나눌수록 굳건하게 됩니다. 훌륭한 간증은 좋은 땅에 심어진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비와 폭풍까지도 그러한 간증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더 오래 견디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일이 닥침에 따라 일상 생활의 시련 때문에 간증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흙이 얇은 곳에 뿌리가 내리어져 있고 간증이 시들어버리면 추수할 게 없습니다.

완전히 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밭에 떨어져 마르지 않고 안정과 행복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름을 받은 자이든 관계없이 완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들거나 의심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하나

님의 왕국의 좋은 땅에 깊이 튼튼하게 심어 집니다. 매일매일 봉사하면서 그들은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추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장의 기쁨을 잃고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은 발전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더 훌륭하게 봉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중에는 상당히 많은 자가 영원한 성장과 발전의 은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1) 인간의 속성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으려 함, (2)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 (3) 지시에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음, 그리고 (4) 기꺼이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지 않음 등과 같은 돌밭을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오늘날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위를 쳐다보지 않고 산 어떤 사람  
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사람은 알코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잔씩 마시으로써 그는 습관화되었고 드디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멍청하게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친구로부터 인사 받으면 그는 손을 힘없이 벗어나 거의 알아 들을 수 없게 증언거리며 답례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파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이 주정뱅이는 골목길을 비틀거리거나 시궁창에 빠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일과 사건을 망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 자존심, 목적, 가족의 사랑 그리고 다른 축복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붙잡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최고광을 찬 그의 생활을 보았지만 그의 최고광을 벗겨 주거나 그로 하여금 최고광을 벗기도록 도와 주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은 커녕 그를 조롱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가 고통을 받은 후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이 주정뱅이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보살핌과 친절한 설득과 열렬한 기도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개의 과정에서, (1) 그는 그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넣어 주었고, (2) 그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언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으며, (3)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다시 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보도로 곳곳이 활보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술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폈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사랑을 받는 남편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 새로 변화된 사람이 교

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발의 먼지보다는 미소를 짓는 얼굴로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땅을 내려다 보느니 보다 푸른 창공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자녀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달려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 고립된 경우는 없음

나는 고립되었거나 색다른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남녀와 젊은이가 독한 술과 다른 죄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와 잘못된 길을 지고 위를 바라보고 생활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참으로 최악의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할 때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의 영혼에 영의 양식을 줄 때

—인간이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영감 받은 자의 권고를 들을 때

—인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몇 년 전에 나는 교회 임무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한 젊은이를 보살폈습니다. 나는 그의 임무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나

는 그에게 명예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간곡히 말했습니다. 나의 말은 그 젊은이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 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자신의 부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형제님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그가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또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천사의 방문을 받으려고 불꽃에 싸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곧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는 이 젊은이가 참뜻을 갖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의 표정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음의 성구를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 너희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라.”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을 수 있으나 나의 능력 없이는 그 말을 읽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 (교성 18 : 33-36)

나의 젊은 친구는 경전이 주님의 뜻이요, 생각이요, 말씀이요, 음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성 68 : 4 참조)

나는 이 젊은이가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매일 경전 학습 시간을 주님과 갖는 개인 접견으로 생각하도록 권했습니다. 나는 그가 충실히 경전을 읽고 생각한다면 자

신의 부름의 목적을 알고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열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 그리스도의 말씀—방향구

물론경에서 우리는 방향구라고 부르는 도구를 가졌던 백성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 나침반같이 생긴 도구는 주님이 준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신앙에 따라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의로웠고 강한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바늘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계명 지키기를 게을리 하고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 이 도구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니일 16, 18 : 12 참조)한 기록자는 이 방향구와 그 작용 상태는 “형체를 가진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에 마음을 두는 일 같이 너희를 영원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쉬운 일이라.

“이제 내가 이르노니, 이러한 일에 비유가 있지 아니하냐? 이 방향구가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같이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멀리 슬픔의 계곡 저 너머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길이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말지니, 조상들에게도 매사가 쉬웠음이라. 이는 마치 쳐다보기만 하면 살도록 저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일과 같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하도다. 길은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바라볼진대 영원히 살리로다.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앨 37 : 44-47)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매일 경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의

사와 변호사와 사업가와의 약속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전, 즉 경전 공부로 뒤로 미루는 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빈털 상태에 놓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5분이나 20분간 경전 읽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매일 접전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개종 이야기

20세기가 되기 얼마 전 두 명의 선교사가 화와이에서 전도하던 중 한 섬의 산마울로 올라갔습니다. 한 남자가 그의 오두막 집 옆에 서서 오고 있는 선교사를 보고 그의 옆에서 있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언덕을 내려가서 저기 오는 선교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해라. 우리는 그들의 설교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단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계속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산마루에 올라와 선교사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걸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수마일을 걸어 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흥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하고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간증을 되풀이 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너의 어머

니와 형과 누이들을 불러 오너라. 가족들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라.” 얼마 후에 이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칭례를 받았습니다. (애시 장로와 그의 아버지에게 관한 이야기)

### 예언자의 역할

고대로부터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여 가르치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아모스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교성 1:35 참조)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에 대해 보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은 모든 세대에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지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리와 성약 1:11, 14)

### 출발 명령

군인이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효과적으로 행군하거나 싸운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날의 전술이나 전략으로 현대전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전술의 원리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면서 약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기

가 변하고, 전장이 다르고, 적이 더욱 현명해지고, 그밖에 지휘관의 계속적인 지휘를 요하는 많은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의 사령관인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적절히 말씀하셨으며 미래에도 그의 충성된 추종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는 그의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도록 명하십니다. 결국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대열에 곳곳이 남아 있는 자들에게 승리의 보상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필요에 알맞게 명령하고 권고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특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의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향해 황야를 여행할 때 용기를 잃고 그들의 지도자인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불뱀은 불평자들을 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 백성들은 그들이 어리석었음을 알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민 21 : 6-7)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 : 8)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이상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살았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물문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으며, 물렸을 때는 낫게 하는 방법도 준비해 두셨으니 이는 바로 쳐다보는 것이다. 그 방법이 극히 간단하고 쉬워 도리어 죽은 자가 많았더라.”(니일 17 : 41)

황야에 세워진 이 불뱀의 장대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의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한번은 주님이 모세와 광야에서의 사건을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 14-15)

우리는 옛 이스라엘 시대와 같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생각을 다해서 응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죄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지붕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느니라”(삼하 11 : 2) 그는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음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후 그는 타락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눈을 은 30양에 들렸습니다. 그의 의로운 소망을 욕심이 몰아냈습니다. 그가 잘못된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생명과 영혼은 은 30양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마 27 : 3-10 참조)

우리는 걸너서 나쁜 방향이나 멸망되는 세

상의 일에 시선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마 9:22) 위를 쳐다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사는 젊은이, 노인, 성장하는 세대에게 경전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언자는 태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권고합니다. 나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참된 신앙의 예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날의 젊은이는 새로운 시험, 새로운 환난, 새로운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젊은이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깊은 태버내클에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합창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높이고 고조시켜 주는 것이 또 있었습니까?

“이반 스티븐 형제님이 태버내클 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했을 때 조셉 에스 스미스 대관장이 말일성도 젊은이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

였던 스티븐 형제님은 예배를 마치고 대관장님의 영적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크리크 캐년 북쪽을 산책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하늘에서 오는 영감을 받고 아래서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위의 반석에 앉아서 연필로 다음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물려 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된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령 다해  
수호하라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찬송가, 146장 1절; 제이 스펜서 콘월, 물몬 찬송의 유래,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3년, 173페이지)

젊었을 때 나는 어려운 목표를 감당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험을 겪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년기는 태평하게 보내는 시기도 아니며 난처한 문제를 제쳐두고 해방감을 갖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청년기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혹은 인생 행로에서 끊임없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 절도, 환각제, 외설물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범람하고 대부분의 일간 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억측은 곧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가 됩니다. 전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과거처럼 훌륭하지 않으며” 혹은 “가장 악한 세대”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그러한 말은 얼마나 부정확한 말입니까?

진실로 오늘날은 새로운 시험, 새로운 환난, 새로운 유혹의 때입니다. 그러나 수만

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초창기의 젊은 이들이 훌륭하게 행한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봉사하며,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전세계의 예의바른 사람들에 의해 널리 만연된 사회의 동조에 대한 예외의 상태는 전세계의 예의바른 사람들에 의해 확대되고 관찰되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브리검 영 대학교로 온 편지였습니다.

“귀하에게,

“12월 22일에 출발해서 저는 남부 미네소타주에서 메스 모이니스를 거쳐 시카고 남쪽에서 플로리다까지 버스로 여행을 했습니다.

“메스 모이니스에서 같은 길로 여행하는 일단의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들은 휴일을 맞아 집으로 가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세련되고, 젊었으며 품위있는 젊은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알게 된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보고 저는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이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성품은 훌륭한 가정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명예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에게 저의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없으므로 저의 감사의 뜻을 학교 당국에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말일성도 학생들은 산 신앙을 가진 훌륭한 모범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신앙을 심어 주는 또 다른 그룹은 지금 세계 전역에 걸쳐 봉사하고 있는 2만 6천 6백명이 넘는 말일성도 선교사입니다. 이 젊은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 위해 준비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랑으로 여겨며 그들의 어머니는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나는 어느 감독이 다음과 같이 적어 보낸 어느 선교사의 추천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추천한 어떤 사람보다 가장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그는 그의 인격을 잘 쌓았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역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육상과 축구 선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보통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아래와 같은 글을 써 보냅니다. “존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부름을 받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기꺼이 훌륭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특별히 복음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을 위해 서명하시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의 손자를 불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관장님으로 서명하시고 추천서 아래 부분에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 적으셨습니다.

부름을 받으면 대학교 교과서는 덮여지고 경전이 쳐집니다. 가족과 친구와 때때로 만나지는 특별한 친구까지도 두고 떠납니다. 메이트와 춤과 드라이브는 소책자와 가르침과 간증으로 바뀝니다.

“시은 청년 지체하라”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교사의 신앙의 실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예. 나는 올드 멕시코에서 온 호세 가르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으로 자라면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의 추천서가 접수 되는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써여져 있었습니다. “가르시아 형

제는 그의 가족에게 큰 회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족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물이란 귀중한 우표 수집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선교사 기금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팔기를 원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이 추천서에 써여진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우표책을 팔라고 하십시오. 그러한 회생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많으신 예언자인 대관장님은 눈을 한번 찡긋하시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전세계 각처로부터 수천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우표책을 모아서 호세 장로가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이 우표책을 그에게 줍시다. 그는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어떤 멕시코 젊은이보다 가장 좋은 우표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때와 장소에서 구세주께서 경험하신 다른 예가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케에 현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누가복음 21 : 1-3)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마가복음 12 : 44)

두번째 예. 나는 독일 남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하려고 독일어를 충분히 익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언어훈련 선교부에 멕시코에서 온 어느 선교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일 그는 독일어 문법책을 펼칠 때 표지 전면에 그려진 독일 서쪽의 로렌부르크에 있는 기묘하고 오래된 집의 그림을 매우 흥미있게 호기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지방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결심하기를 “나는 그집을 방문해서 그집에 살고 있는 누구이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헬마 한 자매가 개종하여 칩체를 받았읍니다. 오늘날 그 자매는 전세계 각처에서 그 집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에게 많은 시간을 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축복을 관광객에게 이야기 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녀의 집은 전세계 각처에서 온 방문객에 의해서 사진으로 가장 많이 찍혀집니다. 그녀의 찬송과 감사의 말과 단순하고 진지한 간증을 듣지 않고 가는 방문객은 없습니다.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책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칩체를 주고”(마 28 : 19)

세번째 예. 또한 마크 스키모 장로의 부지런한 선교 생활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가 노르웨이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노르웨이는 한 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르치고 간증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국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혼자 결심했습니다. “나는 노르웨�훈의 한 가족에게 칩체를 줄 때까지는 영어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끈기있게 공부했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시련이 지난 후 축복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는 한 가족을 가르치고 칩체했습니다. 그는 6개월만에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로 그 주일에 만났습니다. 그가 표현한 말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용감한 대장 모로나이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며...나는 세상의 명예를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니”(앨 60 : 36)

네번째 예. 나는 훌륭한 선교사를 둔 어느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은 와이오밍주 스타베리의 기후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여름은 더운 기간이 짧지만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19세의 훌륭한 아들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 아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친은 병에 걸려 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조그마한 양떼의 우유를 짜는 일을 모친이 손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선교부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어느 날 저녁에 나와 함께 봉사하는 선교사 부모들과 가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부유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선교사로 나간 자녀에 대하여 긍지를 가졌고 기도했으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만난 모든 부모들은 스타베리에서 온 어머니를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어머니와 악수를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매일 일을 해서 그녀의 손이 거칠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손한 태도로 그녀는 거친 손과 바람에 튼 얼굴로 수줍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 스펜서에게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비로소 나는 천사를 보았으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장로의 어머니와 같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마주 잡은 손과 같은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감하게 헤쳐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걸려 낸 선교사들은 힐라멘의 젊은 용사와 비교됩니다.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자들이다.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엘마서 53: 20-21)

이와 같은 실례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 그들은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들은 아래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은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물려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력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나는 우리가 시은의 청년들과 함께 서며, 참된 신앙을 갖고 전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모로나이의 마지막 말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명의회

모로나이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오늘 날을 염려하면서 비극적인 종말을 경고하였습니다.

지 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뜻있는 기념 행사



를 가졌읍니다. 그것은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로나이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방문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셉 스미스 2서; 28-65. 참조)

모로나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읍니다.

그는 1500년쯤 전에 이 땅에 살았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련의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국가가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읍니다. 이 치열한 보복전에서 그들의 적은 그들을 전멸시킬 것을 맹세하였고, 실제로 그들은 전멸되었읍니다.

모로나이의 아버지는 니파이 민족으로 알려진 이 고대 민족의 총사령관이었고 그의 이름은 몰몬이었읍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은 주후 400년경에 이곳 미국에서 있었읍니다. (몰몬서 6장 참조)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몰몬은 지금의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구모라라는 언덕에 남은 군사들을 모았읍니다.

레이맨인으로 알려진 그들의 적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왔읍니다.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몰몬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처자들과 더불어 레이맨인의 군사들이 저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음을 보고, 모든 잔악한 자들의 가슴을 채우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적과 마주칠 때를 기다렸으며,

“...그 수효가 심히 많았던지라 우리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더라.

“드디어 저들이 칼과 활, 화살, 도끼 등 온갖 무기를 들고 나의 백성들에게 덤벼들어서,

“내가 거느린 만 명을 빼어 넘겼고 나도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쓰러졌으나, 저들이 미처 내 목숨을 끊을 새도 없이 지나쳐 갔으며”(몰몬서 6: 7-10)

그 다음 그는 그와 함께 싸우다 쓰러져간 니파이인 장수와 병사들에 관하여 기록했읍니다. 그는 구모라 언덕에서의 마지막 절전에서 죽은 니파이인의 수가 25만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큰 희생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일로 하여 나의 심령은 찢기는 듯 비통하였던지라 나는 부르짖어 이르기를,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 주의 길을 떠났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서어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던들 패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보라 너희는 모두 죽어 넘어졌고, 나는 너희를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노라.

“오 너희 사랑스런 아들과 딸, 아비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들아,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패망하였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나의 슬픔이 너희를 돌이킬 수 없도다.

“오, 너희가 이 커다란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더라면...”(몰몬서 6: 16-20, 22)

니파이 백성들은 왜 멸망당하였읍니까?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또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따라 살아야만 했읍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쓸려 없어질 것입니다. (이더서 2: 10-12 참조)

니파이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악에 빠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했읍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모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이 이 무서운 비극에 대하여 기록할 때 살아남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의 숫자는 24명에 불과했습니다. 후에 이들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기록을 인봉하도록 허락하셨던 모로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기록을 끝낸 모로나이는 그 기록을 마지막 전쟁터였던 구모라 언덕에 감추었습니다. 후에 그것은 그 기록을 정리하였던 모로나이의 부친, 물론이 이름을 따라 물론경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을 마치면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물론이의 기록을 끝맺노니,”(물론서 8 : 1)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전쟁의 상태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나의 백성들의 슬픈 멸망의 기사를 기록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기록하여 이를 땅에 감출 것이요...”

“나의 부친과 친척은 모두 싸움터에서 전사하였고 친구도 없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살려 두실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물론서 8 : 3-5)

그는 이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간악함을 사랑하였으며 부귀와 영화를 구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처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은 이미 쏠려 없어진 백성에게 내리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한 때 살았던 그들에

대한 말없는 증거인 거대한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마치면서 그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알고, 현대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 겪었던 멸망의 비극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마음에 부른 교만으로 인하여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물론서 8 : 35-37)

예언의 말씀에서 그는 또한 많은 현대 미국인들이 비극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악에 빠질만큼 어리석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멸망당해야만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미국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잘 알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음을 지적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 하느냐.”(물론서 8 : 38)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이름을 받드는 일이 그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로나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와 그의 아버지가 기록해서 구모라 언덕에 묻어두었던 그 책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줄 것을 분명히 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수많은 곳에 지진, 폭풍,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퍼질 때 이 책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물론서 8 : 29-34 참조)

이 책은 심한 부패가 이는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몬서 8:31 참조) 세상에 심한 부패가 올 것이라는 말은 흥미있는 말이 아닙니까? 현대 생태 학자들의 주장을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살인, 도둑질, 거짓말, 사기, 부도덕 등의 죄악이 늘어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정부에 팽배해 있는 뇌물 수수, 도둑질, 횡령, 사기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법이 거의 부정직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부도덕의 사회적 병폐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물몬은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방인이라고 부른 무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레이먼 민족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며,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크고도 영원하신 제국을 이루사,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어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회복하사 다시 주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속의 땅으로 인도 하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며”(물몬서 5:14) 이 성구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몬은 그 때 약속된 땅에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능히 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의 크신 분부로 땅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너희를 벌하실까 염려함입니다.”(물몬서 5:22-24)

특별히 이 세대에 경고한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모로나이는 그의 아버지의 기록에 다음을 첨가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행하심을 항거하겠느냐? 누가 주의 말씀을 부인하겠느냐? 누가 주의 전능하신 권세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주의 위업을 경멸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업신 여기겠느냐? 보라 너희 모든 주의 위업을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는 방황하여 멸망하리도다.”(물몬서 9:26)

우리는 니파이 백성이 이 지상에서 쓸려 없애움을 당한 사건으로 인한 절망에 쌓여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그때 니파이 민족들이 살았을 때와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모로나이가 그의 마지막 간증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 책이 우리 세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축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 10:4)

이 말씀은 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 놀라운 귀절에 이어 이 땅에 대한 다음의 성스러운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이더서 2:10)

그는 우리에게 니파이 민족의 멸망에 대한 실례를 들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야벳 백성의 비슷한 비극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례입니다. 이와 똑같은 멸망이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모로나이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 세대를 구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의 백성 또한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고대의 미국인으로부터 현대의 미국인에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교리로 하여금 그들이 당한 비참한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쓴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말씀입니다.

모로나이는 심판의 날에 그가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서 10:27 참조) 그는 그의 책에 의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

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며, 그러한 책 중의 하나가 물문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믿으십시오! 이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이 책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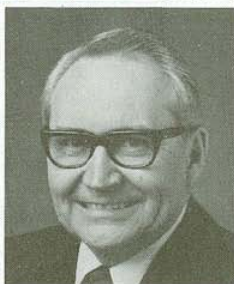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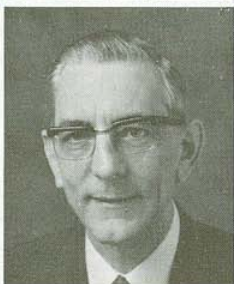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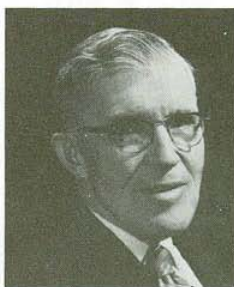
모로나이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감히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결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과 인사하는 벤슨 회장



1978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브루스 알 맥쿱기 장로

에스 딜워스 영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엘 톰 페리 장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이콥 디오거 장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 “너희는 계시를 받게 되리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은 그의 모든 자녀가 하늘로부터 빛과 진리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은사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며, 성도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는 최고의 영적인 엔다우먼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항상 그의 자녀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만들어 주며 그것 없이는 종교적인 본질의 어떤 부분도 하등의 특별한 가치나 지속적인 존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계시와 하늘의 열림과, 교회와 세상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언자와 사도에게 준 계시와, 일반 성도에게 주어서 자신과 그의 가족을 인도하게 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간절히 구했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도록 열려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생명의 불꽃으로 타게 되고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게 된 교리와 증인의 탄생을 진실함을 알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원불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배일을 쓴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가 영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자가 현재의 일을 선견자적인 눈으로 보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의 안개와 어두움을 뚫고 하늘의 문물 들여다 본다는 것은 진실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예언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불멸의 존재와 함께 영원한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알도록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 사도와 예언자에게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세상의 것을 금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 침례받을 때 자신의 전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주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은사는 신앙에 기초를 두어 신뢰를 구성하는 세 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권리입니다. 이 은사는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성신을 받을 자가 없는데 이는 성신이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예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요셉 필딩 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77년, 328페이지)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지지만 언제나 성신의 능력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는 고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 24 : 26) 우리의 현대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간증하시니라.”(교성 42 : 17)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찌니,”(모로나이 10 : 5)

인간이 성신의 능력으로 감동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이 택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때가 찬 절정의 시기를 알리기 위해 1820년 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요셉 스미스는 이 영광된 두분으로부터 자신이 끝까지 참되고 충실하다면 영원한 복음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그들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유대지방의 베헤렘에 살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전능하신 주님은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회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나는 자비를 베풀어...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

“참으로 나의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종에게 나타나 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하리라.”(교성 110 : 3-4, 7-8)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및 다른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는 저회 경륜의 시대, 저회 권리, 열쇠, 존귀, 위엄, 영광 그리고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였고,”(교성 128 : 21)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의 열쇠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회복하고 죽어야 하

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이 축복받도록 하는 약속을 회복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엘리야는 인봉하는 능력을 부여하여 다시 한번 합법적인 관리자가 지상에서 매는 능력을 갖고 그들의 행위가 영원히 하늘에서 인봉되게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교성 110 : 11-13 참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회복하여 모든 백성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물문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왔고,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열쇠와 권능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교성 128 : 20-21 참조)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든은 1832년 2월 16일에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광의 왕국을 시현으로 보았고 유한한 인간이 좀처럼 받을 수 없는 넘치는 은총과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성 76편 참조)

우리가 쓰는 언어처럼 커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거나 인간의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반복해서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해서 적절한 해결 방법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자신의 결정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에게 모든 백성과 모든 피부 색깔의 인종이 신권과 모든 축복을 받고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지식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간증하지 않고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그 분은 말씀하며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실 것을 대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신권에” “성임된”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건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진실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는 날이 약속되었습니다. (교성 1:20)

모든 말일성도가 주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모세의 간구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11:29)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써”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으로써” 우리가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얻게 될 약속된 날입니다. (교성 121:26)

오늘날은 요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십이사도에게 알리지 않을 것과 가장 작은 성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모두 알게 될 것을 제외하고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페이지)

또한 우리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끄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앞이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영화로운 복천년을 기다립니다. (에헤미아 31:34)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받을 계시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할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9조)

하나님은 예언자요, 선전자요, 계시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교회와 세상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스테이크와드 및 정원회 관리 역원에게 그 조직을 위하여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완전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교성 89:19)

우리가 간증을 얻고, 계시를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며, 주님의 면전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자녀가 하늘로부터 빛과 진리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일을 꿰뚫고 하늘 사이로 영원한 시현을 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

이런 것이 바로 슬픔과 죄의 세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사는 우리에게 현재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두려움을 없애 버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지면 장막이 견혀져서 그분을 보고 그분이 존재하는 줄 아는 것이 지금 성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교성 67:10 참조)

속세의 인간이나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외래로 지껄이는 횡설수설로 들릴지 모르나 그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불타고 있는 자들은 불타고 있어 꺼지지 않는 수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 사도인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섬기는 똑같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



니라.”(영감역 성서 고전 2:11)

이제 나는 성신으로부터 나온, 엄숙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리는 참되며 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내려 주고 계시며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완전한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펠릴라야 집으로 돌아오라”

존 에이치 그로버크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데에는 불공평이나 변덕스러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천세와 내세에서 우리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한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인 모두와 인류 전체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는 우리 창조주에 대한 더 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친절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의 하나입니다. 이 보배는 강한 신앙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만사가 잘 되어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율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신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기 위

해서는 신장되고 시련을 받고 시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닳치는 시험의 한 분야는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이는 것에 관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컨대 나는 자신의 전체 능력보다 적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의 몇 사람과 함께 왜? 라고 물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무서운 병에 걸리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 생긴 경우나 정신박약이나 지체 장애 아동이 태어나거나 기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싶어서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 갑니다.

나는 경전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읽을 때 큰 위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29 참조)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믿지만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에게 일어날 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에 쌓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수는 없지만 수년 전에 일어난 다음 경험은 왜라는 의문으로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태평양 어느 조그만 섬에 믿음이 강한 가정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펠릴라라고 불렸습니다. 한 훌륭한 영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쳤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뇌수종으로 진단했습니다. 뇌의 파손, 정상 상태 및 모든 다른 문제가 그들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고 지부장을 만났으며 지부장은 지방부장을 만났으며 지방부장은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선교부장인 나에게 왔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결과 그 지방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연락이 오고 갔으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분석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고 해답이 필요한 의문이 많았으며 함께 합쳐야 할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지연된 후에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에 있는 어느 가족이 이 어린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으며 가령 수년 동안 외래 환자로서 돌봐야 하는 경우라도 끝까지 보살펴 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도 그 소녀가 궁극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값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지방의 관광객들은 그 소녀가 곧장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의 항로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자와 건강 진단서와 여권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의 날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과 장로 정원희와 모든 지부 회원들까지 금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좀처럼 잊기 어려운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날 아침 해야 할 다른 일이 매우 많지만 지금 시간을 내서 그 소녀가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마칩내 비자를 내주도록 허락했습니다. 항공회사에서는 특별 예약을 해 주었습니다. 여권국에서는 정규 규정에 예외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크게 노력하고 협력해 주어서 끝은 것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평상대로 나는 마지막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가족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으나 다시 직접 지부장을 만나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후 그가 가르치고 있던 학교 근처로 찾아 갔습니다. 그는 마칩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혼자 밖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흥분해서 그에게 달려 갔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준비가 다 됐어

요.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잘돼서 펠릴라가 내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가족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의 조용하고 꿋꿋어 보는 듯한 시선이 나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나는 “정말 그래요. 이 일은 오래 걸렸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녀는 정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꿋꿋어 보는 것같은 시선은 나의 영혼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창하게 그 나라 말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단합하여 헌신한 목표가 성취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여 이 모든 활동이 절정에 달한 그날 아침에 어린 펠릴라는 아주 조용히 이 곳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 그 소녀가 받아들일도록 오랫동안 힘써 노력한 더 좋은 보호처로 떠난 것입니다.

가다니? 오늘 아침에? 그러나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금식과 기도와 그 강한 느낌도 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강한 그는 한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진리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다시 자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지나는 길을 따라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왜?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강한 신앙과 그 강한 느낌이 있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밝은 태양과 야자수 잎을 스치는 따뜻한 미풍, 맑고 푸른 하늘에 조용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구가 아름답고 인생은 계속되며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의 일부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구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의 능력에 위압되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곁에 서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장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분명하게 강력하여 모든 자연이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딸 펠릴라야, 집으로 돌아오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찾던 보호처인 집으로 오라.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금식과 너에 대한 사랑을 알았으며 이제 응답을 준다. 내 딸아, 집으로 돌아오라. 너의 인생의 사명은 끝마쳤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영혼이 신장되었으며 신앙이 증진되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펠릴라야!”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셨으며 이것을 내가 믿기로 했으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공정과 이유에 대한 왜라는 나의 의문은 완전히 가셔졌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손가락으로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은 부적당한 것이며 나의 의문은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사업은 놀라움과 위대하시며, 주님의 오묘하신 뜻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인간은 도무지 주님의 행하시는 바만 가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지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보지 말지니라.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혼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야곱서 4:8, 10)

나는 영생에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공의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때에는 불공평이나 편애나 번덕스러움이나 완전한 일관성과 균형과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기대하시며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웃을 보살피는 책임과 특권과 기회를 받으신 여러분은 그 긴 시간과 날과 해를 통하여 내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을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과 영혼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도를 헤아리시며 영을 아십니다.

보살피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열성, 지속성, 양, 질, 범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살피는 것은 신앙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펠릴라가 자신의 생활에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정신 박약아, 허약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노인이나 어린이 모두 우리 마음을 사랑 가운데 부드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상냥함 가운데 떨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봄에 있

어 우리 가치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돌보시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며 영원히 사시며 그러는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러는 가운데 진중하게 모든 것을 돌보시며 그 나아가시는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에스 딜워스 영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의식에 따름으로써 승영이 가능해지며 복음의 행동 율법에 준함으로써 승영을 보장받게 됩니다.

나는 먼저 간증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방금 백쵸크 형제가 말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지난 2일간에 나와 동료들이 받은 부름이 33년전에 받은 부름과 같이 주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경이로운 날에 나의 마음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이는 늙은이로서 당연한 생각이라 느낍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4가와 5가 사이의 남쪽 7가에 있는 제 2와드의 방이 하나인 석조 집회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와드는 덴마크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히버 시 아이버

슨 감독은 덴마크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식 주일 모임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언어인 영어로 더듬거리며 간증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에는 예배당의 천정에 철사를 매어 거기에 초록색 커어튼을 드리워서 공과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반 교사의 말씀이 재미없다면 모두 들을 수 있는 다섯 개의 다른 반을 마음대로 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뒤에 있는 커어튼을 넘어 등을 찌르는 소년이 누구인지 알아 맞히려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홀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하며 만약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원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원리를 누가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 제 2와드 주일학교 분반 교실에서 부모님이 하신 간증을 듣고 당시에 내가 여러번 반복했던 신앙개조 2조를 되풀이 하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

나는 일찌기 선하게 살아서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결심했습니다. “벌한다”는 말은 매우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건 전후에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선행이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나는 한 때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의해 다스려지던 인간의 행동이 오늘날에는 그 법을 어기는 변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매우 넓게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명은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명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아직도 영생의 길을 비춰주는 신호 등으로서 있음

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십계명의 엄하고 간결한 말씀은 항상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이 계명은 나의 마음에 더욱더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나는 아빈아다이가 노아왕에게 반복해서 한 말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 ① 너는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 ②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 ③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 ④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⑤ 네 부모를 공경하라
- ⑥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 ⑦ 너는 간음하지 말라
- ⑧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 ⑨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⑩ 탐내지 말지니라. (모사이야서 12 : 35-36, 13 : 12-24 참조)

아빈아다이는 거기에 노아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이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모사이야 13 : 11)

그러나 십계명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때로부터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이중에 다섯 가지는 교리와 성약 42편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계명은 다른 편에 수록되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대의 젊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다섯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도 독질하지 않도록 가르치지만 사춘기의 반항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심하게 어기

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대로 공경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린이가 알게 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느날 나는 문득 나의 행동 방침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 : 8)

“공의를 행하며” 나는 이것을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은 이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나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교리와 성약 11편 12절에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는 태버내클 함창단의 일원인 제이 이반스 스미스 자매의 독창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자신의 생애가 그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이 말씀에서 작가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른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대답은 놀랄만큼 간단히 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24 : 3-5) 계속해서 시편 저자는 순종하는 세대는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라고 언명했습니다.

의로운 성품의 특징을 규정지은 이 말씀은 이웃과 교제하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

는 상황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일의 행동 표준으로 주신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말씀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13조) 이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심계명을 어기려는 유혹에 쉽게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덕과 의로운 생활을 갈구하는 사람은 우리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값진 진주를 찾을 것이며 이것을 찾으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로 헌신한다면 그는 진주 목걸이를 더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을 것 입니다.

우리는 승영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의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승영을 확실하게 하는 행동 규범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킴블 대관장님을 우리의 예언자로 지지한다는 간증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영적인 발전

엘 리셀 벨라드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자녀의 영원한 성장을 위해 영적으로 조심스럽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영** 장로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나는 첫 손자를 얻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식들을 처음 낳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친친난만한 어린이들의 얼굴을 들여다 볼때 다음 질문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귀여운 아가야, 너는 누구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에서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나?” 나는 부모되시는 여러 분께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처음으로 안아 보았을 때, 전세에서 성임받고 커다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니게 되어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그 어린 아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 중에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여 앞날에 총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혹은 초등학교 회장의 부름을 훌륭히 수행해 낼 영의 자녀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가정에는 지금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에 언젠가 부름을 받게 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예언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킴블 대관장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경전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

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임무를 줘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좋은 선생이 되려면 먼저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큰 아들인 클라크가 네 살이었을 때, 조그마한 것이지만 엄하게 꾸짖어야 할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가 했을 거라고 단정지어버린 그 일을 또다시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준엄한 꾸지람이 끝난 후 갈색 눈의 이 어린 소년은 나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하지만 아빠, 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그의 영혼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껴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록 4살짜리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날 나는 그 아이의 영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성급히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보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부모들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의 육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하늘의 부모를 닮은, 살아있는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그들은 영원한 관계와 삶의 진실한 목적에 따라 그들의 가족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되시는 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여 가정을 다스린다면, 자녀들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빠짐으로써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에는 제약을 받지만 영적인 발전까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가족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불구의 어린이가 가정에 있는 경우 더욱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달에 사랑하는 가족이 어린 소녀를 위해서 다음 시를 썼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리워지지 않아도  
소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끽합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고통스러우만 택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녀는 완전하며  
그녀의 영혼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거룩한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곳에 사는  
특별한 영입니다.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에드 조이어 “비키 안” 미출판 원고)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의 자녀를 갖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 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성하게 임명된 분들의 인도와 지시를 얻기 위해 기도하면, 그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더라.”(모세서 1:39) 이 말씀은 지상의 부모가 가족 각자의 인생의 영원하고 거룩한 계획을 갖게 될 중요한 역할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것은 부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적절한 휴식, 식사, 운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녀가 육체적으로 성장의 계획에 따라 완전히 성인으로 자라게

됨을 발견합니다.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싱싱한 피부에 주름살이 나타납니다. 머리칼은 갈색으로 변하여 결국은 희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간의 영원한 영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데 매우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며 혹은 영원한 칭지기의 직분은 올바른 계획에 따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자녀들이 매우 사치하게 생활하여 영적인 가치관을 잃게 되거나 그들의 영원한 중요성의 우선 순위를 잘못 놓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영적으로 잘 행할 수 있을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을 어떻게 잘 먹이고 살찌우고 훈련하고 활동시킬 수 있을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칠 기회를 많이 받았읍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가정의 밤을 제정하였습니다. 영원은 바로 지금이요 아득한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위해 바로 지금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인간의 영이 육체처럼 자라서 늙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영이 합당한 보살핌을 받게 될때 영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교성 121:45참조) 영의 강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과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연령이 영의

크기에 비례되지 않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의 능력과 힘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복음에 순종한 그들이 교회 전체를 강화할 수 있을만큼 영이 발전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의 성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원한 성장을 위해서 확고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적인 발전을 준비함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대나 현대의 주님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구세주는 이 교훈에 덧붙여 설명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친히 나타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권의 권능으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대 계시나 현대 계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외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영적인 기초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지혜와 지식과 이해가 커진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영생입니다. (교성 14:7 참조)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모든 인간은 그의 자녀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인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



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디오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복된 복음의 목적은 이생과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바로 오늘 아침 홍콩에 있는 17세 된 나의 딸로부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아드리.”

아드리가 이 대회의 진행 과정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실례를 무릅쓰고 딸에게 답을 주고 싶습니다. “고마와, 아드리,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1972년에 참석한 바 있는 지역 대표를 위한 세미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롬니 부대관장께서 강당을 나오시면서 내가 한 팔에는 두 개의 큰 바인대를 끼고 다른 쪽 팔에는 많은 서류 봉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롬니 대관장님께서서는 멈춰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디오거 형제, 당신은 이 영감에 찬 모든 자료를 어떻게 가르칠 예정입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

에게 만족을 줄 만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롬니 대관장님, 나는 이 자료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가르칠 예정입니다.”

롬니 대관장님께서 한쪽 눈을 찡긋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신성한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시고는 걸어 나가셨습니다.

지금 수 년이 지난 후 나는 롬니 부대관장님의 훌륭한 조언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한 제이 씨 엠아이 소핑 센터에서 만난 나이 많은 자매처럼 쉽게 잘못 이해합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네델란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 나라의 이야기 중 손가락으로 제방을 막은 소년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학교에 다닐 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논쟁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특히 자매님과의 논쟁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소로써 그녀와 작별하고는 슬픈 마음으로 내 걸음을 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 사람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의 도전은 좀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새로 개설된 선교부의 조그마한 지부에서 일하는 현대의 개척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품성을 높여주고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의 회원이 참석하는 지부의 회원들에게 감사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국제 선교부의 대표로 부름받고 먼곳에서 수고하는 부부 선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70세를 넘기신 분들도 있고, 선교사로 세번째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또한 대만의 틴무에서 집사 신권을 가진 형제, 필리핀의 바코르드에서 새로 장로 신권을 받은 형제, 인도네시아 솔로에 사시는 상호부조회 자매님, 타일랜드 코랏에 있는 초등학교 회장 등 내가 아시아 지방에서 직접 목격했던 분들의 헌신과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계 각처에서 비슷한 직책에 부름받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이 이러한 현대의 개척자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와 평온을 요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명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요셉 스미스에 의해 지상에 회복된 이 교회는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매일 증가하고 있는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꺼이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신권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살게 된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목적을 알려주고 모든 인류를 하여금 그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훈과 계시와 인도를 거절하고 인간적인 이론의 심연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그들을 대항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원인과 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도소에서 온 사람이나 성공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받아들이시지 인간의 역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은 열려 있으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하여 교훈을 쌓음으로써 발전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흔히 교실에 붙어 있던 영국 시인 토마스 티리치의 시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풀과 바람과 비를 노래했으며,  
무화과 나무와 아름다운 날씨를 노래했읍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것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백합과 밀과 포도나무를 노래했으며,  
참새와 까마귀를 노래했읍니다.  
자연스럽고도 현명한 말들이  
인간의 가슴 속에 새겨졌읍니다.

그는 이스트와 빵과 아마와 천을 노래했으며,

계란과 고기와 양초를 노래했읍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조화로운 세상.  
얼마나 신성하게 운용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그가 말씀하신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를 기원 후 1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경전에 있는 비유를 읽는 동안, 나는 그 당시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빵을 굽거나 옷을 꿰매거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시장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보게 됩

니다. 나는 씨뿌리는 자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양치는 목동과 함께 언덕을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은 호수 옆에 서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어부를 돕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상인을 만나 그의 큰 집과, 파수원과 창고를 소개받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점원과 노동자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를 극찬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의 바쁜 생활이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말일의 시대에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개종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통하여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교회의 선교 조직입니다. 나는 내가 지명 받은 선교 지역을 여행하면서 매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요구되는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부, 지방부, 와드, 스테이크, 신권 정원회 또는 보조 조직을 건설할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항상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가끔 말씀하신 다음 귀절을 마음 가운데 새겨 둡시다. “여러분이 명성을 얻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행에는 끝이 없습니다.”(레회보고, 안토인 알 어빈, 1946년 4월, 42페이지 참조)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선교 프로그램은 발전에 대한 열망에 찬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큰 결실을 하여 사랑과 단합의 정신으로 전진합시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성도들을 진실로 기쁘게 만드는 것이

동기 부여의 가장 훌륭한 원천입니다.

구약의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나는 이 말씀이 진실함을 압니다. 회복된 복음의 목적은 이생과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성한 목적을 완전히 알게 될 날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육 - 신성한 부르

엘름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의 준비는 부모와 가족 각자의 필요에 알맞도록 신중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쫓아낸 후 아담은 내가 명한대로 땅을 갈며 튼의 모든 짐승을 다스렸으며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아내 이브도 그와 함께 일하리라...”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모세서, 5장 1, 4-5, 12)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서로 보살피도록 의무와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옛 조상의 시대에 가족을 보살피고 축복사로서의 책임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

는 자는 대개 그 가족의 최고의 연장자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권에 의해서 교회를 보살피는 원리란 아버지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또한 그들의 책임을 행하도록 그들을 돕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 주님이 지상에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보이신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회원을 지키고 강화시키는 제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내는 책임을 받은 후에 장인으로부터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요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노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서 재덕의 결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출애굽기 18 : 13-15 17-19, 24-25)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는 무리들의 부족함을 가르치고 보살피기 위한 조직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는 십이사도를 부르셨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 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누가 10 : 1-2)

그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었을 때 그는 보다 많은 조직을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무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때 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피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4 : 11-14)

각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은 신권 지명과 책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오늘날 복음의 회복 안에서 이 원리 즉 “돌보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근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0년 4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어진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계시에서 이 원리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

“그러나 경고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교성 20 : 53-55)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 초기에 어떻게 실시되었는가에 대한 훌륭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였던 패밍턴 카혼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마치기 전에 나는 잊을 수 없는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가족을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었습니다. 17세의 젊은 나이에 교사의 자격으로 예언자와 그 가족을 방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나의 의무에 위축됨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그의 대문을 찾아가서 노크했더니 잠시후 예언자께서 대문간까지 나오셨습니다. 나는 멀면서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형제님, 저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형제님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윌리엄 형제님 어서오십시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가족을 불러 오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윌리엄 형제, 나는 나와 가족이 형제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소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윌리엄 형제님, 형제님의 느낌대로 모든 질문을 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공포와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와같이 질문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져 노력합니까?’

“그는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족 기도를 갖습니까?’

“그는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은 가족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칩니까?’

“‘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합니다’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식사할 때 축복을 하십니까?’

“그는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은 가족 모두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예언자의 부인인 엠마 자매를 향해서, ‘자매님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엠마 자매님은 ‘예,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다시 예언자를 돌아보면서 ‘저는 지금 교사로서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기쁘게 들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겸손하고 믿음이 있으시면, 형제님은 교사의 자격으로 직분을 행사할 때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을 드리고 떠나왔습니다.”(청소년 인스트럭터 27, 1892, 8월 15일 492-93)

선조 아담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을 때 형제 자매로서 서로 보살피도록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이 연차 대회 역사는 이 신성한 의무에 관해 총관리 역원들이 하신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가정 복음 교육을 가장 중요한 부름으로 여기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회생을 가지고 몇 가지 권고를 덧붙입니다. 성공적인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의 세 가지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교회 조직 가운데 가장 기

본적인 조직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 기본적인 단위를 보살피기 위해 일선에 선 자들입니다. 우선 순위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고 강화하는 것이 첫째요, 훌륭하고 성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19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육이 제대로만 실시된다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온의 대업을 위해 덕성과, 영예와, 단결과, 사랑과, 신앙과, 성실을 갖도록 훈계하는 가정 복음 교사의 의무보다 더 신성하고 필수 불가결한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대회보고, 1915년 4월 140페이지)

가정 복음 교사의 책임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받도록 권고하며 성임되지 않은 자에게 성임 되도록 권고하며,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 시키고 잃어버린 회원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사항을 혼자 보살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가정 복음 교사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워드 교육과 가정 복음 교사의 역사를 보면 한 교사에게 지명된 추천 가정의 수가 변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경계가 확장되었고 방문해야 하는 여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10가정에서 8가정으로 현재는 8가정에서 5가정 혹은 그 이하 가정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능력 이상의 지명을 하는 것은 가정 복음 교사의 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부장, 감독, 정원회 회장 여러분 가정 복음 교육은 잘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행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의 행정적인 짐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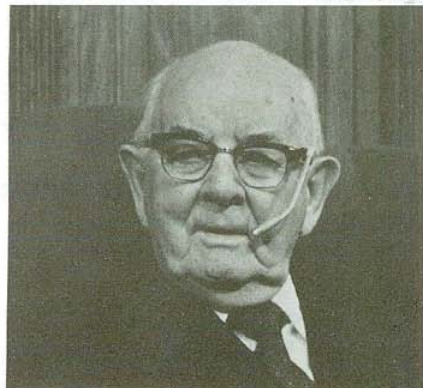
세째는, 가정 복음 교사의 준비입니다. 마티어스 에프 카울리 장로는 190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원리를 공부해야 하며 그들의 가르침에서 성신의 영감으로 기쁨을 느끼게 해야하며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린이들에게 이해되도록 하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은 공식적인 질문만하고 월례 방문을 했다고 말하기만 하여 판에 박은 듯한 행동으로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영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족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대회보고 1902년 4월 38페이지)

우리의 가정 복음 교육의 책임을 올바르게 행하려면 그들의 방문을 위해 부모와 가정의 각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알맞도록 신중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이 가장 신성한 의무에서 주님의 인도와 영감을 구하기 위한 열렬한 노력으로 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복음 교육 지명의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으며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가정을 보살피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김볼 대판장



#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소망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우리는 세상에 의치노니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시 123:2)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고 품성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그리고 참된 예배의 정신을 마음 속에 느끼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 살게 된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말씀드린 교리를 믿으며, 형제들의 권고를 지키며,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조시키고 품성을 높이는 정신력을 지니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주셨으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분의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3-4, 19)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이며 일어난 자들은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각자는 예비된 장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고 간증했습니다.

부활의 상태에 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영감역, 고전 15:40)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이 종교의 제도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나 짐승이나 재산에도 관계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량하고 단조로운 이 지상 생활을 영광스럽고 기쁨에 가득찬 생활로 변화시켜 주는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경험을 하기 위해 잠깐 동안 인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을 맞게 되고 우리가 받을 왕국에서 상수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의 어제와 짧은 시간의 오늘과 순간의 내일로 구성됩니다. 우리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덤에서 일어나면 그후로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원하여 끝이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는 칠푼의 물로써 씻겨집니다. 죄와 간악함은 불꽃처럼 우리 영혼에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직한 양심을 갖게 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7 참조)

복음의 율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적인 번영과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에 비하면 사하라사막의 모래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전 15:19)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희망과 영원한 보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자들보다 얼마나 더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린도전서 15:20)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옳하리라.”(고전 15:54)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서서 인생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산 사람들은 별의 영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고상하고 의롭고 존경받으며 신하게 산 사

람들은 달의 영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버리며, 성신을 그의 인도자로 삼으며, 제단에 가까이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불사불멸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은 만약 인간이 그의 지은 죄로 인해 죽으면 그들은 규정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다가올 세상에서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고대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불사불멸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부활한 것입니다. 불사불멸은 지정받은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의 상태인 승영을 얻고 가족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추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전 15:58, 16:1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인생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귀임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곳에서 사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교성 130 : 2)

우리는 다음 경전 말씀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모 3 : 17)

우리는 다음 말씀만 알며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또한 이점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실을 믿지 아니할진대, 스스로 저들 영혼의 저주의 잔을 마시리로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모 3 : 18)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으로,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니파이서 25 : 23, 26)

또한 니파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압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하지 않음이 바른 길이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러.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여 너희의 정성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예배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니파이서 25장 29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바울의 다음의 말씀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로새서 1 : 14-19)

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립보서 2 : 9-12)

베드로의 훌륭한 간증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칩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베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3-18).

이 강한 자들과 고대 예언자들의 간증에 나는 나 자신의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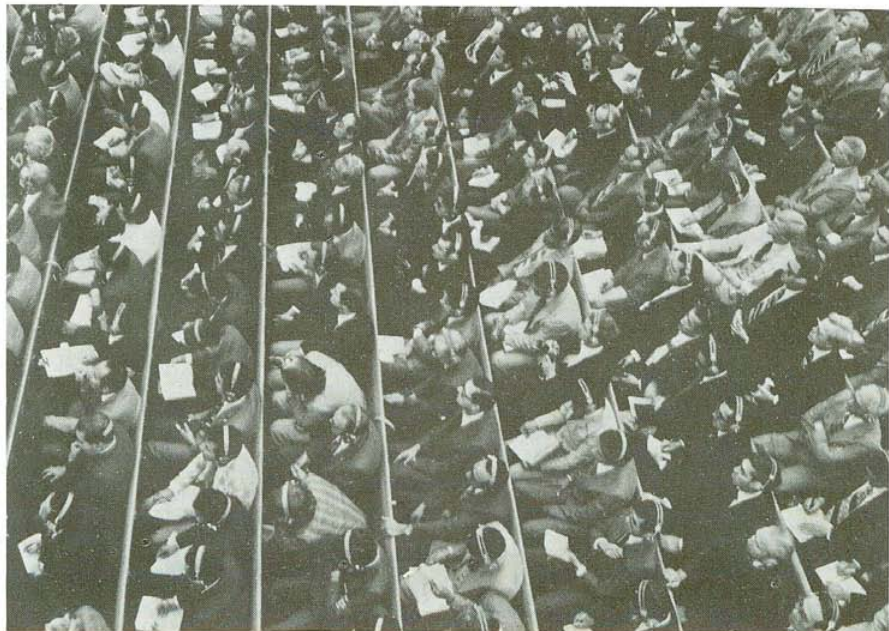
그는 나의 친구요, 구세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성도들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영을 지녀, 해의 영광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된 2일 동안을 마칠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디에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적인 만

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우리 형제들에게 건강과 힘의 축복을 주시며 이 세상에 그의 왕국에 관한 문제를 지시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면 나의 사랑과 감사를 지역 성도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대회에서 행해진 메시지와 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임과 사업과, 여러분의 생활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말일성도가 됩시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종으로서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1978년 9월 30일 토요일  
복지 모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8 반연차 대회 말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빅터 엘 브라운 감독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데이비드 비 헤이트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 복지 사업의 결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신 바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함을 염려하시는” 킴블 대관장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수확의 절기를 맞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지 사업으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권고를 따를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집”이란 가족이 살고 있는 가족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와드, 지부, 스테이크 선교부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경고하신 바대로 행해야 할 약속과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 나는 저으기 염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계획되고, 일관성 있고, 시기에 적절한 기본 복지 원리의 적용과 프로그램에 의하여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겸손한 생활, 개인 및 가족 예비,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생산 및 가난한 자에게 생활 필수품 공급, 특별히 곤란을 받거나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도움, 실업자에게 안정된 직업 알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를 교회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킵,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의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바치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42년동안 복지 사업으로 집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크와 와드는 여러가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스테이크와 와드는 복지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을 막 시작한 곳이나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스테이크 할 것없이 모두에게 복지 사업의 결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 사업의 결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인의 결실이고, 둘째 가족의 결실이며, 셋째 교회 전체의 결실입니다.

개인의 결실은 고상한 품위, 자존, 간증울 키움, 헌신, 영적으로 충만함 등의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는 1936년 10월 2일 이곳 태버나클에서 열린 스테이크 부장 특별 모임에서 행하신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교회 성도들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기쁨을 주며, 영적인 풍부한 잠재력을 꽃피우고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 등 교회가 존재한 목적과 사명과 이유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 개인의 결실

복지 사업의 근본적인 결과는 개인의 삶을 훌륭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훌륭해지면 그 훌륭함이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 모든 성도가 훌륭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개인의 굳은 간증이 교회를 강화시키게 되며, 각 회원의 노력이 복지 사업이란 하나의 큰 힘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행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슨 씨앗을 뿌려야 그와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복지 사업의 6가지 기본 원리인 사랑, 봉사, 노

동, 자립, 헌납, 청지기의 직분 등을 매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활동의 전면적인 형태와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 관해서 이 6가지 원리를 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복지 사업이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여섯 가지 기본 원리와 이것에 관련된 복음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하고, 일하고, 실제로 활용하며 복지 사업의 결실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심지않고 결실을 얻을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씨를 심으면 곧 우리는 기적의 꽃봉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이런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과정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기 전에 거두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물몬경 야곱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주의해서 읽으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포도원 주인은 실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과수원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내가 일손을 게을리하여 나무를 가꾸지 아니하였더냐? 아니라 내가 거름주어 가꾸며 돌레를 파 헤쳐 복돋아 주며 가지지를 쳐주며 비료를 주며 종일토록 일손을 살피어 왔으나, 이제 끝이 가까왔도다. 이제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야 하매 애석하도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가 누구냐?”

“이에 그 종이 저의 주인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포도원이 높이 치솟아 있어, 나무 가지들이 좋은 뿌리를 억누른 까닭이 아니오니까? 가지가 뿌리를 억누름에 보소서 가지가 뿌리에서 힘을 빼앗으며,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빨리 자라났으니,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포도원을 망치게 한 까닭이 아니오니까?”(야곱서 5 : 47-48)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가져다 줄 뿌리를 튼튼히 해줄 노력은 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복돋아 주기 위해 교육과 일 등의 노력을 기꺼이 들일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정원을 가꾸고,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길어 나르며, 나무를 자르고 울타리를 고치고, 조그마한 농장에서 일을 행하는 것 등이 바로 가지가 나기 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중요한 일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가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신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뿌리를 내려서 복지 사업의 원하는 결실을 견우어야 하겠습니까.

#### 가족의 결실

가족이 이룩해야 할 복지 사업의 결실은 많습니다. 그것은 화평, 사랑, 조화, 단결 만족 등입니다. 진실된 말일성도 가족이 있는 곳은 인생의 폭풍과 환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가정은 문명의 요람이요 사회의 기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왕국과 영광의 근원이 될 신성한 족장의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것은 승영된 가족임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조화의 결실을 가족이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에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복지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 준비의 표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을 교회 여러 곳에 보급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표준을 배워서 따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회원들로부터 수십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개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글들입니다. 나는 이 편

지를 훌륭하게 처리할 관련된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돌려보내면서 생각하기를 대부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전과 마음의 상처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을 사는 동안 이런 것을 맞봄으로써 해서 힘과 경험을 얻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거운 비중으로 이것들을 짊어지게 되면 그것은 때때로 성신을 통한 주님의 조연이나 임명된 신권 지도자들의 조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개인 및 가족 예비의 원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

### 교회의 결실

우리가 교훈과 교리와 복지 사업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결실은 시온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성 82 : 14)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어린양의 피로 저들의 옷은 깨끗하게 씻겨진 성화된 자들로 구성됩니다. (엘마서 13 : 11 참조)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각 곳에 스테이크를 세워 시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고장에 머물러 살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함께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신전을 세우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 때 성도들이 그를 만날 수 있

는 준비를 하도록 그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계시하셨습니다. 복음의 원리와 교리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전을 세우도록 한 계명인데 그것은 복지 사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응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해야 합니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성 105 : 4-5) 복지 사업의 궁극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 기르고, 베풀고, 일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기회요 책임입니다. 에녹에게 보인 시현을 모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 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이는 나의 백성이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함이니, 거기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임이라. 그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리라. (모세서 7 : 62)

나는 우리의 가정, 가족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질서의 집을 지을 것과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지금 바바라 스미스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스미스 자매가 단상에 나와서 대관장단이 승인한 것에 대한 교회 및 비축에 관계되는 문제의 조처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

김볼 대관장님 감사합니다. 1876년 어느 가을 날 브리검 영 대관장께서 저의 전임자 에미린 비 웰즈 자매를 그의 집무실로 부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먼즈 익스포넨트지 편집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관장님은 빈곤의 날에 대비해서 시온의 자매들은 곡물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가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 역사 1842-1966,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 1966년 109페이지 참조)

웰즈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소를 받았지만 그 해에 당장 시작하여 곡물을 매입했습니다.” “자매님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고 웰즈 자매는 권고하여 많은 자매가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호응하였으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먼즈 익스포넨트, 1876년 10월 15일, 76페이지)

밀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자매님들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달걀을 모아 그것으로 밀을 바꾸거나 그것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밀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불과 마루 깔개를 만들었으며 치이즈를 만들어 팔아서 그 돈으로 밀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상호부조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는 그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다시의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감독님이 우리에게 십일조 사무실의 빈방을 마련해 주어서 그 방에 밀 56헥터 리터를 쌓아두었다. 우리는 기회가 오면 우리가 가진 물건들로 곡물을 교환하려고 한다.” (우먼즈 익스포넨트 1877년 2월 15일 138페이지)

박스 엘더 군 만투아의 역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쌓아둔 곡물을 우리의 사랑하는 브리감 영대관장님의 권고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은 115부대인데 그중 13부대는 청녀회 자매들이 이삭줍기를 하여 모은 것입니다.” (우먼즈 익스포넨트 1878년 2월 1일 130페이지)

교회 초창기의 자매님들이 헌물하여서 쌓

아 둔 밀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1898년에 상호부조회가 비축한 밀은 유타주 파론시 등 가뭄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을 돕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지, 1915년 2월호 58페이지 참조)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시에 지진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4대분의 상호부조회 밀을 보냈습니다.

1906년에도 4화차분의 밀을 기근을 당한 중국에 보내어서 기근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1918년에는 상호부조회가 비축한 전량의 밀 70,478 헥터 리터를 일차 세계 대전으로 발생한 긴급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정부에 매도했습니다.

수년동안 그 밀의 이익금으로 교회 회원의 임산부를 돌보고, 어린이 복지와 교회 일반 건강 복지에 사용했습니다.

1940년에 다시 상호부조회는 밀을 매입하여 웰페어 스킴어에 있는 곡물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역사 110~111페이지 참조)

백여년 동안 우리의 곡물 계획은 “신성한 신탁”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상승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곡물과 자금이 있어서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 상호부조회 간행물에서 어느 자매는 곡물 비축 소감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이 아니면 자매님의 주위를 살펴보세요, 이땅의 무수한 어린이들을 보세요, 지금 곡물을 비축하도록 권고 받고 있는 자매가 바로 그 어린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먹을 것을 원하나 줄 것이 없는 순진한 어린이의 입술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먼즈 익스포넨트 1876년 11월 1일 81페이지) 여자로서 우리는 유년기와 소년기의 어린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 해주고 어머니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인생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이탈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압니다. 과거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병원, 입산부, 입양, 그리고 다른 사회 봉사나 복지 사업등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계획이 성숙되었을 때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청지기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은 곡물 저장이란 청지기의 직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업의 책임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이 바로 범세계적으로 상호부조회 곡물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93,835헥터 리터를 또한 상호부조회 밀을 복지 사업의 곡식 비축 계획의 일부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상호부조회 곡물 자금은 오로지 곡물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의 전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1957년 7월 1일 현재 밀 보관증을 갖고 있다고 기록된 모든 스테이크와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니다.

킵블 대관장님의 승인으로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한 자매님에게 의견을 물어 이 번의 조치에 대한 지지를 묻고 싶습니다. 범세계적인 교회 곡식 비축 프로그램에 상호부조회 밀을 기증하는 결정에 동의하시는 자매님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킵블 대관장님,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가 성취한 사업에 대해 긍지를 느끼며 우리가 가진 밀을 곡식 비축의 목적으로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를 통해 대관장님의 처분하에 두게 됨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밀이 신성한 신탁물로 계속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곡식을 헌물해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합

계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킵블 대관장 :

스미스 자매님, 나는 교회의 총관리 역할과 일반성도를 대신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상호부조회를 통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년 동안 이 성스러운 밀 신탁을 신앙심있게 수행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적지않은 희생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님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 아래 있는 복지 사업과가 과거에 상호부조회가 운영하던 것과 같은 훌륭한 방법으로 곡식 비축의 관리를 계속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계 각 곳에 있는 성도들 생활에 필요한 때 축복을 주기 위해 상호부조회에서 헌물한 이 선물이의 도한 바대로 유용하게 쓰이게 되도록 지켜 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자매들이 이룩한 업적에 긍지를 느낍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매님들이 선행을 계속 행하신 것과 교회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매님들의 조직인 상호부조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형제님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여러분을 돕게 하고 동반자로 함께 일하여 주님의 일과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호부조회에서 준 이 선물로 말미암아 협조와 조화의 모범을 보여 교회와 가정 생활이 풍성하게 될 수 있게 합시다.

주님이 이 거대하고 신성하고 영적인 복지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건강은 행복한 삶의 열쇠임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휴식,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귀, 가운데 “하나님은 친국에 계시고 이 세계는 더할 나위없이 아름답다.”(피파 파세스: 시극, 제1막, 227—28행)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 시귀는 우리의 몸이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더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개인의 행복, 일의 착수, 사고, 심지어는 주님에 대한 봉사 등 우리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세계적인 인생의 한 면입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나이 2:25) 주님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기쁨이 더해질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건강에 관한 계시로 잘 알려진 성구는 고리와 성약 89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해도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차, 커피, 담배, 알콜이 태아의 발육에 까지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사는 것을 포함해서 약을 부적당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예언자와 현대 과학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치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도움이 되나 어떤 것은 과용하거나 다른 것과 혼용하면

중독이 되는 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대부분은 “인간의... 이용을 위하여... 정해주신”(교성 89:10) 것이라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소단위 반에서 자매님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방법을 흥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느 젊은 손님에게 채소 요리로 저녁을 대접했다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크림을 바른 시금치는 참 맛이 좋군요”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나의 친구는 킴벌 대관장님의 정원을 가꾸라는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 자매는 직접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훌륭한 요리 솜씨로 그것을 요리하고 대접합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일어설 때마다 맛있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89:20)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건강의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다른 율동적인 운동은 심장 계통 기관의 단련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바쁜 생활에서 가끔 우리는 시간도 기회도 없어서 적당한 운동을 할 겨를이 없다고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다. 나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테이프를 듣거나 녹음된 경전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젊은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교성 88:124 참조)

같은 귀절에서 우리는 “부정을 금하라”(교성 88:124)는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말

씀을 우리의 신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하고 음식이 준비되고 나누어 주는 곳을 깨끗이 해야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주님은 지상에 있는 음식을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지”(교성 59:20) 말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전문가는 비만증이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과중한 체중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며 정신적 부담과 육체적 불편을 낳게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했고 더욱더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켰고 애기와 어린이의 사망율을 낮추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의 슬픈 일면은 아픈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애배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위험한 질병을 지금은 거의 모두 예방 주사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 간호 과정과 응급 처치법 기타 가정 건강 기술을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칩니다.

의료비가 상승한 오늘날, 자매님들이 의료보험의 가치를 배운다면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건강과 재정 관리의 양면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
2.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휴식, 완전 영양식으로 알맞은 체중을 유지한다.
3. 개인과 가정의 위생시설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4.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는다.
5. 가족 건강 기술을 공부하고 익힌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적용하여 기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멕시코 베어 메이힐로 지부의 놀라운 모범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4년이란 짧은 기간에 성도들은 시온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그들의 삶에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일어난 극적인 사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의 토에론 근처 베어메이힐로란 조그마한 교회 지부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베어메이힐로는 저지분한 거리와 흙벽돌 건물이 즐비한 멕시코 중앙에 있는 전형적인 마을이었습니다.

8년 전에 작은 지부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집회가 회원들이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 전세 건물 한 방에서 열렸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임)

지부의 대부분 형제들은 정부가 지정해준 땅에서 일합니다. 그들의 주요 농산물은 면화, 옥수수, 콩입니다. 그들의 수확물은 작은 규모의 농업 협동조합으로 보내져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 3달라 내지 5달라 정도를 매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작은 지부에 굳은 신앙을 가진 카스타비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어머니와 여섯 아들과 한 딸이 8년전 베어메이힐로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후 여섯 아들은 결혼하여 그들의 아내를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이 가족은 아리조나 신전에 가서 인봉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리안 카스타비다는 지난 5년동안 지부

장으로 일했고 지부의 영적 세상적 문제를 인도해 왔습니다.

1975년 이후에, 복지 선교사가 베어메이힐로에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개인 위생, 영양, 오락 등을 가르쳤으며, 지부장의 복지 사업 전문가로 봉사했습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가 방문한 수년 후 카스타베다 지부장은 지부 복지 사업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개인과 가족의 비축에 도움을 주어 실행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며 가정 정원 가꾸기를 도왔습니다. 카스타베다 지부장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씨앗을 구해다가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정원을 가꾸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회원들이 지부장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때가 정원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닭을 치기 위해서도 닭장을 만들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 가꾸기 이외에 비축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과일과 채소 말리는 방법을 배웠고 소규모 통조림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알맞는 방법으로 잼과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년간의 농사에서 수확된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곤충과 쥐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운반해 와서 쌓아 두었다가 음식을 짓는데 쓰기도 하고 물을 끓여서 찹시도 닭고 집울 깨끗하게도 했습니다.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자 회원들은 그들 집 근처에 목욕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베어메이힐로 성도들은 목욕탕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집에(슬라이드를 보이며) 베어메이힐로에서는 처음으로 정화조가 설치되

었습니다. 샤워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50갤론 들이 물통을 옥상에 설치하여 아침에 물을 채워서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서 저녁에 따뜻한 물로 쓰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정원과 욕실을 갖추는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칩대도 없는 마루바닥뿐인 집은 연통이나 굴뚝이 없이 집안에서 불을 피워 요리를 했으나 지금은 시멘트 바닥에 환풍장치가 잘된 난로에서 요리를 하거나 부엌을 따로 지어서 깨끗한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고 정돈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해도 베어메이힐로의 대부분의 건물은 모양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 소도시의 모범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페인트로 단장하고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집 근처에 심었습니다.

베어메이힐로 성도들은 근처에 있는 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끌어 사용했으나 음료수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1갤론의 물에 표백제 3방울을 떨어뜨려 물을 정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을 정수하여 설사, 이질, 열병 등 질병을 피치게 되었습니다.

복지 선교사들은 새로 칩체를 받은 가정을 방문하도록 지부장이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때때로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곤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느날 새로 칩체 받은 회원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영접을 받아 들어가 앉았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애기가 몹시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위가 몹시 부어 있었습니다.

진단을 해본 결과 그 애기는 밀가루와 물과 우유 밖에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개월 동안 그 어머니는 어린이가 몹시 아파서 어떤 음식도 먹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양실조 때문

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머니들에게 어린이 음식으로 곡물, 과일, 채소 등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어린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이 선교 지역 전체의 어린이 사망율이 40프로인데 비해 베어메이힐로 마을에서는 사망율이 10프로 미만입니다.

비활동 회원이 그들의 가정을 깨끗이 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해서 킴블 대관장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도록 권고하신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여덟 가족이 단칸 방과 저저분한 한칸의 마루 그리고 2인용 침대, 조그마한 식탁과 석유 난로만으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지부 복지 사업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통으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도와 가구를 햇볕에 꺼내어 해독은 먼지를 털도록 도왔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신권을 가진 형제들은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복지 선교사들은 청결과 개인 위생에 관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사가 지부 회원을 도운 것은 상호부조회 회원에게 애기를 돌보는 법 등 특별한 공과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자매들은 지금 자신의 옷을 자신이 지어 입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의 사랑이 커지게 되어서 방문 교육이 쉽게 실현되었습니다.

베어메이힐로에는 개인 및 가족 예비 계획으로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에 벌써 초등학교는 어린이를 잘 교육시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나이가 든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린 어

린이들이 복음 공과를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가르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저급하라는 킴블 대관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진 동전으로 과자를 사먹지 않고 예금을 했습니다.

비회원들은 베어메이힐로 성도들의 모범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부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 건물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스타니라 지방장은 교회 건물(슬라이드를 보임)을 짓기 위해 이 대지를 사용하도록 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부 내에 다른 지부는 그와 같은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베어메이힐로 관청은 이 지부가 성취한 업적을 알고 있었고 이곳에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조그마하고, 임시적이며 벽돌로 된 예배당은 건립 중에 있으며 그들의 새로운 건물을 위한 건축 기금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건축 기금은 지부 활동 계획으로 모금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나스와 터마리 요리를 만들어 공원이나 가정을 방문 하면서 팝니다. 어느 자매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파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을 원합니다. 그것을 짓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실로 보아 어떠한 단위 조직이든 환경에 관계없이 지도자와 회원이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성도들이 이룩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원을 가꾸고 생산물을 비축하고 가

정을 단장하고 나무와 꽃을 심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하고 집의 내부와 외부를 청소하며 수리하고 식수를 정수하며, 식량을 알맞게 저장하며, 그들의 어린이들을 위해 더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외에 성도들은 비활동 회원 가족들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회원과 우정을 증진하고, 말일성도 생활의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정의 손길을 넓혀왔습니다.

이 지부 회원들의 영성은 회원 활동의 증가와, 교사들의 더 잘 준비된 공과와,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개종 회원의 증가와, 지부 발전 계획과, 개인적인 회생 등의 프로그램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이 작은 지부의 금식 헌금 증가율이 1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랑, 봉사, 노력, 자존, 헌납 등의 원리를 베어메이힐로 지부는 달성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이곳 성도들은 시온의 이상을 이루하기 위해 그들의 사명을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나는 어떤 와드나 스테이크도 베어메이힐로 지부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복지 사업 위원회를 조직하고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실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와드와 지부는 그들이 방문해야만 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성도들의 방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는 교회 신권 계통을 통해서 복지 선교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베어메이힐로 지부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복지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완전한 말일의 시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성공적인 청지기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 2보좌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교회의 거대한 복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위대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말일의 예언자에게 나타내어 보였음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으나 아직도 먼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세계 전역을 통하여 선교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감에 따라 세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명하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의 경전에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끝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니라.”

“만일 재산이 나의 것일진대 너희는 관리인이니”(교성 104 : 14, 55-56)

이 청지기에 대한 교훈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 25 : 14-30 참조) 유익한 종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청지기는 경영자입니다. 훌륭한 경영은 낭비를 줄이고 자산을 투자하여 이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는 좋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베가 작

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베풀게 맡기리니”(마태 25 : 21)

나는 성공적인 청지기의 자격에 의지, 근면, 책임감 이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단 받아들여지면 결과를 위해서 책임 완수를 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부름을 받은 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 : 2) 또한 72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금이나 영원토록 요구하심이니라.”(교성 72 : 3)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상의 신권 지도자에게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고 자원 제도에 있어서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계획입니다. 계획은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이 부족하면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시행 착오는 낭비와 실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합 지역이나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전역을 통해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 종합 계획은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필요와 편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종합 계획을 완전히 실행했을 때 우리의 감독들은 변화하는 경제 상태하에서도 보다 적절히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훌륭한 청지기는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2년 전에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산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지 농장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생산물

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계획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복지 사업이 좋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함으로써 형제애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엔사인, 1976년 5월 125-26페이지)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1960년 복지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지 사업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떠맡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와드나 스테이크를 인도하는 우리가 성도들의 신성한 신용 자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복지 사업 농업 모임, 1960년 4월 4일)

교회 본부는 이 신성한 자금을 관리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금의 대부분이 교회 참여를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금 명세서와 사업 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맡아 운영할 구성 요원과 관리 능력과 이 사업에 지역 신권 소유자 참여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신청서는 이 사업을 운영할 청지기의 자질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말해 줍니다.

셋째, 품질 관리를 향상시킵시다. 훌륭한 품질은 갑자기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높은 목표와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창고 물건들은 선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된 표준과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근래 통조림 공장 기공식에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방문하시는 영광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산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주님이 바라시는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메저렛이란

상표는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상표 뒤에는 사랑의 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또는 자발적인 봉사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나 서어비스이 등 품질 관리는 복지 사업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창고에 쌓아진 일용품의 품질은 우리의 생산 능력의 최후의 결정입니다.

네째, 품질 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안전입니다. 나는 우리의 안전 통계가 향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 조직들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에서 인간이 받는 대가는 비극입니다. 사고와 화재로 인한 손실은 매년 수십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보증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말은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우리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교회의 신성한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지침서에는 창고 자원 제도에서 행하여야 할 안전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철저히 공부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훌륭한 청지기는 예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건물을 잘 정비하고 해마다 안전 검사를 행하고 모든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수리합니다. 그는 현명한 관리 방법으로 재산의 수명을 늘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무실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붙여두었습니다. “언제나 일을 완수할 충분한 시간은 있는데, 왜 일을 올바르게 행할 충분한 시간은 없습니까?” 예방은 먼저 일을 올바르게 행하게 합니다.

여섯째, 현명한 청지기는 훌륭한 장부 조직과 건전한 회계 업무에 따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최신식 회계 자료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인내로서 이 새로운 체제를 실시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전한 판단력은 정확한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면 항상 정확한 보고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본부 자신이 개입된 곳은 여러분의 신중한 관리가 따라야 합니다.

교회 사업의 명성에는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지불은 합의된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종종 비영리 조직에서 구매를 할 때 할인을 원하거나 지불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맙시다. 이것은 약속 어음에도 적용되며, 여러분의 생산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무이며 명예롭게 행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김볼 대관장님의 권고와 모범을 따릅니다. 지난해 10월 대회 복지 모임에서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는 우리 자신에게나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 120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충실하며 올바르게 지혜로운 관리인은 누구든지 그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 받으리라.”(교성 51 : 19)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헌신적이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현재와 장래에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

# 개인 및 가족 에비 프로그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 1 보좌

“에비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킴블 대판 장남께서는 우리에게 개인 및 가족 에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행 표준을 설명하셨습니다. 필름스트립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했으며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비축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필름스트립에서 토의된 원리들은 기본적인 것이며, 교회의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삶에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인의 필요는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른 것처럼 다양할 것입니다. 개인의 환경도 해가 갈수록 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평가해 보아야 하며 우리의 지시와 강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발전은 주로 우리의 약점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의미하는 것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15년전 모든 아이들이 집에 있었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6시 15분에 함께 모여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13살 된 딸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금도 경전 공부는 계속하지만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밤이나 일요

일 저녁에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일 흥미 있는 독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쪽면에 1부터 30까지의 숫자의 도표를 붙여두고, 각 숫자는 경전 읽기의 계속적인 날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각자는 하루에 경전 1장을 읽을 책임이 있으며 진행 과정을 도표에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빠뜨렸으면 빠진 사람이 빠진 부분을 읽어서 연속적인 독서 날짜를 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30일의 기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그 성취에 대해 특별한 놀라움을 갖게 되며 가족 각자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빠뜨리고 읽어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13살 짜리를 위해 특별한 동기가 됩니다.

가정 생산 및 비축 분야에서는 우리는 지하실에 피터슨 가족 창고라는 글씨를 쓴 곳에 일년 동안 사용할 일용품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이나 1년 동안의 일용품 프로그램도 15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창고는 지난날에 했던 것처럼 2명의 성인과 5명의 어린이를 위한 달리 2명의 성인과 1명의 어린이와 많은 방문자의 필요한 물품만 저장하면 됩니다.

우리의 체육 활동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같이 있을 때 그들은 활발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늙은 어머니 아버지가 13살 된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을 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딸들간에 서로 도전했으나 지금은 아버지는 한쪽에 어머니와 딸이 한쪽에 서서 정구 시합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걷기 운동을 했고 지금도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은 더욱 어려움을 더해 주긴 합니다.

우리는 가족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하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딸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13살 된 딸과 아버지가 여름마다 가끔



즐거운 공원에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아직도 교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필요하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정구적으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축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하도록 합시다.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억하라.”(교성 18 : 10) 남자와 여자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교성 132 : 19) 인간의 육체, 인간의 예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파괴될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귀중하고 영원한 인간은 신권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 사업의 근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격려받고 성화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초기에는 매우 살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수입은 급격히 줄었으며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속출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수입은 5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농장의 수입도 5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모든 노동자 중 실업율은 25퍼센트로 증가되었습니다. 통계 숫자만이 실제적인 비극과 고통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한 예로 솔트레이크 파이오니아 스테이크에는 이 공황으로 말미암아 스테이크 회원 반 이상이 실직 상태였습니다. 솔트레이크 그랜드 스테이크의 사우스 게이트 와드에 가정 수가 173가정이었는데 110가정의 가장이 실직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런 어려운 기간을 경험했고 그와 같은 실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는 은행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공황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솔트레이크시티로 와서 은행에서 취직 자리를 구했으나 급료가 너무나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주급 15불을 받았는데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부장의 역할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지 사업의 근본 목적은 개인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성화시키고,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교회 복지 사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많은 방법으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나는 열심히 일해야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중심가로 올라가서 시은 은행 건너편 길을 완전히 메운 균증을 기억합니다. 그랜트 대판장님의 보좌였던 안소니 더블류 어빈스 형제가 은행의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돈을 인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금한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균증들은 되돌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빈 형제는 정직과 신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켈리포니아에서 나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성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 복지 사업이 스스로 돕는 성도를 성공적으로 돕는가를 목격했습니다.

1936년에 대판장단은 교회 복지 사업의 목표는 넓은 의미에서 공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회 지도자의 지휘하에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며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회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공상적인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작았고 자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돈, 지도력, 힘 등에 있어서 자발적인 노력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지도 원리는 분명했고, 이 원리에 충실한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급한 경우나 일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을 밝혀 두는 것이 좋겠습

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방법을 제정하셨을 때 세상이나 정부는 주님의 방법과 상반되는 실업 수당 등으로 돕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사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노동의 원리와 가족의 책임을 무시해 버렸고 그들의 빈곤을 정부가 보살펴 줄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삶을 정부에 의존하는 그러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은 정부의 구호품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한 진실한 사랑과 성령으로 구세주가 가르친 이웃을 사랑하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결과입니다.

통계 숫자를 잠시 훑어보면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파산에 이르게 하며 동시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을 상실케 하며 이마의 땀에 의해 얻으려는 노력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정부 복지 원조의 총액은 1945년 57억 불에서 1975년에 1770억으로 3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유 에스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 1975년 8월 4일, 32-33페이지)

소위 정부 복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2대 3대에 걸쳐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어떻게 정부에 의존하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이들은 일의 가치와 존엄성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금하는 것을 행함에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정부의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영감에 찬 교회 복지 사업은 개인은 그 자신을 보살피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개인의 능력에 부족이 있을 때 가족이 돕습니다. 가족이 개인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개인의 노동과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돕는 인간에게 용기를 줍니다.

교회 복지 사업은 견고함과 효과적인 것으로 더욱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출

신 하원 위원인 더블류 알 포지 의원은 지원을 받은 자는 일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하나인 유타주 노동 경험과 훈련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하기를, “교회의 철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유타의 강력한 노동의 윤리는 이 프로그램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는 계속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메저렛 뉴스, 1978년 8월 25일 D-1페이지)

그러나 교회 회원은 정부의 실업 수당의 위험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원조를 받은 일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교회 복지 사업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회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참된 말일성도는 누구도 자신이 가족의 복리를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24페이지)

스태이크 부장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음의 원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된 복음의 원리를 배우려하는 많은 회원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시온은 끈을 말뚝에 연결한 큰 장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 54 : 2) 여러분의 스테이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전 지도자가 회원들에게 신성한 원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필요한 자를 찾아내어 도울 수 있게 감독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 성도들이 주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정확히 다스리는 더 훌륭한 찬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태이크 부장 여러분, 여러분은 복지의 기본 원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취해야 하거나 재창조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 원리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해와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테이크 부장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둘째, 교회 복지 사업은 신권이 중심의 원리이며, 감독과 정원회 회장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며, 와드 가족의 80퍼센트 이상이 속해 있는 장르 정원회의 중요 책임이기도 합니다.

셋째,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보좌와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의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를 가지십시오. 이 모임에서 복지 자원에 관한 원리를 점검하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가 있으면 이 자원을 감독이 사용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설립이나 복지 사업 생산 계획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복지 상품 생산에 있어서 자원을 조사해야 하면, 교회 전문가를 지명하며,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정원회 회장들에게 가르친 감독과 고등평의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은 복지 사업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넷째,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를 가지십시오. 감독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곤경에 빠진 자를 알아야 하며, 그들을 도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감독은 의견을 교환하고 참고 제도를 평가하고 도움을 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보살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감독이 도움을 줄 때 물질 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예는 없었으며 오늘날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스태이크 부장님, 감독은 여러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독을 가르쳐야 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그들과 개인 접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복지 사업을 배우고 복지 사업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를

가지십시오. 이 모임에서 복지 사업의 일면인 예방과 회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평의원들은 정원회 회원들간의 형제애로 도우며 벨기세백 신권 지도자들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관심은 경전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모로 7:47 참조) 그것은 신권의 책임이며 정원회 복지 사업의 보증입니다.

여섯째, 감독과 정원회 회장은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훌륭한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감독이나 정원회 회장을 대표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이 무사히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감독은 누가 궁핍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 가운데 병든 자나 궁핍한 자가 없습니까? 가족 가운데 문제는 없습니까?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시키므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궁핍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 주님의 복지 사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40년 동안의 경험으로 이 복지 사업은 영감받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증명합니다. 수십만 명의 말일성도들은 이 신성한 원리에 따라 스스로 돕는 자를 격려해왔습니다.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복지 사업의 원리를 여러분의 스테이크 회원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테이크 회원들의 축복을 빕니다. 나는 교회의 복지 사업은 신성하게 계획되었고 이 말일에 자기 존중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어 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가난한 자를 보살핌 - 성약의 책임

매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 2보좌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계명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가 말씀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릴 주제는 성약의 책임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성약이란 단어를 “특정한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불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 행한 신성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약의 책임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63년 이 건물에서 루론 에스 웰즈 형제가 하신 대회 말씀을 들은 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42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때 말씀에서 웰즈 형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개인간에 우리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서명 날인하고 증인 앞에서 전달하며, 공증인에게나 치안 판사 앞에 가지고 가서 서로가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약속을 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1963년 4월, 대회 보고, 41페이지) 교회 성약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다면, 우리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면 영광

이 우리의 머리에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약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이 성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의 회복과 함께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끝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되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의 성약을 지키십니다.”(1936년 4월, 대회 보고, 40-44페이지)

교리와 성약 133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주의 복음과 영원하신 서약을 보내셨나니”(교서 133 : 57)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에 의한 안수례를 받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면 한 개인은 주님과 복음이 요구하는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성약을 맺게 됩니다. 순종할 기초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은 영생의 은사입니다.

웰즈 형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째되는 성약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약을 주님은 우리 각자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행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약입니다. 주님은 그의 성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맺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권위있는 방법으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자들에게 신권을 주어 그의 권능을 위임하여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계약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복음에 순종하고 무엇이나 주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입니다. 우리는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사유함을 받기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에 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인상적인 형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침수로서의 침례에 의한 계약은 죽음과 삶 모두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의 영광된 부활과 같이 물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대회보고, 1936년 4월, 41페이지)

이 침례 성약에 관한 의미 심장한 말씀은 40여년 동안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또한 침례 성약에 대해 앨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가 무리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곳에 물론의 샘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집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바가 있겠느냐?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던 바라 하더라.

“이에 앨마가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먼저 힐렘이라 하는 자를 취하여 물속에 들어가 서

서 되쳐 이르기,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영을 부으사 저로 이 일을 기록 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저가 이 말을 할 때에 주의 영이 저에게 임하신지라 저가 이르기, 힘됨이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너의 죽을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으로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마련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생이 그 대에게 임하기를 비노라.”(모사이야서 18 : 8-13)

이 계시의 말씀에 보면 웰즈 형제가 하신 말씀과 같이 어느 사람이나 침례를 받고 의식의 인봉으로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에게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성약한 것입니다. 경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그 중에 한 계명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 중에 우리가 그의 교회의 성도로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말씀보다 더 강조되었거나 더 되풀이 된 계명은 없었습니다.

1830년 12월 교회가 조직된 바로 그 해에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저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되리니”(교성 38 : 15)

그때부터 며칠 후인 1831년 1월 2일,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교리와 성약 38 편에 기록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에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하는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 계명 하나를 주노니...

“그러고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이때는 교회가 조직된 지 1년이 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신처럼 여기에 하라.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기록할 지어다.

“저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비에게 순종하여 섬기나, 아비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나 내가 존재함 같이 진실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교회 회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방의 교회 회원에게 계명을 주노니, 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임명 받으리니, 교회의 지지의 저수로서 임명받게 할지니라.

“또 저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교성 38 : 16, 22, 24-27, 34-35)

바로 그 달 5일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줄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교성 42 : 29-31)

그달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교성 44 : 6)

1831년 6월 대회를 가졌을 때 주님은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

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성 52 : 40)

같은 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 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교성 56 : 16)

나는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약의 책임이란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란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지켜야 할 중요성은 신전 성약에 관해서 말씀한 다음 성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악수를 하는 킴볼 대관장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릴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성 84 : 37-41)

우리가 성약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때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실천을 검토하고 우리의 금식 헌물을 늘리고 복지 사업에 더욱 충실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4년이 지난 1834년 4월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제목으로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끝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만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

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성 104 : 14-18)

이 신랄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신 다음 예언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자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육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육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

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태 25 : 31-46)

결론적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약의 책 임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성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기를 결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시간 태버네클 주변



카밀라 김볼 자매



입장하시는 김볼 대관장



헝클리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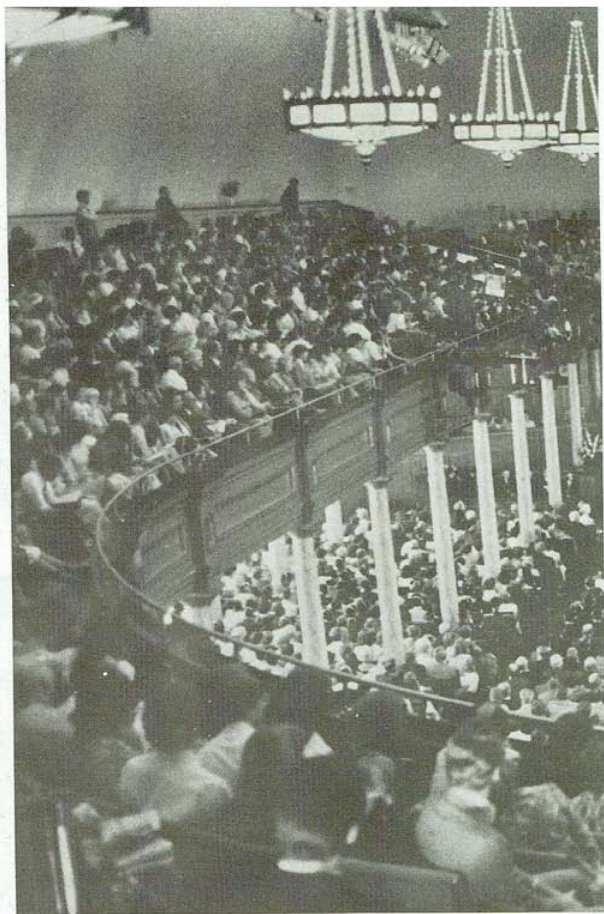


페더스톤 장로

기꾸찌 자매



대회 방문자



대회 방문자



대회 광경



벤슨 장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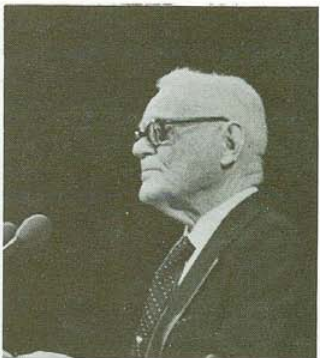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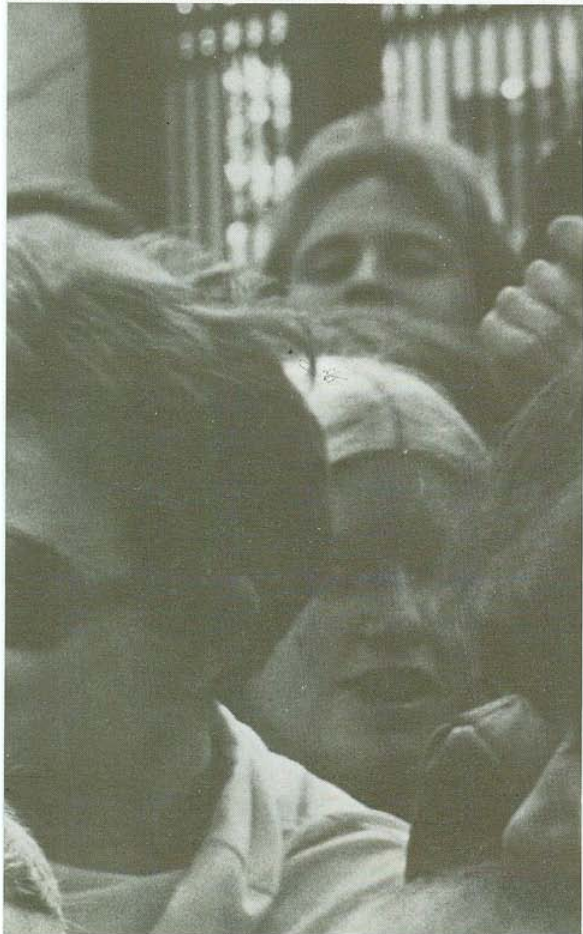


회 방문자

김볼 대관장

들의 인파 속에서 답례하는 김볼 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롬니 부대관장

김볼 대관장



패커 장로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





대관장단



찬송가를 부르는 회중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앤드루 웨더리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텝슨 디블류 존슨 대관장



에리슨 디 폴트 부대관장  
제 2 보좌



제프 디 벤슨



마크 디 웨더리슨



리그레드 디 리차드스



하워드 디 웨더리슨



고든 비 웨더리



토미스 에스 몬슨



에드워드 제 스미스



## 교회 총부사





더글러스 그랜드 펄거터



폴 에이지킨



베리온 디 펄스



닐 에이 맥스웰



리처드 에이 디어더 러블



로버트 에이 프미스 타이인스



프랭클린 디 리처즈



버나드 피 브룩펠크



데이비드 에 버든



윌 윌콕



렉스 디 퍼비거



로렌스 던



하워드 러터 이세



조셉 미 펄스린



에드니 와이 고야드



로버트 디 헤임러



오 헤슬리 스포울



로버트 엘링슨



버나드 피 브룩펠크



찰스 에이 디에리



로버트 기 펄스



프랑수아 지 테리



던 엘 라슨



문 케이 페더스톤



제이콥 디오거



그로버그



윌리엄 펄러드 이세



윌로스 이 에지



조지 워리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지 호머 더링



에르 비론 하워드



렉스 시 디고 일세



로버트 엘 배럴



해리 에이 리스바트



모널드 이 로운델



요시히코 가쿠야



에르 엘러오 부시



휴더 부슈리 녹크



리처드 지 스포트



제임스 엠 페리머



제임스 에이 프루먼드 이세



조세 앵터슨



제임스 에이 풀리머



윌리엄 더글러스



스튜어트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더글러스

### 철심인 제일 정원회

### 철심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 판리감독단



제2 부과



제1 부과



제1 부과

## 여성의 특권과 책임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다음 말씀은 9월 16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태버내클에서 여성을 위해 가졌던 특별 노년의 밤에서 행한 연설이다. 각처에서 모여든 12세 이상의 말일성도 여성 1400여 명이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의 말씀을 들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매 여러분, 세계 각처를 다니며 지역과 환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 이토록 세계 각처에서 모인 자매와 더불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유서깊은 태버내클에서 가졌던 대회와 흡사합니다. 나는 왕국 건설과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먼 곳에 있는 자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실로 중요한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도 이전에 이와 같은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입고 있으며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나는 교회의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며 오늘 이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계획한 상호부조회, 청년 및 초등학교 본부 회장단과 임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훌륭한 합창대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바라고 또한 기원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정신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녁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소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와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 충고와 권고의 메시지, 신앙과 격려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영원한 진리를 재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행하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천세에서나 내세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제와 자기 수양으로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승영으로 이끌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계명은 그것이 참된 것처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외에 구세주께서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기도 및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생각이나 행동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엄격히 지키십시오. 가족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신을 깨끗케 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한 생각이나 행동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높고 의로운 표준을 더럽히거나 낮추지 않는 활동과 교제를 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원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도 역시 형제처럼 경전에 대해 해

박한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합니다.

순결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교양을 높여주며 풍요로운 추구하고 오락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부정적이며 악한 것이 숨어 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몇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신성한 원리입니다.

영감받은 모든 예언자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시기에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통이나 간음과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법입니다. 동성애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범법입니다.

남녀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적 충동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결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자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충동은 오로지 결혼이라는 신성한 범위 내에서 허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전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예롭고 행복하고 훌륭한 결혼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또는 불성실하여서 이 중요한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은 결정을 내려야 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생애에서 누리는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정을 내려야 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

니다. 이 결정이 그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신중한 생각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참된 결혼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때는 감정만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식과 기도와 명상으로 강하게 된 정신과 마음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반력자를 찾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안락하고 호화롭고 끊임 없는 환희로 가득한 생활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참된 결혼 생활이란 그 이상의 것 즉 봉사하며 함께 나누며 희생하며 이기심을 버리는 그러한 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단일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힘껏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성장이란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우리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미망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매들 가운데는 이혼을 한 자도 있으며 전혀 신전 결혼의 특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매들이 우리가 가정 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들을 슬프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들 가운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영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번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값진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웃을 위해 봉사한 대가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이고 고유한 여성으로서 역할

을 행하지 못하는 자매는 아직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이, 그것을 나누고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고뇌와 노고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항상 행복한 가정 생활을 표어로 삼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생활은 현세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며 또한 내세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일성도 가정이 지녀야 하는 이상을 굳게 지키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자매들이 현재 그러한 가정에 속해 있거나 또 그러한 가정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너무 감상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이 가정 생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표준 만큼은 도외시해서는 안됩니다.

젊은 여성은 결혼과 자녀 양육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이며 가장 위대하고도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대로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일단 자녀가 성장하여 여러분의 슬하를 떠나면 그 이후의 시간을 생산적이며 보람된 것을 위해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있는 모든 이웃과 친지의 생활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남편을 찾는다는 것은 여

자의 힘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딸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들이 그러한 기회를 찾아내어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합당하도록 그 기회를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들은 결혼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위대하고도 중대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살았을 때 그것을 들었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에게 오늘날 세상에서 충분한 복음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듯이 교회의 자매로서 이 생에서 신전 결혼의 특권과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닌 자매들 곧,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자매들에게는 오는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든 자매들은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값지고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을 존중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을 생각할 때 나는 아내를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가족이 아내의 재능과 지도력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리고 그녀와 같은 수백만의 여성이 그토록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강인하고 독립심이 강하며 충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훌륭하게 살아나갈 신조와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활동적인 회원이란 신앙, 불굴의 정신, 극기, 비이기심 및 봉사를 뜻해 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 훌륭한 말일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를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며 그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여성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신다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활함 가운데서도 그의 자녀 개개인을 완전하게, 개별적으로, 또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항상 보기에 슬픈 일이며 특히 그럴 이유도 없이 그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의로운 여성이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세주의 재림에 앞서 혼란한 세상에서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소명입니다. 오늘날의 의로운 여성이 지니는 힘과 영향력은 보통 때보다 열 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가장 고귀한 체제인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며 지키기 위해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사회의 다른 제도는 넘어지거나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로운 여인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최후의 보루이며 유일한 성소인 가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여인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안락보다는 가족의 미래를 더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여인들은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포착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부름이 왔을 때 그들은 눈치에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비이기심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값진 것이며 다른 많은 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자나 여자가 결코 지니서는 안될 이기심을 증강시키는 요소가 많습

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물론 여성은 이기심을 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권유하고 설득시키려 하지만, 그 고귀한 성품은 결코 잃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그들과 공통적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합을 가르치나 그러나 결국에는 분열을 자아내는 교리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자매들도 형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신 말씀을 전부하려는 세상의 철학에도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상냥함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강박하게 합니다. 여성의 상냥함은 자녀의 상냥함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교회의 여성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앞으로 올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도의 안식처임을 잘 기억하십시오. 죄와 이기심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둔하게 만듭니다.

나는 우리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와 다른 교회의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 활동을 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젊은 자매들이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봉사의 습관을 기를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의 자매들에게 친구와 이웃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는 일에 열의를 갖도록 권고합니다. 복음의 모든 원리는 스스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봉사 그 자체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돌 뿐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것 가운데 은유, 자비, 화평케 하는 것, 박해와 오해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과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성은 자선 봉사의 모범을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소속감, 자신의 신원 및 자신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진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매들에게 개인 달성 프로그램을 실천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행하게 하며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실질적이고도 실천을 요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눈부신 성취가 아니라 의롭고 가치있는 노력으로 현명하게 자신을 발전시켜 진정한 자기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들에게 바느질과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기는 반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훌륭한 여성은 애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도 분명히 발표할 줄 압니다. 한 가지 기술이나 속성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균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가정에서 음식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에 못지 않게 시간도 현명하게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인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도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두 번째 큰 계명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여성은 이웃과의 관계도 향상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은 이 세상에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경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씨를 배우려고 애써왔습니다. 거기에는 우주의 질서와 목적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의 관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들이 가정의 정서를 위해 교회에서의 그들의 경험을 가정 생활에 적용할 때 얻게 되는 문화의 정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신앙개조 13조의 내용과 일치되는 정신으로 실천할 때 더욱 참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이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나 거둬 거둬 힘들여 애쓰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원리이며 수확의 법칙과 같이 너무나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저녁 이곳으로 오게 한 것도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그의 창조물을 우리에게 신뢰하고 맡기셨듯이 우리도 그의 지식과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목적 역시 그러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 끝 내가 지은 나의 동생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리라"(모세서 2:27)

창세기에 보면 창조에 관해 매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모든 것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28-31)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초등협회 노래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과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상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육신을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예지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원한 예지로 된 모두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에 관해 마음속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복음 계획의 의도는 여러분 각자가 영원히 진보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이며 장차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생애의 일부가 될 다른 사람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뜻한대로 이룩했다면 그것이 행운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란 신앙과 실천과 기도 그리고 꾸준하고 의로운 노력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와 삶에 대한 이러한 경건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해 큰 걱정을 갖게 해 줍니다. 세상은 악, 좌절 및 추악한 것으로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와지리라는 약속을 해주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는 기쁨을 갖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가정은 선하고 사람을 교화시키는 참된 모든 것을 위한 장소입니다. 가정은 그 속에 거하는 자 즉, 아버지, 어머니 및 자녀가 계속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못하고는 생활 가운데서 옳은 선택을 하였느냐 그릇된 선택을 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엘 톨 페리 장로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목표가 가정과 가정 생활입니다. 그는 가정의 도덕적인 신성함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소위 “새로운 도덕”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도덕은 성관계의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4)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부부로 하여금 깨뜨리게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 자매님들께 세상에는 결코 새로운 도덕이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에 대한 교회의 표준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도덕이란 낡은 옷이 아니며 멀리 가버린 구시대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그의 성약과 교리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열을 내지 않아 차갑게 되고 별이 빛을 잃더라도 순결의 법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근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순결의 법은 결혼 전에 완전히 순결할 것과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서로 충실하되 남편과 부인 이외의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가 모두 같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바탕으로써 결혼에서의 행복과 가족의 단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 생활의 행복과 신성함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혼이라는 파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고통과 슬픔과 때로는 자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자주 이혼으로 인한 슬픔과 실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읽고 듣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어떤 상황을 보았다 하더라도 말일성도 여성인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성과 어

머니로서의 신성함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딸들에게 자녀를 낳아 기르는 위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도 변경할 수 없는 여성의 사명입니다. 생명이란 여성이 자녀 낳는 일을 중단할 때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 생애에서의 삶이란 영원한 진보를 위한 특권이요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이브는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쉬운 일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외치는 소리는 “산아 제한”이며 피임약, 수술 심지어는 낙태 등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생명의 출생을 거부하고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단조롭고 고된, 되풀이 되는 일에 대해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 관해 많은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마다 거기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자녀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정을 건설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동반자의 관계를 갖습니다.

결혼은 동반 관계입니다. 부부에게는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의 부분이 따로 주어졌습니다. 몇몇의 남자와 여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기회를 무시하고 게을리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동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동반 관계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일성도 여성이 그 영원한 사명 가운데서 소극적인 동반자나 제한을 받는 동반자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헌신적인 완전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어머니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듯이 하나님과도, 주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며 그를 섬기고 제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도 동반자가 됩니다. 존귀하게 태어나 잘 발전된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신성한 임무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혁신 또는 새로운 도덕을 내세워 순결의 법을 깨뜨리고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교회는 분명하고 변치 않는 표준을 다시 강조하고 확인합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딸로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경향에 관해 크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다시는 물랐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에 관해 기도해 보십시오.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노소를 불문하고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수호자가 되시는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예언자 요엘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을 나도 인용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요엘 2: 28-29)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한국 지역 재헌납 기도문

부산 선교부장 이 호남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제4와드에서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를 모시고 한국 선교 지역 재헌납 기도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모임에서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은 기꾸찌 장로의 위임을 받아 헌납 기도를 올렸다. 아래에 헌납 기도 전문을 실는다. (편집자 주)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금식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다하여 1978년 11월 12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모인 뜻은 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 헌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이 헌납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총관리 역원이신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님,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으신 한인상 장로, 동서 스테이크를 인도하시는 김창선 부장님과 최옥환 부장님과 서울 선교부를 인도하시는 F Ray How Kins 선교부장님, 또 부산의 선교부장님으로 부름받은 이 호남 형제가 그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들의 아내와 고등평의원 여러분, 감독님, 지부장님, 축복사님, 철십인, 선교사님, 그외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되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순간에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이 참된 교회를 이땅에 허락하신지도 어언간 26년이 되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키워주시고, 성도들을 모아 주시고, 이제 두개의 스테이크와 두개의 선교부를 갖게하여 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이 선교사업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녀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우리가 참으로 계명의 말씀을 겸손한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땅의 방방곡곡에 와드와 스테이크가 조직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신전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희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업에만 전념하여서 모든 세상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저희들의 2세들, 차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삭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과 같고 이삭을 축복하셔서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대대손손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크게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고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많은 젊은 청년 남녀들이 교회내에서 하나님에 맺어주는 짝을 찾아서 신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영원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들이 참으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만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여 따라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루 속히 이 참된 교회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이 아침에 드리는 헌납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백성과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금식을 자주 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회개의 눈물을 자주 흘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는 대관장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돕고 계시는 12사도 정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철심인 정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시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지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오직 의롭고 행복의 길만을 찾아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수천 수만의 한국인들이 매달 이 교회에 입교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사가 수백, 수천을 침례주고 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부나 지방부나 또 다른 스테이크도 축복하여 주셔서 방방곡곡에 스테이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전 의식을 받으며 합당하도록 조상들의 모든 기록을 찾아 죽은 자를 위한 대신 침례를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이 다 경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전의 말씀을 상고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아나이다. 당신께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죄가 다시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 참된 교회로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이 헌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

